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우리이웃

현대불교

buddhanews.com

☎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3월 30일(음력2월 21일) 수요일 (주간) 제519 호

불교성지순례전문
관음도량 보타산, 항주 5일
4월 19일, 26일 599,000원
야호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02)725-7595 / FAX(02)725-7923
E-Mail: yahotour21@hanmail.net

복지시설 양성화 앞으로 4개월…불교계는?

대책없이 발만 '동동'

44곳중 39곳 기준 까다로워 '전환준비' 못해

대안은 '그룹홈' … 성공여부 '글쎄'

▼ 경기도 안성 한적한 마을에 자리한 사찰 굴암사(주지 보덕). 25년간 오갈 곳 없는 아이들의 보금자리였다. 굴암사를 창건하기 전인 40년 전부터 8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아온 노스님은 '신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왔다. 아이들만 열심히 기르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 시책인 '미인가 복지시설 양성화' 시한인 7월 31일 이전에 문을 닫을 생각이란다. 스님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난해 조건부 신고시설로 등록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복지시설로 인가 받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도 충원해야 하고, 소방법에 따라 스프링클러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처음에 갈 곳이 없었을 때도, 3년 전 불이 나서 스님과 아이들 모두 죽을 뻔 했을 때도 스님은 꿋꿋하게 일어섰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다.

사람을 쓰고 건물을 보수할 재정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 의정부 쌍암사(주지 증산). 수락산 군사보호지역에 위치한 법당과 11명의 아이들이 기거하는 방사는 비닐과 슬레이트로 덮여 간신히 비바람을 피하고 있다.

증산 스님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도 20여년간 우리끼리 화목하게 잘 살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곳도 복지시설 양성화 정책으로부터 피해갈 수는 없다.

스님은 양성화 얘기가 나오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커 가는지 관청에서 처음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오히려 고맙단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갑자기 '아동 한 명당 3평 이상의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시설 이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뜻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사찰 밑 군사보호구역 30평 건물이라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의정부 시장에게 사정할 참이다. 그마저 안 된다면 문을 닫아야 한다.

정부가 미인가 복지시설의 신고시설 전환 시한으로 정한 7월 31일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교계 44개 미인가 시설중 완전히 신고시설로 전환된 곳은 2곳에 불과하다.



7월 31일 미인가 복지시설 양성화를 앞두고 뿔뿔히 흩어질 위기에 있는 의정부 쌍암사 가족들.

42개 시설중 원주 '소쩍새마을', 안산 '둥지청소년의 집', 화성 '자제정사' 등 사회복지법인 설립, 성공적으로 양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3개 시설을 제외한 39개 시설은 여력이 없다.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도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기준이 까다롭다. 노인 시설의 경우 지자체가 수용인원 10인 이상 일 때 사회복지사는 물론 물리치료사 · 사무원 · 취사부 · 운전기사까지 고용하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와 길이 20cm이하의 계단,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수라 시설설치비가 만만치 않다.

시설이야 폐쇄해도 어쩔 수 없다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뿔뿔히 흩어져야 하는 것. 여기에 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복지시설 수용기준에 적합한 아이들, 즉 법적으로 부모없는 아이들의 경우 대규모 인가시설로 보내면 되지만 법적으로 부모가 있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혼자된 아이들이 문제다. 미인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44개의 불교계 시설 가운데 30인 이하의 시설이 33곳이나 되는 불교계 소규모 시설에서 가장 적합하게 시도할 수 있는 '그룹홈'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룹홈은 도움이 필요한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이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는 방식이다. 그룹홈은 시설장 외에 관리자 1명만 두면 되고, 지자체나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소규모 미인가 시설이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30인 이상의 법인 운영 시설의 경우 시설의 분원으로 신고한 뒤 부대사업으로, 10~30인 10인 미만으로 나누어 소규모시설인 그룹홈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다. 또 5인미만은 가정위탁사업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90년대 후반부터 도입된 제도인 만큼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이 생소하고, 정부의 지원도 미미하다보니 활성화가 안 돼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윤남선 과장은 "양성화가 어려운 불교계 시설들에는 그룹홈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며 "그룹홈은 일반 가정과 차별이 없는 주택을 마련한 뒤 가장 기본적인 시설설비를 갖추면 된다"고 말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군종특별교구법 "통과"

조계종 166회 임시종회, 성보보존법도 개정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법'이 제정되고 '성보보존법'이 개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166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군종특별교구법' 제정안과 '성보보존법' 개정안, 호법부장 인준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출가연령 상한선과 학력 폐지를 뼈대로 한 '교육법 개정안'과 비구니부 신설 등을 포함한 3가지 '종헌 개정의 건', '사설사암관리법' 등 7개 종법 개정의 건은 차기로 이월됐다.

종회에서는 또 월주 · 정무 · 월운 · 정관 · 성수 · 명선 스님을 원로회의 의원으로 추천했으며, 법경 · 보경 · 상운 스님을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초격 스님을 사설사암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성직 스님을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출했다.

종회에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한편 종회는 일본 시네마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 가결과 관련한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는 역사왜곡 및 영유권 분쟁 등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해치는 파렴치한 행위를 국제사회에 진실로 참회해야 한다"며 "시네마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은 국가간, 민족간 분쟁을 촉발시키고 인류 공영을 저해하는 망령된 조례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2 · 14면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비구니원로회의 구성된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예우' 차원 · 비종헌기구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가 비구니 원로회의를 구성한다.

전국비구니회는 3월 23일 비구니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전체 임원회의를 열고 30일 오후 1시에 열리는 총회의 공식안건으로 비구니 원로회의 구성을 위한 회칙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원로회의 구성의 배경에는 그동안 비구니 스님들이 종단 최고 법계인 '명사(明師 · 비구는 대종사)' 품수와 같은 상징적 예우에서 소외되어 있는데 대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종헌종법상의 기구가 아닌 자체기구 성격이지만 종헌에 명시된 2부 승가의 한 축으로 비구니 승단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무엇보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각 문중의 존경받는 어른스님을 예우함으로써 전국비구니회 원활한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구니 원로의원은 전국비구니회 회원 가운데 법랍 50세, 세랍 75세 이상의 수행복덕을 겸비한 스님으로 비구니 문중의 추천을 통해 선출된다. 임기는 10년.

원로회의는 9~15인의 위원회 형식이며, 의장 1명에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된다. 또, 역할을 '전국비구니회의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회장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지시한다'로 정해 실질적 권한보다는 비구니 승단의 장로회의 기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중 대표 등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총회에는 △회칙개정 △제7대 임원인준 △비구니 원로의원 추대 △비구니부 신설에 대한 입장발표 △한국비구니의 수행전통 포럼 개최(10월) 승인 △비구니회 발전기금 조성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 · 737-8881(대)

알림

2005 부다피아 여름 하와이 캠프

미국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역사+문화체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하와이에서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문화체험 캠프를 개최합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기간:** 7월 28일~8월 18일
- **참가비:** 280만원(여권 · 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3월 21일~ 5월 10일
- **장소:** 하와이 무량사 문화원
- **주최:** 현대불교신문
- **협찬:** (재) 보덕학회
- **주요프로그램:**
  - 어학연수– 원어민 선생님의 총 60시간 수준별 영어강의, 원어민 교사와 역사 문화지역을 함께 탐방하며 회화를 실제 상황에 적용.
  -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촌 및 공연관람. 자연박물관, 돌고래쇼 관람. 훌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 역사체험– 한인이민의 땀서린 사탕수수농장 하와이 플랜테이션 방문. 세계대전의 격전지 진주만 관람. 전 세계 유물을 한곳에 모아 놓은 비숍박물관 관람.
  - 해양스포츠– 와이키키해변 수영. 바다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이 탐험. 크루즈여행. 잠수함 및 요트여행.

※지난해 참가자에게는 와이메하공원 원주민체험, 쿠할리아목장 승마체험, 워터파크등 별도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 **문의:** 현대불교신문 02) 722-4162~3, 010-9592-1987
- **참가비 입금통장:**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간화선 대중화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

법주: 현산 스님 / 4월 2일 오후 2시 범어사

'할'



그림 · 조태호

고우 스님의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 24 · 25면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공단등(비단등)



황금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종 등



팔모조립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전송 :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설치 의미와 과제

군포교 새시대 '신호탄' 올랐다

체계적 정책집행·후원 확대 큰 기대

군승역량강화 등 시스템 정비 시급

3월 23일 조계종 제166회 임시중앙종회를 통과,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되는 '군종특별교구법'은 군포교 역사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30여명의 군법사, 400여개의 군법당, 15만의 군불자를 거느린 거대 조직 군불교. '덩치만 큰 아이' 같았던 군불교를 효과적으로 키워낼 시스템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타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불교계 군포교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절호의 기회로도 판단되고 있다.

성장 담보 계기마련

일선 군법사와 군불자들은 이번 일을 반가움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군승단장 장승화 법사는 "비로소 군불교의 외형적 성장을 담보할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군포교에 큰 도약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는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집약'과 '통일'로 요약된다. 그리고 중심에는 '군불교위원회'를 대신할 '군종특별교구'가 있다. 군종특별교구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무원장이 임명하는 특별교구장은 교구본사 주지급의 위상을 갖게 된다. 따라서 종단 내에서 군불교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의미가 있다. 군종특별교구는 역량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군포교 정책을 집행할 주체가 된다.

불자들의 포교와 후원도 집약된다. 사찰, 스님, 불자들 중심의 산발적인 군불교 지원을 특별교구란 강력한 행정단위를 통해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포교 자율성도 커진다. 자체적인 예산, 인사, 심의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행사해온 권한 중 상당부분을 군종특별교구가 가지게 된다. 그래서 관계자들은 특별교구 발족은 군내에서의 불교포교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과 성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산적한 숙제 풀기가 관건

그러나 특별교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어려운 역할을 자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서둘러야 하는 것은 '내부 조직 다지기'다. 우선 불교계의 여론을 수렴해 군종특별교구를 가동시킬 세부법안, 행정조직을 시급히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군포교 현장에서 활동할 군승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군승요원 확보, 예비역 군법사의 전문성 활용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특별교구 조직을 움직이기 위한 예산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다. 적정한 물적 인적 지원 없이 군포교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종단 차원의 예산 지원을 바라볼 뿐 별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는 형편이다. 분담금은 사찰 재정 형편에 맞게 책정돼야 하며, 중앙분담금 면제는 당분간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외부적인 도전도 해결해야 한다. 가장 서둘러야할 것은 군승 파송을 원하는 천태종과 진각종과의 협의다. 천태종은 간접적으로 조계종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만성적인 군승요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타종단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신교와 가톨릭의 공격적 군선교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도 급하다. 개신교에서는 이미 군 장병 75%를 복음화한다는 '비전 2020' 운동을 펼치고 있고 올해는 육군본부 홈페이지에 인터넷 신앙 강좌를 실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가톨릭 역시 1989년 군종교구를 발족시킨 후 막대한 물량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계종 군불교위원장 성광 스님은 "군종교구발족을 통해 불교계가 군포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며 "군을 불교신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호국불교정신을 배우는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출가연령제한폐지' 다음에…

후속조치 불분명 이유 분과위 조정 안돼

조계종 166회 임시중앙종회가 3월 23일 교육법 개정안을 차기종회로 이월시킴으로서 총무원이 추진해온 출가연령제한 폐지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초격 스님을 비롯한 23인의 의원발의를 통해 안건이 상정됐지만 원담 스님이 "분과위 조정이 덜된 안건을 종회가 다루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 차기 종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출가연령제한 폐지가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법안 개정에 나서야할 종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총무원 집행부의 준비부족과 상한선 완전폐지로 인한 후속조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일부 종회의원들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종회 교육분과위(위원장 진구)는 3월 14일(유회), 20일 두 차례 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출가연령폐지에 대한 격론을 벌였다. 참석위원들은 연령제한 폐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폐지 후 고령출가자들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종회상정을 보류했다.

이 과정에서 총무원 집행부는 시행 2년차인 제도를 다시 개정하는데 따른 졸속시비를 줄이고 자칫 상한선 폐지가 사회인들의 도피처 마련으로 오인 되지 않도록 제도 폐지 강행보다는 차기종회 이월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제166회 임시중앙종회 이모저모

스님 10명 중 1명 60세 이상

조계종 스님 10명 중 1명 이상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세 이상 스님 10명 중 8명 이상은 주지 및 7직 소임을 맡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문 스님이 종책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분한심사 기준 조계종 스님은 사미 1757명, 사미니 1400명, 비구 4660명, 비구니 4683명 등 총 1만2500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사미 81명, 사미니 89명, 비구 728명, 비구니 878명 등 총 1776명(14.2%)이었다.

또 60세 이상 중 현직 주지 및 7직 소임을 맡고 있는 비구 185명, 비구니 133명 등 318명을 제외한 1458명(사미 81명, 사미니 89명, 비구 543명, 비구니 745명)은 별다른 소임이 없었다.(82.1%)

한편 조사 결과 조계종 스님 중 승랍이 가장 많은 사미는 1929년 생(2명), 사미니는 1919년 생(1명), 비구는 1936년 생(1명), 비구니는 1931년 생(1명)이었다. 세랍이 가장 많은 사미는 1915년 생(1명), 사미니는 1911년 생(1명), 비구·비구니는 1904년 생(각1명)이었다.

교구본사마다 다비식 달라

조계종 각 교구본사마다 다비식는 어떻게 할까.

초격 스님이 종책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해인사는 50cm 높이로 다리를 세워 법구받침을 만들고 2m 높이로 장작을 둘러쌓는다. 그 가운데 법구모실 헛곽을 만들고 숯을 사이에 넣은 후 장작을 더 쌓는다. 전체 덮개는 짚으로 둥근 모양을 내고 천으로 씌우며 연잎을 붙여 연화대를 만든다. 법구는 관채로 넣은 후 거화한다. 백양사는 물 항아리를 묻고, 범어사는 돌담과 숯을 사용하며, 수덕사는 탈관하는 전통이 있다.

총무원, 비구니부 신설 적극 추진

운달 스님이 종책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총무원은 "늘어나는 비구니스님의 활동성과나 종단 승가구성원의 반수가 비구니스님임에도 특별한 종책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단 집행부 내에 비구니스님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부서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비구니부 신설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총무원은 또 "제166회 임시중앙종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종헌과 총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을 갖이 하며, 이 종법안의 취지대로 비구니부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보박물관 5곳 학예직·일반직 없이 운영

조계종 18곳 개관 성보박물관 중 5곳은 학예직과 일반직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도문 스님이 종책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18곳의 개관 성보박물관 중 학예직과 일반직을 같이 두고 있는 박물관은 9곳, 일반직만 두고 있는 사찰은 3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5곳은 학예직과 일반직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구본사 사회복지시설 총 332곳

조계종 교구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총 332곳으로 조사됐다.

법경 스님이 종책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직할이 서울노인복지센터 등 155개 시설, 동화사가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 등 25개 시설, 신흥사·월정사가 속초종합사회복지관·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각 18개 시설을 포함해 총 332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산 관통도로 보상금 논란

지홍 스님은 재무부 종책 질의 때 "회룡사가 2004년 북한산 관통도로 시행사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측에게 10억원을 보상받았다고 한다. 이를 본사인 봉선사에 갖다 줬고 봉선사에서 그 돈을 썼다고 한다. 이 가운데 1억원을 총무원에 줬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다시 돌려줬다고 한다.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장 동진 스님은 "환경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무원 사회부에서 예치했다. 관계자들과 논의한 끝에 회룡사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태전사·석왕사 문제 거론

진구 스님은 재무부 종책 질의 때 "법주사 말사인 대전 태전사를 건립할 때 법주사 운영위원회에서 1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태전사 대웅전과 요사채 명의가 속인인 장모씨 이름으로 돼 있다. 재판에서 져 장모씨에게 넘어갔다. 또 장모씨가 대웅전과 요사채를 근저당 설정해 28억 7500여만 원을 잡혔다. 가압류까지 당해 부채가 43여억 원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 무자 스님도 "부천 석왕사 1년 예산이 18억인데 종단 분담금이 3백 몇 십만 원이다. 그런데도 분담금을 안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장 동진 스님은 "중앙승가대 분담금 미납 2년 치와 더불어 미납 분담금 6년 치를 3월 11일 다 냈다"고 답변했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4급 승가고시 3월25일 460명 응시

조계종 정식 스님인 비구(니) 법계품수를 위한 4급 승가고시가 3월 25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렸다.

이번 승가고시는 2001년 4월 이전 사미계를 수계한 사미·식차마나니로 종단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한 460(사미 249명, 식차마나니 211명)명이 응시했다. 불교학개론, 불교사, 치문, 사집, 사교, 화엄경, 율학, 중관, 유식, 조계종사 10개 과목 100문항의 문제가 출제됐다. 조용수 기자

국방부에 군승 증원 요청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3월 23일 윤광웅 국방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군종장교 불교정원 증원을 요청했다. 이어 법장 스님은 "한 종교에서 육군 군종감을 계속 맡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형평에 맞는 인사를 건의했다. 윤 장관은 "종교 형평성에 맞는 인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남동우 기자

대종사 법계 품수식 봉행

태고종, 30일 선암사서

태고종 대종사 법계 품수식이 3월 30일 오전 11시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봉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승정원장 남파, 원로회의 부의장 보봉 원법, 원로의원 청경 혜봉 지족 보안 벽파 혜종 남호 법장 덕화 스님 등 총 12명의 스님이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게 된다.

전통불교의식으로 봉행되는 법계품수식은 식전행사로 선조사 다례재에 이어 영산재 의식,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의 법계증서 수여식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일우, 중앙종회 의장 인공, 중앙사정원장 법장 등 종단 원로 및 중진 간부 스님들이 대거 동참한 가운데 치러질 예정이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대종사 법계품수식을 계기로 종단의 위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국제포교사회 연수 강화도 연등국제선원

국제포교사회(회장 김봉래)는 3월 19~20일 강화도 연등국제선원으로 상반기 연수를 다녀왔다.

45명의 국제포교사가 참가한 이번 연수에서는 승가위원회 신설 등 회칙 개정안을 다룬 임시총회, 연등축제 관련 율동 교육, 국제포교 활동에 대한 경험사례 발표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연수 후 국제포교사회는 안산의 스리랑카 법당 마하보디사 개원식에 참석했다. 강지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대표전화(02)737-8881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1차 공청회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발전위원회는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불교대학의 발전이념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 제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교육목표

■일 시 : 2005년 4월 8일(金) 오후 2시
■장 소 : 동국대학교 덕암세미나실

○사회 : 혜담 스님(각화사 주지)
○발제 및 논평
1. 기조발제
– 발제 : 영담 스님(불교대학발전위원회 위원장,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2.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출가자 교육목표
– 발제 : 학담 스님(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 중앙종회의원)
– 논평 : 정인 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중앙종회의원), 각묵 스님(화엄학림 강사)
3.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재가자 교육목표
– 발제 : 이평래 교수(충남대 철학과, 한국불교학회 회장)
– 논평 : 조용길 교수(동국대 불교대학장),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발전위원회

문의 : 02)2260-3768

광복 60돌, 6.15남북공동선언 5돌 기념

북한 최고 화가

故 김기만 화백 유작 특별전

운보 김기창 화백의 동생. 북한 공훈예술가, 조선화 4대 화가

북한 조선화의 진수를 느껴보세요.



■일 시 : 불기 2549(2005)년 3월 30일(수) ~ 4월 5일(화)
■장 소 : 토포하우스(인사동 갤러리, 02)734-7555)
■리셉션 : 3월 30일 오후 5시 토포하우스 2층 전시실
■관 시 : 오전 10시 ~ 오후 7시 * 화환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 북한 사리원 금강국수공장후원회, 통일법당

평불협사무국 : 전화 1544-0408(代) 전송: 02)741-9347
홈페이지 : http://www.bubtanet.org 이메일 : bubta@bubtanet.org

신개념 '사찰복지관' 등장

수효사 효림노인복지센터 30일 개관

한 건물에 법당-복지시설 들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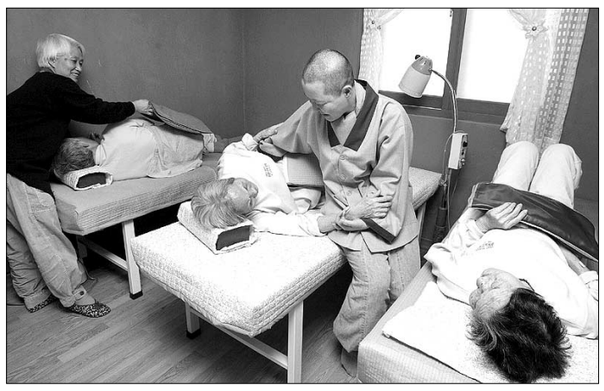
서울 충정로, 도심 한가운데 '사찰복지관'이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사회복지법인 효림원을 설립한데 이어 3월 30일 효림노인복지센터를 개관하는 수효사(주지 무구)가 복지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수효사가 표방하고 있는 '사찰 복지관'의 개념은 종래 사찰과 복지관을 하나로 합친 형태로 사찰이 곧 복지관으로 활용되는 것을 뜻한다. 대부분의 불교계 복지관이 지자체로부터 시설을 위탁하면서 지역 사찰의 후원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때, 수효사는 신개념의 복지사찰인 셈이다.

수효사가 다른 복지시설과 가장 크게 차별화되는 점은 법당과 노인복지시설이 한 건물 내에 있어 신도들이 곧 자원봉사자가 돼 수시로 노인들을 돌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봉사자와 복지 수혜자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게 되는 부가효과가 발생되기도 한다. 건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황토 느낌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져 노인들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것도 큰 장점의 하나다.

효림노인복지센터가 들어선 자리는 지난해 11월 8층으로 신축한 효림원 건물로 치매단기보호센터와 6층에 1인실로 마련된 치매단기보호센터에 입소했고 6층에 마련한 주간보호시설에는 지역 독거노인들 50여명이 수시로 다녀가고 있는 상황이다.

단일 사찰로서는 한 시설도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서 치매노인 보호프로그램과 재가노인 이용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이유는 몸은 건강하지만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이 효림원에 머물면서 치매노인들을 돌보게 되면 서로의 존재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 노년기 우울증 예방에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의 수혜자들이 복지 주체로서 일할 수 있는 순환구조로 만들어진 것이다.



3월30일 개관하는 수효사 효림노인복지센터에는 치매 · 독거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효림원 8층에 마련된 물리치료실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무구 스님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역을 넘어서 치매노인과 일반 노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3월 30일 봉행하는 효림노인복지센터 개관식에서는 경희대 조달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기념식과 율려무용가 이귀선씨와 명지대 강미선 교수, 백야예술단 소리꾼 안기영씨 등이 꾸미는 흥겨운 축하무대가 이어질 예정이다. (02)3113-5124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역사왜곡 · 독도주권 침해 중단해야"

종지협, 기자회견 열고 日에 강력 촉구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규탄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법장, 이하 종지협)도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주권침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종지협은 3월 2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전 국민은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양국의 우호선린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종지협은 이어 "일본은 즉각 이와 같은 망동을 중지해야 하며, 한일우호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정의와 양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지협은 이와 함께 "온 인류와 일본 내 양심적인 국민 및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연대하여 일본정부의 잘못을 시정하는데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6개항의 촉구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장 스님을 비롯해 최성규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혜정 원불교 교정원장, 최근덕 성균관장,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회장, 김동환 천도교 교령대행, 조규만 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유철주 기자



동국대가 수탁운영하는 '중구아트센터'.

동국대 '중구아트홀' 수탁 운영

동국대(총장 홍기삼)가 수탁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중구아트센터'의 개관식이 3월 25일 열렸다. 서울 중구 흥인동에 위치한 '중구아트홀'은 중구청과 동국대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800석 규모의 대극장과 갤러리, 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시설이 갖춰져 있다. 조용수 기자

양산불교문화특구 지정 본격화

4월 통도사서 공청회

양산 통도사(주지 현문)를 중심으로 한 양산불교문화특구 지정을 위한 공청회가 4월 22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리면서 양산불교문화특구 추진이 본격화 된다.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은 3월 21일 양산시청에서 열린 특구 지정에 따른 제반절차와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에서 "양산시 불교문화관광특구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4월 22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개최하기로 통도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풍부한 불교문화와 자연 생태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양산시가 세계 최고의 불교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는 재경부 특구기획과 김재갑 서기관 등이 특구제도 및 특구지정 절차 등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한편, 4월 22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는 영산대 호텔관광학과 정무형 학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학계, 정계, 재계 전문가와 양산시민들이 참석, 불교문화관광특구의 조성 방안과 사업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김 의원 측은 공청회를 시작으로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불교문화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정밀조사 및 연구에 착수, 내년 중에 특구 지정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문화재보호법 대폭 바뀐다

'문화재수리 · 매장문화재 · 등록문화재' 등으로 나눠

문화재청 올 업무 발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수리 · 매장문화재 · 등록문화재에 관한 법 등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제 개편이 추진되고, 지리산 일대 사찰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며, 화엄사 · 법주사 등지에 유물전시관 건립이 지원된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3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5년도 문화재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문화재보호법제 개편 계획은 현행법이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들을 하나의 법 안에 포괄하고 있어 각 유형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정도 쉽지 않아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분법의 필요성은 문화재청의 용역으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서승완)이 최근 수행한 '문화재보호법제정비방안연구'에서도 제기됐다.

문화재청 기획예산법무담당관실 김종진 과장은 "금년 중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청회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며 "2006년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2007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번 문화재보호법 분법은 사실상 전면개정에 준하는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 성보문화재 보존환경 개선을 위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문화재청은 또한 우리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린다는 의미에서 세계유산등록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리산의 사찰'을 잠정목록에 등재키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권역은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세계유산에 최종적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진정성이 관건이다"며 "고증없는 무분별한 불사로 진정성을 상실한 사찰은 등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화엄사 · 법주사 유물전시관이 신규로 건설되고 마곡사 · 불국사 · 구인사 등 지난해에 이어 공사가 진행중인 12개 사찰의 유물전시관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의 주요계획으로는 △순천 송광사 · 선암사 일원 등 남해안 관광벨트 내 유적정비 △기록보존을 위한 석조 · 목조 문화재 정밀 실측 △중요 동산문화재 467건 입체 영상화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발굴기관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 △문화재 위원회에 근대문화재분과 신설 △조선왕릉전시관 건립 등이 있다.

박익순 기자

템플스테이 실무자 등 日 불교문화 현장 연수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진)이,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22개 사찰의 실무자와 문화관광부 직원 등 38명을 대상으로 3월 29일~4월 2일까지 일본 금강봉사 일엄원 연력사 영평사 등을 둘러보는 일본 불교문화 현장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일본 사찰숙박 시스템, 불교문화사업 경영 시스템 체험과 운영프로그램 현장 체험을 통해 우수 분야에 대한 벤치마킹과 한국적인 템플스테이 비전 설정 등이 목적이다. 4월 1일에는 연수 내용을 토대로 템플스테이 발전방안과 접목하는 자체 세미나도 계획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종교활동 오해 일으키지 말라"

외교부, 해외 외교공관에 주의 공문

문봉주 뉴욕총영사가 성경강좌를 개설해 파문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외교통상부가 해외 외교공관에 "불필요한 종교활동으로 오해를 야기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는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 이하 종평위)와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 이하 연구원)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또 문 총영사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이 헌법 20조상의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 원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리부에서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평위와 재가연대 연구원은 3월 2일과 3일에 각각 외교부의 입장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유철주 기자

강남한방병원 매각반대 성명

동국대 한의대동문회

동국대 한의대동문회(회장 이상택)가 논현동 강남한방병원 매각을 반대하는 성명을 3월 18일 발표했다.

한의대 동문회는 성명서에서 "강남한방병원이 매각될 경우 2006년 전국한의과 대학인정 평가에서 강남한방병원 매각으로 인해 임상교육부문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서울 소재 한의대 병원이 갖는 위상과 상징성이 훼손 될 우려가 있다"며 강남한방병원 매각을 반대했다.

동문회는 또 "여타 지방 한의대들이 서울에 병원을 설립하기위해 혈안이 된 형편에 동국대 한의대가 서울을 빠져나가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대로 매각이 강행 된다면 동문회가 나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봉은사 경전학교 개강

매주 금요일 '금강경' 강의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는 3월 25일 보우당에서 150여명의 접수생이 참석한 가운데 경전학교 개강법회를 봉행했다. 7월 1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 열리는 경전학교는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이 강사로 나서 <금강경>을 강의한다.

원혜 스님은 개강식에서 "그 어떤 경전보다도 수승한 복덕을 갖고 있는 금강경을 많은 불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경전학교를 준비했다"며 "공부하는 도량 봉은사에서 맑고 밝은 지혜의 샘물을 찾을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02)3218-4814 박봉영 기자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불보종찰 통도사 적멸보궁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하고 전국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계율을
설하여 1360년간 전승해 온 유일한 계율의 근본도량입니다.

계를 지니면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만남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고, 병난 이가 쾌차함과 같고,
갇혔던 죄수가 풀려남과 같고, 멀리 집 떠난 이가 돌아옴과 같나니라.
- 범망경 중 -

계를 받는 공덕은 무량한 복덕을 쌓는 일이며 계를 대신 받아
주는 것 또한 대자비의 보살행인 것입니다.
예년과 같이 통도사에서는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봉행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세세생생 이어질 선근의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일 시 을유년 불기 2549년
· 입재일 2005년 4월 13일(음. 3월 5일) 수요일
· 회향일 2005년 4월 15일(음. 3월 7일) 금요일
장 소 통도사 금강계단
전계대화상 전계대화상 중산 혜남
동 참 금 50,000원
문의 및 접수처 화엄전 접수처 055)381-1288 각 사(암) 종무소

■ 연락처 : 부산포교당 (051)816-2241 마산포교당 정법사 (055)245-6544
창원포교당 구룡사 (055)255-6359 울산포교당 해남사 (052)211-3340
밀양 표충사 (055)352-1150 밀양 무봉사 (055)354-3296
창녕 포교당 (055)533-2295 서울포교당 구룡사 (02)575-7766
서울 보현사 (02)355-9815

교통편
◉ 통도사 버스 - 부 산 : 온천장 지하철역 앞 08:00 ~ 09:00
울 산 : 공업탑 로타리 제일주유소 08:00
무거 로타리 고속도로 진입로 08:10
◉ 대 중 교 통 - 부 산 : 노포동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울 산 : 시외버스터미널
대 구 : 고속터미널「부산행 일반고속」서 울 : 동서울고속터미널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 도 사

수입원 다양화로 신행기반 다지기 나서

조계종 재정확대 방안 주요내용

부동산 TFT 구성, 웰빙과 연계 생산성 향상
출판업 · 사찰 소모품 직영 등 수익사업 전개

한국불교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올해 예산은 296여억 원. 단일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연간 예산 1300억원의 5분의 1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은 1994년 종단개혁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조계종 재무부가 〈재정확대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종단 재정 확대, 특히 세입 구조 확대 방안을 찾기 위해 발간된 이 보고서는 조계종 예산규모가 종단의 역할 수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종단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예산 세입원을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전체 예산 중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0%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종단 인건비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시했다. 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6.6%에서 5년이 지난 2004년에는 20.8%로 4.2% 증가했다.

시대는 종단의 새로운 세입원 발굴을 요청하고 있다.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 단위 사찰의 분담금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세입구조로는 더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조계종 재무부는 종단 개혁과 새로운 종책 개발을 위해 발간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종단 소유 부동산 개발

종단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도심에 있는 토지들은 건물을 지어 임대하면 임대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산중에 있는 토지들은 수련장이나 각종 체험센터 및 웰빙 산업들과 연계하면 상당한 수익을 도모할 수 있다.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는 종단에 특별 기구(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T · F팀)를 두고 개발할 토지와 개발목표, 방법, 자금동원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종단직영 수익사업 실시

종단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출판업은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분야다. 스님과 신도들의 표준화된 의류도 중요한 판매아이템이 될 수 있다. 사찰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을 생산해 공급하는 수익사업도 계획할 수 있다. 기업을 경영하거나 판매 등의 수익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을 경우, 민간 기업에서 종단의 구성원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로열티를 받는 방법도 있다. '자비의 보험금 나눔' 운동이 대표적 사업이다.

■ 불교테마파크 건설

레포츠관광 분야 수익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단기방안으로 친환경 테마를 가진 농원이나 1사찰 1농촌 운동을, 중기방안으로 특성화된 소규모 테마시설 개발과 운영, 특성화된 프로그램 이벤트 개발 운영, 유명사찰 상표 출원, 불교 레저스포츠관광 예 · 적금상품, 불교관광상품권 등을 모색할 수 있다.

■ 특별시주 · 후원금 제도 활성화

특별시주나 후원금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종단차원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신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경우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회복지분야의 사업이나 승려복지 및 장학 재단 설립 등은 신도와 스님의 참여를 이끌어 낼 좋은 분야다.

■ 종도 관심과 기여도 높여야

종도의 관심과 기여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도, 기여도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신도교육과 포교사고시, 중앙신도회의 활동과 연계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지역별 거점 도심포교당 집중 육성

지역별로 거점이 될 수 있는 도심포교당을 집중 육성하고 이들의 종단에 대한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 또 본사의 도심포교당을 설립하는 것도 종단재정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중앙-교구-말사 연계

종단 재정 확보는 중앙종무기관 차원의 노력과 교구본사 및 단위사찰의 노력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룰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단위사찰, 교구본사, 중앙종무기관이 역할분담을 해 제도화되고 체계화된 방법으로 추진하고 모색해야 한다.

보고서는 "재정이 필요한 것은 결국 포교를 잘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단에서 재정을 확보하려는 궁극적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종도들이 인식할 때 재정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동우 기자**

몽골 불교 재건, 한국 불자 속속 동참

금강선원, '세계불교공원' 건립 후원

몽골불교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불교공원' 건립에 한국불자들의 정성이 모아지고 있다.

'세계불교공원'은 몽골정부가 몽골불교 중흥을 위해 써달라며 몽골국립공원 땅 8천평을 몽골불교계에 내놓고, 몽골불교 대표인 고르도바보취 스님이 이를 불교성지로 개발하겠다고 발원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그러나 땅만 있을 뿐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는 고르도바보취 스님이 몽골의 한국 사찰인 고려사에 도움을 호소해오면서 고려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한국불교 금강선원(총재 활안)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태. 지난해 10월 기공식을 한지 4개월여 만에 금강선원을 중심으로 한국불자 후원자가 4000명을 넘어섰고, 대한불교진흥원도 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몽골불교계는 세계불교공원 안에 불상과 '세계불교박물관'을 건립하고 불상 좌우에 범종 및 사물을 조성해 몽골국민들의 신앙공간이자 불교관광지로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불교 금강선원은 한국불자들의 후원을 받아 세계불교공원에 23m 크기의 부처님을 조성하고 있으며, 올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완공할 예정이다. 금강선원은 또 세계불교박물관 건립에도 도움을 주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1인 1등 켜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몽골불교 재건에 적극 나서고 있는 활안 스님은 "몽골정부와 불교계가 의지를 갖고 몽골불교의 옛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원조달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몽골불교를 돕고 이를 통해 몽골에 한국불교를 심는데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몽골불교는 몽골이 73년 간 옛 소련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뿌리까지 뽑힌 상태. 그러나 몽골 정부는 최근 7~8년 동안 부서진 사원을 복구하고 인재 양성에 나서는 등 불교재건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재원이 부족한데다, 급속히 커진 기독교세의 견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02)969-2410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교상담대학 인기

불교상담개발원, 전년 비해 수강자 두배 넘어



3월 23일 개강한 불교상담대학의 첫 강의는 이근후 박사가 맡았다.

3월 23일 개강한 불교상담대학 수강자 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이 운영하는 불교상담대학에는 타종교인과 무종교인을 포함, 총 74명이 신청해 불교상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불교상담대학의 인기 요인은 불교심리학, 불교와 정신치료, 부처님 마음으로 하는 상담 등 불교관련 프로그램 외에도 현대인의 정신건강, 의사소통, 상담 이론 등을 다룬 20여개 강의에 대한 관심으로 분석된다.

사회적인 관심도 한몫했다. 황선정 사무국장(불교상담개발원)은 "전반적인 사회 흐름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며 "상담은 전문적이고 특이한 사람이나 받는 것으로 생각했던 일반인들의 인식이 매스컴을 통한 상담 · 심리치료 등의 자연스러운 부각으로 전환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교상담개발원이 지난해와 달리 홍보팀장을 채용하고 교구본사 주지 연수 등에 상담 코너를 운영하는 등 홍보에 각별히 신경쓴 것도 인기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

불교상담대학은 5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인간행동의 이해, 상담심리학, 불교와 상담 등을 대주제로 용타(동사섭 이사장), 서광(보스턴 서운사 주지),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등이 분야별 강의를 진행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한국의 비구니 스님 <28> 상륜 스님

반백년 참선 · 포교 한길



삼각산 승가사 상륜(76 · 사진) 스님은 1929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다. 스님은 27세에 출가를 작정하고 속가인연이 있었던 청담 스님을 찾아갔다. "충청도에 가면 비구니 우두머리가 있다. 거기로 가라"는 청담 스님의 뜻에 따라 찾아간 곳은 경허 · 만공 스님의 선맥이 살아 있는 수덕사 견성암이었다.

청담 스님이 말씀한 비구니 '우두머리'는 근대 비구니 선맥의 중흥조로 추앙받는 법희 스님. 상륜 스님은 그렇게 법희 스님을 은사로 55년 수덕사 견성암에서 삭발염의 했다. "몸이 하는 말 다 들어 주고 언제 수행하느냐"는 은사스님의 말씀을 좇아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수행에 몰두했다. 어느 해에는 1년을 눕지않고 장좌수행을 하기도 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시대가 그래서인지 근기가 약해. 우리는 아침마다 죽 밖에 못 먹었어. 어쩌다 사과 하나가 생기면 그걸 6쪽으로 나눠 먹으면서 공부 했지. 그것도 부처님오신날과 명절 때 1년에 딱 두 번 뿐이었어. 그래도 늘 공부가 재미있었지."

은사스님과 한방에서 잠을 자다 간혹 잠에서 깨면, 은사스님은 한밤중에도 혼자 일어나 공부에 열중하셨다. 그러면 스님도 벌떡 일어나 공부를 했다. 그렇게 은사스님을 시봉하며 20년을 살았다.

근대 비구니 3대 강백 수옥 스님에게 대교를 수료하고 견성암에서 정진하고 있을 때였다. 1971년 사형인 도원 스님의 뒤를 이어 승가사 주지를 맡게 됐다. 작지만 담백하고 정갈한 산사의 모습을 간직한 승가사는 그다지 내세울 것이 없었다. 좁고 외진 산세로 기도객 외에는 찾아오는 이도 없어 절 살림이 곤궁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하지만 상륜 스님의 수행자다운 면모에 감화된 신도들이 늘어나면서 사격을 정비하기 위한 불사는 어려움 없이 진행됐다. 보물 215호 마애불에 참배하기 쉽도록 108 계단이 만들어지고 대웅전 영산전 산신각 적묵당을 중건했다. 79년에는 신라초전성지 도리사에 부처님 진신사리탑을 세웠고, 94년엔 높이 76척, 대석(臺石) 면적 45평에 9층으로 된 '남북통일 호국보탑'을 세웠다.

법희 스님 20년 시봉…1년간 장좌불와
제일선원서 철마다 선객 30~40명 제접

해군 중앙법당 통해사를 창건하는 등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상륜 스님은 이러한 불사 보다 승가사 제일선원장으로 철마다 30~40여명의 비구니 선객들이 제접하는 일에 더 열성이다. 95년부터는 용인에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처인 법륜사를 짓고 있다. 올해로 출가 50년을 맞은 상륜 스님은 참선 수행하고 신도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온 실천적 수행자의 모습 그대로다.

온화한 미소를 띤 채로 상륜 스님은 기자에게 "부처님이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전 같이 잘 안된다"고 말했다. 마음을 비우고 화합하면 잘 살 수 있는데, 중생들의 알음알이가 늘어난 만큼 부처님 법을 지키고 따르는 이가 많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라는 말씀이다. 요즘도 상륜 스님의 아침저녁으로 '온 국민이 불자가 되기'를 발원하고 있다.

조용수 기자

제 명 공 고

● 성명 : 김복곤〔법명: 혜원〕 ● 성명 : 김종일〔법명: 성문〕

상기 스님들은 지난 3월 17일 개최된 향곡문도회의 의결에 따라 문도회 회칙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향곡문도회에서 제명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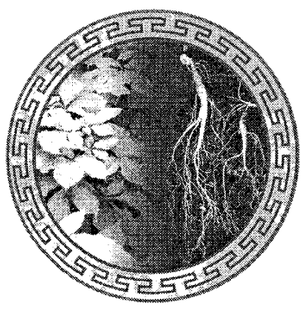
제명 사유

묘관음사 분원장 종무 인수과정에서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종단과 불교사회에 비난과 지탄을 받고서도 참회하지 않고, 향곡 큰스님의 법상과 묘관음사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화합과 위계질서를 파하였기에 문도회에서 제명 결의 하였습니다.

불기 2549년 3월 17일

향 곡 문 도 회 회장 혜운

공주대학교 식물자원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제품(상표등록)



이것이 명품이다!

현풍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자사 직영 농장인 포천, 영월, 홍성에서 직접 재배한 100% 국산 토종오가피와 경희대 한방연구소에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원료를 ISO 9001 품질인증과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HACCP에서 인증 받은 초현대식 시설로 원료에서 제조,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원톱시스템을 갖춘 믿을수 있는 제품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 전화주시면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심마니 토종 오가피

祝 : 현풍 토종심마니오가피 국내최초 여자프로 권투단 창단

(주)현풍은 세계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인 김주희 선수와 여자프로 유망주 손초롱 선수외 4명으로 출범한 현풍 프로권투단은 한국프로 권투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국산토종오가피 묘목분양 및 상담※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47-9114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봉사는 누구나 언제나 가능”

기 관	연락처
개금종합사회복지관	(051)893-5034
공창종합사회복지관	(051)363-2063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051)532-0115~7
두송종합사회복지관	(051)265-9471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051)264-9033
부산 보현의 집	(051)506-0146
양정노인재가복지센터	(051)866-0454
양정청소년회관	(051)868-0750
용호종합사회복지관	(051)628-6737
화명종합사회복지관	(051)338-2233
적십자사 불교봉사회	(010)8455-9098
부산불교봉사연합	(051)863-0505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나르기 경력 6년째인 양현진(왼쪽) 보살은 봉사가 곧 수행임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부산지역 복지시설 10곳 넘어 ‘성장 괄목’
자원봉사 인력 부족… ‘남의 일’ 인식 깨야

수요일마다 도시락을 들고 뛴 지도 6년째. 복지관에 한번 가보자고 나섰던 길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시작한 일이었다.

평소 부산 감로사에 다니면서 신심을 키워오던 양현진(47 · 법명 정법월) 보살의 봉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중간에는 일손을 구할 수 없어 1년여 동안 혼자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다. 이후 지금까지 아무리 아프고 비바람이 불어도 수요일엔 도시락을 들고 독거어르신의 집을 찾아 달렸다. 봉사를 하면 할수록 봉사가 곧 수행과 하나임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불교대학이나 스님의 법문에서 듣던 자리이타, 보살행이 피부로 와 닿는 느낌이었죠. 거동이 불편한 그분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고 그 분들이 행복해야 비로소 나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됐어요.”

봉사를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절로 깊어졌고 양현진 보살은 수행에도 힘을 받았다. 부처님처럼 지혜와 복덕을 두루 갖춰 주위의 인연들을 밝혀주고 싶다는 원력이 생겼고 일체 중생의 행복과 성불을 발원하는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다.

“봉사자가 부족할 때마다 주위 분들에게 많이 권해도 보았지만 선뜻 동참하는 분들이 없어 안타까웠다”는 양현진 보살은 “앞뒤 따지지 말고 일단 한번 봉사에 뛰어들어보라”고 말했다.

부산시내 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등 복지시설은 10여 곳을 훌쩍 넘었다. 외형적으로 부산 불교계의 복지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들이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부족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펼치는데 한계가 있음을 호소한다.

근래 들어 기업체 단체 봉사활동이나 학교 봉사활동 등으로 어느 정도 봉사자 참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적인 참여나 불자들의 참여는 소극적인 편이다.

이렇게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뭘까? 자원봉사 담당 복지사들은 “자원봉사를 너무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편찮으신 어르신들의 말 벗 되어드리기, 안부 전화하기부터 반찬이나 청소 해드리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보조 등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기술이 없어도 가능한 일들이 태반이다.

복지사들은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일손도 부족하지만 자원 봉사 대부분이 마음을 열고 시간만 조금 내면 아무런 기술이 없어도 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글 · 사진=천미희 기자

아이들 지키는 ‘1391’ 기억하세요

경북구미 아동학대센터 캠페인 펼쳐

“아이를 지키는 작은 실천 신고전화는 ‘1391’입니다. 경북구미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경북구미아동학대예방센터(소장 진오)가 3월 19일 구미역에서 제1회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개최했다.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동안 펼쳐진 캠페인은 삼성전자 온누리 봉사단 10여명이 동참해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알리는 현수막과 아동학대의 사례 사진 전시 등으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사람들에게 알려나갔다.

또 자원봉사자의집, 극단 파피루스가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를 각색한 거리 포퍼먼스를 공연해 주목을 끌었다. 구미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아동보호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린이들도 동참해 스포츠댄스를 선보였다.

경북구미아동학대예방센터는 지난 1월 31일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개소했으며, 상담원 3명을 두고 ‘1391’ 신고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바른 신심으로 참회하세요”

감로사 삼천배 참회기도 봉행



자운 스님, 성철 스님 등 근대의 선지식들이 국난 극복을 위해 시작한 감로사(주지 혜총) 삼천배 참회기도가 올해로 54회째를 맞이했다.

반세기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감로사 삼천배 참회기도는 매년 2천 여명의 불자들이 참여하는 법석으로 자리잡았다.

3월 19일 오전 10시 봉행된 입제식은 前 해인사 주지 세민 스님의 독경, 염불을 길잡이로 아미타경 독송, 108 참회에 이어 정관 스님의 법문으로 이어졌다(사진).

삼천배 참회기도가 봉행되는 5일동안 새벽, 오전, 오후로 나눠 6백배의 참회 기도와 정관, 지관, 법희, 혜총 스님 등 스님들의 법문이 이어져 의미를 더했다.

천미희 기자

“범죄 없는 곳이 불국토”

울산 · 서울 경찰법당 개원 및 봉불



울산과 서울지방경찰청 법당이 새로 단장하고 경찰불자들의 신행도량으로 거듭났다.

울산지방경찰청 경승실(실장 덕진)은 3월 22일 법당 봉불식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왼쪽). 울산지방경찰청 4층에 문을 연 20평 규모의 법당은 2004년 10월 설치가 확정된 이후 통도사(주지 현문)와 조계종 울산사원연합회 등의 후원을 받아 탱화 및 불상을 조성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법당도 3월 23일 팔상탱화를 점안했다(사진 오른쪽).

국가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 준보유자 구해 스님의 집전으로 열린 이날 점안식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경승 덕화 스님(태고종 원로의원)과 봉원사 주지 구해 스님, 조계사 상담실장 연담 스님, 이기묵 서울지방경찰청장, 조계훈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천미희 · 박봉영 기자

한국 운불련 범어사서 연수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창립 11주년 기념 정기총회와 임원 연수교육이 3월 24~25일 부산 범어사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을 운불련 수석부총재로 추대하고 사단법인화 추진, 교육을 통한 임원들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결의했다. 또한 한국운불련은 6월 차량 3백대를 동원해 전국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수덕사 일원에서 경로여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한국戰 낙동강 희생자 위령재

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은 3월 31일 오전 10시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제1회 한국전쟁 낙동강 방어선 전투 호국 전몰영령과 신규위패 봉안 합동 위령재를 봉행한다.

이번 합동위령재는 한국전쟁 55주년을 맞아 당시 최후의 교두보인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산화한 호국영령과 한국전쟁 전사자로 유해마저 수습하지 못한 채 2003년 국립현충원에 위패로 봉안된 3만7635위의 넋을 천도하기 위해 마련한다.

배지선 기자

지안 대종사 1주기 추모법회
직지사서 유물 418점 전시



관응당 지안 대종사 1주기 추모법회가 3월 18일 김천 직지사에서 봉행됐다(사진).

직지사 회주 녹원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원로 성수 스님, 통도사 초우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추모법회는 헌화 및 헌다, 행장소개, 육성법문, 성수 스님 법문, 헌화, 추모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직지사 성보박물관에서 관응당 지안 스님의 유물 전시회가 열렸다.

유물전시회는 올 상반기까지 계속되며, 이후 스님의 유물 418점은 모두 직지사 성보박물관에 소장하여 연구 자료로 보존 활용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부산파라미타 정기총회

(사)파라미타 부산 청소년협회(회장 김석조)는 3월 23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창립 9주년 기념 총회를 개최하고 2005년 청소년 포교 사업을 확정했다.

부산 청소년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정여 스님, 수불 스님을 부총재로 추대하고 운영위원장에 임만호, 부운영위원장 김수현, 총무 이기표 등 임원진을 개편하는 한편, 고등부지회 회장으로 전 학산여고 교장 박병택씨를 임명했다.

또한 2005년 사업으로는 ‘파라미타 연수실’ ‘청소년 연구실’ ‘청소년 상담실’ ‘자원봉사실’ 등으로 나눠 지도교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학생들 참여 봉사나 문화탐방,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등을 확정했다. 특히 종립학교인 해동중학교를 중심으로 홍보 신문을 제작, 부산시내 청소년들이 파라미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폭넓게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갈 방침이다. (051)513-4306 천미희 기자

울산 월봉사 고승 초청법회

울산 월봉사가 새 주지 오심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고승초청법회를 3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법회는 일요일 마다 7명의 스님을 초청 법회를 열고 5월 8일까지 49일 동안 참회정진 관음기도를 봉행한다. 초청 법사로는 3월 27일 신라문화원장 진철 스님이 법문한데 이어 4월 3일 통도사 전계사 혜남 스님, 4월 10일 축서암 수안 스님, 4월 17일 전 해인강원강주 수진 스님, 4월 24일 수도암 중산 스님, 5월 1일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 스님 등이 법문한다. (052)251-4602 천미희 기자

‘풍경소리’ 대구경북지부 창립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대표이사 혜자)가 4월 8일 오후 3시 동구문화체육회관 문화동 스위트홀에서 대구경북지부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풍경소리 대구경북지부는 지하철과 철도역사에 설치된 풍경소리 포교게시판 사업을 대구경북지역 곳곳으로 넓혀나갈 예정이며 부처님 법음 전파를 위한 강연, 세미나, 불교관련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사업과 지역포교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한국조동종 총본산 社團法人 韓國佛教曹洞禪林

원효불교대학 공개강좌 안내

본 대학은 사단법인 한국불교 조동선림의 종찰인 원효사가 불교대학 개강준비 일환으로 공개강좌를 실시합니다. 본 대학은 부처님의 진리를 근본이념으로 선교겸학(禪敎兼學)의 교학체계(敎學體系)와 불교지도자 및 인재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동국대학교 (전)불교대학원장이신 오형근교수(철학박사)님을 모시고 공개강좌를 실시함을 알리오니 많은 동참하시여 불법의 진리를 증득하시기 바랍니다.

1. 강좌과목
   가) 조동선학 논총(曹洞禪學 論叢) - 필자 직강좌
   나) 유식학입문(唯識學入門) - 마음의 체성과 작용을 자세하게 분류 체계화 설명
   다) 불교의 윤회관과 영혼 -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영혼설과 업력 윤회의 도리 해설
   라) 반야심경 - 대승불교의 공사상 해설
   마) 인도불교의 선사상 - 소승선과 대승선(조동선) 사상적 해설 강좌
2. 기 간 : 2005년 4월 7일 ~ 12개월
3. 시 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대학강의 기준)
4. 강 사 : 동국대학교 (전)불교대학원장 오형근 명예교수(철학박사)
5. 입학자격 : 가) 승려 및 일반불자(성별제한없음) 나) 학력 및 연령제한 없음
6. 입 학 금 : 100,000원(원서료 및 교재비포함)
7. 수 강 료 : 50,000원(매월)
8. 제출서류 : 본대학 소정의 서류(여권사진 3매)
9. 수강신청 마감일 : 2005년 4월 6일
10. 특 전 : 가)본 대학졸업자는 졸업장 및 졸업 기념패 수여 나)본 대학졸업자는 종단 전교사 자격증 수여
11.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152호 원효사
    원효불교대학 교학처 02)718-6221 / 713-0475

「曹洞禪學論叢」 제1집 조동선학논총

◇ 曹洞宗 源流訣 - 五家法統次序譜
釋金堂 (파평산 휴휴암주)
◇ 조동종 默照禪의 연구
吳亨根 (동국대 명예교수)
◇ 曹洞禪思想의 연구
洪修平 (중국 南京大 교수)
◇ 羅末麗初의 曹洞禪
金永斗 (원광대 교수)
◇ 조선시대 曹洞禪의 흐름
韓鍾萬 (원광대 교수)
◇ 중국 조동선과 新羅禪師 - 「동산록」所載의 신라인식을 중심으로
下麟錫 (전 아주대 교수)
◇ 眞如禪寺의 과거와 현재
崔錫煥 (월간 「선문화」 발행인)
◇ 현대중국 선종 중흥조 虛雲和尙 행장
一誠 (운거산 진여사 방장)



조동선(曹洞禪) 첫 연구서 출간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림 대표 총무원장 今禪 鶴峰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152 삼각산 원효사 전화 02)704-8065, 713-0475 팩스 02)704-8064

3040세대 퓨전법회 '함께해요'

광주 선덕사, 남난희 이근후 박사 등 전문가 초청 문화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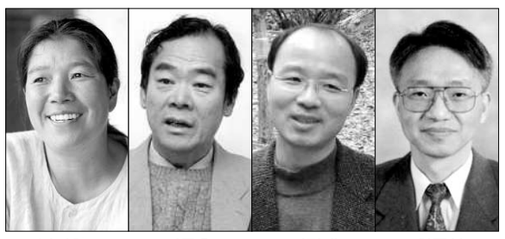
명상과 살아가는 지혜가 어우러진 젊은 이웃을 위한 퓨전법석이 열린다.

생활불교도량 광주 선덕사(주지 행법)는 포교 사각지대로 알려진 젊은이를 위해 문화강좌 '함께해요! 삶의 지혜'를 마련하고 오는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6회에 걸쳐 진행한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문화강좌는 오늘의 젊은이들이 안고 있는 부부갈등, 자녀교육, 먹거리 등의 문제에 대해 이들 전문분야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초청해 삶의 지혜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강좌는 여성 최초 히말라야 강가푸르나를 등정한 산악인 남난희씨의 '산을 내려와야 또 다른 산이 보인다'(19일)를 시작으로 실상사 작은학교 이경재 대표- '깨달음은 나무처럼 자란다'(20일), 김미옥 영양사(해남생협 이사장)- '우리 몸을 살리는 건강한 먹거리'(26일), 이대병원 이근후 명예교수(가족아카데미 이사장)- '부부간에도 도(道)가 있다'(27일), 금강대 최종석 교수- '감동이 묻어나는 웰빙의 삶을 위하여'(5월3일) 등의 이야기마당이 꾸려지고 5월 4일 닫는 마당으로 전주 예술고 조나엽, 신지선 양의 '남도소리여행 함께 떠나요'가 펼쳐진다.

선덕사는 강좌에 앞서 부민 스님의 지도로 웃음명상, 자비명상, 걷기명상 등 명상 체험을 하고 강좌 후에는 초청강사와 마음나누기로 질의응답을 갖는다.



남난희 이근후 이경재 최종석

부부갈등, 자녀교육 등…명상 체험도

이번 문화강좌를 마련한 주지 행법 스님은 "3~40대 젊은 이웃의 고민이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주제별로 풀어가는 이야기 마당을 마련했다"며 "젊은 이웃들이 함께해 허물없이 터놓고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062)263-4660

이준엽 기자

현대미술 감상하며 '꿈' 키워요

백양사, 청소년 위해 3월31일부터 70여점 전시

사찰 성보박물관이 문화에 소외되기 쉬운 지역 청소년들에게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마련해 화제다.

백양사 성보박물관(관장 법선 스님)은 장성지역 초,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15일까지 '현대미술 전시회'를 개최한다.

박물관 개관기념 3회 특별전으로 기획된 이번 전시회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찾아가는 미술관' 일환으로 열리며 국내유명 작가의 작품 70여점이 출품된다.

백양사 박물관은 작품감상과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시대의 풍경' '색채의 향연' '매체의 다양성' '미술속의 유머' '삶의 미술' 등 5가지 주제로 전시한다.

박물관장 법선 스님은 "풍부한 감성을 심어줘야 할 시기에 지역의 청소년들이 문화면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 현대미술전시회를 준비했다"며 "전통사찰과 현대미술이 어우러져 색다른 체험을 얻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백양사 박물관은 전시기간동안 현대미술 강의와 문화학교, 백일장 대회 등을 개최하며 불교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061)392-7566

이준엽 기자

청주시 '직지' 세계홍보 본격화

'세계직지문화협회' 22일 창립…출판, 축제 등 전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이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 빼어난 불교문화유산인 직지를 세계에 알릴 민간단체가 출범했다.

청주시는 3월 22일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사)세계직지문화협회 창립총회를 열어 이수성 새마을운동중앙회장(前 국무총리)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집행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모두 80여 명의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세계직지문화협회는 자치단체 출연금, 기부금, 회비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직지전략 연구원'을 설립하고 직지포럼 개최, 직지 관련 고인쇄 출판 연구 및 교육 사업 등을 통해 직지 세계화 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 지금까지 청주시가 맡아 온 직지축제와 직지상, 직지 찾기 등의 사업 등도 전담하게 된다.

한명우 기자

광주 무각사, 린포체 초청법회

광주 무각사(주지 광민)는 오는 4월 10일 대웅전에서 텐징 장양 린포체 초청 마정수기 법회를 봉행한다.

무각사 대웅전 부처님 개금불사와 후불탱화 조성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마정수기 법회에는 티베트에서 3번째 환생한 린포체와 티벳 스님들이 초청되어 티베트불교 의식으로 펼쳐진다. 무각사는 마정수기 법회에 이어 4월 11일 개금불사 및 후불탱화 점안법회를 갖는다. 석가모니 불상에는 신도들이 사경한 <반야심경>이 봉안된다. 이준엽 기자

하남 정심사, 단청불사 회향



하남 정심사(주지 원영)가 3월 24일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9주년 및 대적광전 단청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서는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원택 스님의 법문이 진행됐다.

유철주 기자

'청담학원 30년사' 발간

평택 청담중·정보통신고를 운영하는 청담학원(이사장 혜자)이 <청담학원 30년사>를 발간했다.

청담학원 설립 30주년을 맞아 발간된 <청담학원 30년사>에는 30년 동안의 학교발전사를 연대별로 사진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꾸몄다. 또한 각 학교의 교육 및 불교활동과 특성화·인재육성 전략 등도 담았다.



청담학원은 1965년 故 청담 스님이 '실달 학원'을 세운 후 1974년 혜성 스님(도선사 회주)이 청담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했다.

강지연 기자



옥천사암련, 독도 망언 규탄

충북 옥천사암연합회를 비롯한 32개 옥천 시민사회단체는 3월 23일 조헌선생 사당 앞 잔디광장에서 일본의 독도 망언을 규탄하는 가두행진과 집회를 가졌다.

옥천사암련 회장 지원(가운데)·총무 혜철(오른쪽) 스님 등 사암련 스님과 신도 100여명은 태극기가 그려진 머리띠를 두르고 태극기를 몸에 감은 채 '제국주의 드러내면 아시아국 뭉쳐진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일본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명우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서울 백련사

"봉사로 똘똘 뭉쳤어요"



백련사의 사회봉사단체인 백련자비원은 매주 월~금요일 독거 어르신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백련사 주지 설산 스님은 매일 어르신들에게 직접 식사를 챙겨드린다.

3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백련자비원. 100여명의 어르신들이 30평 규모의 식당에 꽉 들어찼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이면 백련사 주지 스님과 신도들은 어르신들에게 밥과 국을 가득 담은 식판을 직접 테이블에 가져다 준다.

백련사가 이렇게 지역의 독거 어르신과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한 지 꼭 1년 째. '사단법인 21세기 한국사회봉사회 백련자비원'을 발족한 뒤 본격적인 사회봉사 활동에 뛰어든 백련사 주지이자 백련자비원장인 설산 스님은 자원봉사자 150여명과 함께 백련사를 '봉사하는 사찰'로 자리매김 시켰다.

'봉사하는 사찰'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무료급식 때문만은 아니다. 무료합동결혼식, 장학회 운영, 불우이웃돕기, 재난구호 등 백련사의 봉사활동은 다양하다. 무료합동결혼식은 1년에 3~4차례 정도 열리는데, 이들에게는 드레스, 신부화장, 사진 등이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28년째 운영되고 있는 천불장학회는 지역에서 추천한 학생들에게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지급한다.

삼풍백화점 참사와 경기도 연천·파주 수해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백련사 자원봉사자들이 달려가 구호작업을 벌였고, 백련사 회주 운경 스님은 매달 양로원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의 후원을 해오고 있다.

백련사는 신라 경덕왕 때 진표율사가 세운 1300년 된 고찰로, 기도도량으로서의 위상을 면면히 이어왔다. 하지만 지금은 기도도량으로서 뿐만 아니라 봉사도량으로서의 새로운 이미지를 정착시켰다. 그리고 이제는 '쉼터 같은 사찰'로 가꾸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백련자비원 주축 활동 다양…장학회 28년째

'편안한 절' 위해 24시간 개방·공간 마련 계획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백련사는 조만간 사찰을 24시간 개방할 방침이다. 누구나 와서 편안히 기도하고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당 외에 별도의 휴식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휴식처 같은 사찰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물었다. 설산 스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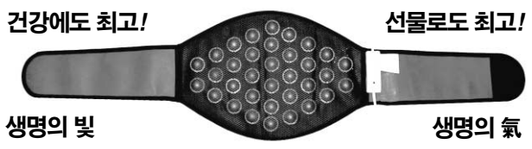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배려한다면 스스로가 존경받게 되고 이것이 아름다운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백련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www.paengryontemple.or.kr (02)303-0024

한명우 기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석온열복대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생명의 氣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비만과 배가 찬 것은 만병의 근원이 된다. 북한 3대 특산품인 세계 희귀의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강력한 열과 생명의 광선이 방사되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과가 있어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숨만 쉬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변비, 복부비만, 소화불량. 만성위염. 어깨, 허리, 무릎 결림등이 자연 치유된다.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는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쑥뜸의 효능 은행석온열복대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원적외선 "침"의 효과로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피부에 접촉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저렴한 가격과 사용하기가 안전하고 편리한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닥터 (02)3210-3170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신비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북한산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北韓産 금강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소원도 꼭 이루고 건강에도 최고 북한신비의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와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오며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강한 氣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금강석이 생산되는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어 대중 포교를 일으키신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 사용하세요.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분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구직을 원하시는 분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건강(氣)이 약하신 분

1set 225.000원

108.12	195.000원
108.손목	160.000원
12.손목	110.000원
108염주	135.000원
12단주	85.000원
손목염주	38.000원

※신제품 금강바이오니아 108. 손목염주도 판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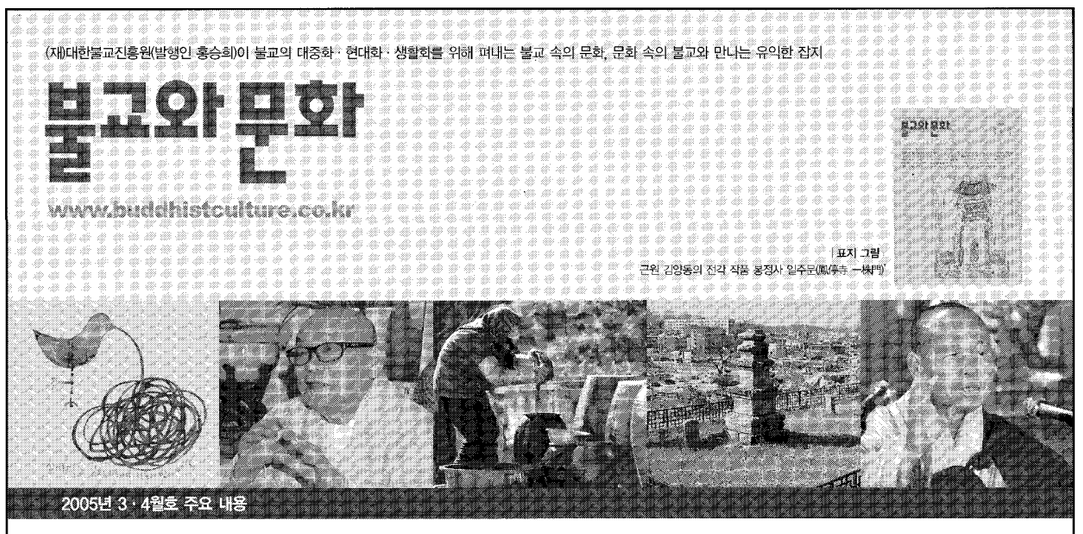
金剛念珠社 문의전화 (02)723-0909

직영매장 이화불교사 TEL (02)720-1700,734-1383 (불교용품일체 도,소매)

(재)대한불교진흥원(발행인 홍승희)이 불교의 대중화·현대화·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잡지

불교와 문화

www.buddhistculture.co.kr



2005년 3·4월호 주요 내용

교리 | 지혜의 샘

재가불자가 알아야 할 불교교리 A에서 Z까지
(기초교리) 종범 스님의 "불교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① 초기의 가르침 - 삼법인·사성제·팔정도

지상중계 | 대구 법왕사 경율론 삼장 법고좌법회(각성 스님의 『화엄경』「십주품」) "선수행을 올바로 하려면 교리공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특집 | 세계 불교국가들의 종단 운영체계와 한국불교
세계 불교국가의 승단 운영 체계 및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고, 세속법 만능주의에 기인한 현행 한국불교의 종단체계 및 운영의 문제점, 특히 불교 승풍(僧風)이 상실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본다.

남방불교국가들의 종단 운영 현황
중국과 티베트의 종단 운영체계
일본 주요 종단(승단)의 운영 현황
달라져야 할 조계종단의 운영 방향
제도개혁보다 의식개혁이 먼저다

수행 | 마음공부

장로대담 | 활안의 선지식에게 듣는 修行閑談
대구 보광선원 조실 화산(華山) 스님 "수행이란 참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에 대한 Q&A | 수행 의문을 묻고 답한다 2
화두참선 수행 - 의정(疑情)은 무엇입니까?
위빠사나 수행 - 부처님께서 위빠사나로 수행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문화 | 불교와 문화가 만나는 곳

테마기획 | 절집 공양간 맛 풍경 2 양구 흥덕사 장 담그는 날
문화기행 | 떠도는 성보 2-탑(塔), 불교문화재의 제자리 찾기

사람 | 아름다운 사람들

향기나는 사람들의 모임 | '피안사회복지관 자비회' '과천 새벽기도모임'
서양불교계를 빛내는 불교인
명상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두 학자, 허버트 벤슨과 존 카밧 진

격월간 『불교와 문화』 전화 02-719-2606

경북 문경 · 예천 · 상주

산마다 청정도량 도심엔 신행 열기


상주법우회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복룡동 석불좌상 앞에서 비로자나불 헌공대재를 거행하고 있다.


예천 젊은 불자들로 이뤄진 정법회 회원들이 예천불교포교원에서 지도법사 지정 스님과 함께 윷놀이를 하며 승속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경불교의 자랑 문경불교대학의 입학식 모습. 올해도 130명 정원을 초과해 150여명의 신입생이 등록을 마쳤다.

문경 고찰의 수행가풍 복지 · 문화 포교로 계승

예천 주민 80%가 불자…승 · 속화합 발전 동력

상주 곶감같은 불심…거사림회 등 전법 주도

문경

문경은 경상북도의 서북단 내륙에 자리잡은 산간지역으로 경북의 관문이다. 산이 많은 지역이라 문경사람들은 땅속 무연탄을 파서 팔고 흙으로 도자기를 빚어 생업을 삼았다. 지금은 거의 모든 탄광이 문을 닫았지만 한때 탄광촌에 활기가 그득할 무렵 불정동 운암사에는 1일 1000여 명에 달하는 불자들이 모여 법회를 봉행했을 정도로 문경은 불교세가 세다. 또, 봉암사, 대승사, 윤필암 등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수행처와 암자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신라 진평왕 때 사면에 불상이 새겨진 바위가 공덕봉 꼭대기에 내려앉자, 왕이 바위 곁에 절을 세우고 사면석불에 공양을 올리게 했다는 대승사는 50여 납자가 정진하는 참선도량으로 유명하고, 산내암자 윤필암 또한 비구니 수행도량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구산선문중 하나로 신라후기 지증 대사 도헌스님에 의해 개창된 희양산문 봉암사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조계종립 특별선원이다.

1947년 성철 스님을 필두로 청담 · 자운 · 우봉 스님 등 4인이 '오직 부처님 뜻대로만 살아보자'는 원을 세우고 용맹정진한 결사도량으로 유명하다. 지금까지 향곡 · 서옹 · 서암 스님 등 근대 한국의 대표적 선승들이 조실을 역임하면서 납자들을 제접했고, 현재 정광 스님이 선원장을 맡고 있다.

봉암사와 대승사가 참선도량으로 유명하다면 한때 전국 31본사의 하나로 45개의 말사를 거느렸던 김용사는 포교도량, 강원도량으로 빼 놓을 수 없다. 지금도 음력 초사흘과 열여드렛날 정기법회를 개최하고,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등 수련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김용사는 지역민들과 호흡을 함께 하며 생활속의 불교를 전파해 왔다.

그 외 문경에는 종단과 종파를 초월한 21개 사찰이 사암연합회를 형성하여 문경불교를 이끌고 있다. 운암사는 시내 문경모전사회복지관과 문경자활센터, 연꽃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지역복지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어린이 포교에 남다른 원력을 세운 산양면 개운사는 젊은 불자들이 즐겨 찾는 포교도량이다. 또, 천태종 문장사와 옥천사 역시 문경불자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며 지역포교에 동참하고 있다.

김용사 회주 자광 스님은 문경불교의 구심점으로 지역불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스님은 김용사가 관광 사찰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 입구의 흙길과 울창한 야생림을 자연 그대로 지켜냈다. 1999년 초 문경불교대학을 시내에 개설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7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문경불교대학은 해를 거듭하면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올해 7기 신입생 모집도 130명 정원을 넘겨 150명이 등록했다. 문경불교대학은 지역 지도층을 불자로 끌어들이는데 한 몫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졸업생들은 기수별 신행회를 조직하여 지역봉사활동에 동참하여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문경불교의 '행동대장' 문경불교청년회는 초파일 봉축행사를 비롯해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운영, 문경불교회관 관리 등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며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다.

예천

예천은 경북 북단의 소백산 자락에 위치한 농촌 지역으로 유교, 불교, 토속문화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 경주의 신라불교문화권과 색다른 불교문화를 형성했다. 또, 산업화가 가장 안 된 곳이다. 따라서 공장 하나 없는 순수 농촌지역으로 물이 맑고 정이 넘친다. '들어올 때 어떻게 살까 걱정돼서 울고, 갈 때 너무 정이 들어 운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 주민의 70~80%가 불자인 예천은 청년회가 발전한 정법회를 비롯해 군청불자회인 염불회, 관음회 등 재가불자 신행단체 활동이 유독 활발하다. 특히 9년 전에 결성된 예천불교연합신도회는 회원 150명을 자랑하며 재가불자를 아우르고 사암연합회와 협의 하에 예천불교를 이끌고 있다. 예천불교연합신도회장은 사암연합회에서 추대하는데, 현재 예천 군수가 신도회장을 맡고 있다. 그만큼 예천은 불교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예천사암연합회는 종단과 종파를 초월한 47개의 회원 사찰로 구성돼 있다. 현 사암연합회 회장은 예천불교의 종갓집 격인 용문사 주지 청안 스님이 맡고, 두달에 한번은 모임을 갖는다. 예천에는 사암연합회가 자주 모이고 재가불자와 함께 벌이는 불교행사가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보통 타 지역불교가 초파일을 기점으로 몇 가지 봉축행사만으로 끝나는데 비해 예천은 정초부터 신행단체별 윷놀이가 벌어지는가 하면 예천불교연합신도회가 주최하는 윷놀이대회는 1000여명이 넘는 불자와 지역 스님들이 모여 예천군 잔치를 방불케 했다. 그 외 연말이면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을 하고 삼사 순례도 간다. 특히 지역천주교계와 펼치는 체육대회는 이 지역불교가 내세우는 또 하나의 자랑이다.

지금 예천불교는 불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포교당 마련과 불교대학 개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사암연합회와 예천불교연합신도회는 이를 위해 자주 모임을 갖고 있으며, 조만간 개괄적인 추진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곳곳의 사찰마다 나름대로 포교도 열심이다. 용문사가 지역의 종갓집으로서 사격을 갖추는데 열심이라면, 읍내 있는 서악사(주지 도일)는 룸비니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어린이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또 명봉사(주지 희광)의 정갈한 도량관리는 예천불자들을 탄복케 한다. 또 풍양면에 있는 법흥사(주지 정안)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을 운영하며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에 앞장서고 있다.

상주

조선시대 교통의 요지로 한때 경상도 감영이 설치되었던 상주는 곶감이 유명하며 불심 또한 돈독한 고장이다. 83년 6월 창립한 상주사암연합회는 60여개의 사암연합회 원사찰을 아우르며, 21년 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역사찰의 힘을 모아 상락유치원을 설립해 어린이포교에 나섰다. 15년 전에는 교사불자회를 발족시켰고, 96년에는 11개 중고등학교에 파라미타 분회를 창립해 일찍부터 청소년포교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또 97년부터는 냉림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복지 불사에 나섰으며, 경로잔치, 청소년 장학금 수여, 무료급식 등 어느 지역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상주불교의 정신적 지주로 상주사암연합회를 이끌었던 前 남장사 주지 성웅 스님이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백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불자들의 신심이 유달리 돈독한 지역이 상주다. 유구한 역사와 회원수를 자랑하는 거사림회 법우회가 상주불교를 받치고 있고, 지역사찰 스님들이 상주불교의 구심점을 찾기 위해 노력중이어서 지역불자들은 조만간 옛 상주불교의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문경 · 예천 · 상주=배지선 기자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영남제일 강원' 복원에 혼신

청안 스님 (예천 용문사 주지 · 예천사암연합회장)



"내 남은 생 용문사만이라도 과거 옛 모습대로 제대로 복원시키는데 노력하려고 합니다."

1998년 모 이동통신업체의 휴대폰 광고를 찍은 후 말 많은 속인을 피해 '피난삼아' 용문사에 들어왔다는 청안 스님은 지금까지 도로를 정비하고 법당을 비롯한 대장전, 진영당, 자운루, 명부전, 응진전 등 9개 동 전각을 개 · 보수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윤장대가 있는 대장전은 주춧돌까지 들어내고 복원하는 작업을 마쳤다.

스님은 2010년까지 복원불사가 마무리되면 옛날 영남제일 강원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강원을 열고 지역복지에도 신경을 쓸 계획이다. 예천 사암연합회장도 맡고 있는 청안 스님은 예천불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조만간 예천읍내에 포교당을 마련하고 불교대학도 열 예정이다.

어린이 · 문화 포교 앞장

범초 스님 (문경 운암사 주지 · 문경모전사회복지관장)



1988년부터 92년 사이 영월 보덕사에서 리어카를 직접 끌며 휴지 등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지역 최고의 유치원 불사를 했던 범초 스님은 2003년 3월 문경 운암사에 와서도 연꽃 어린이집, 모전사회복지관, 문경자활센터, 어르신대학 등을 운영하느라 하루해가 짧다.

문경이 탄광촌으로 유명할 당시만 해도 운암사는 수많은 신도들로 붐볐으나 지금은 노 보살들이 주 신도층을 이루고 있다. 항상 젊은 불자 포교에 앞장서는 스님은 합창단을 창단해 포교에 나섰다.

또, 지난 연말에는 예천 서악사, 상주 남장사 합창단과 함께 문경시민문화회관에서 합동발표회를 갖기도 했다. 스님은 올해부터 거사들을 영입해 혼성 합창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구상이다. 또 서예반 전시회도 개최할 생각이다.

150명 장애인과 '동거'

정안 스님 (예천 법흥사 주지 · 예천연꽃마을 이사장)



"이 방은 희로애락과 우여곡절이 많은 방입니다. 소외된 수많은 이들이 거쳐간 방이지요"

정안 스님은 예천 연꽃마을에 최신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요양시설이 우뚝 들어선 지금도 나지막한 촌집 옛 스님의 방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15년 동안 도배 한 번 안한 스님의 방은 정갈하면서 친근하다. 스님은 "복지를 하는 사람은 너무 깨끗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누구든 항상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

79년 지리산 천은사에 있을 때 한 아이가 12월 초 겨울바람을 뚫고 찾아온 것이 인연이 되어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며 살겠노라 발원하게 됐다는 스님은 84년 9월 법흥사에 들어와 인연 따라 아이들과 노인 장애인을 받아들여 한 식구로 살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연꽃마을 식구는 이제150여명에 이른다.

문경 최고의 유치원 건립

선구 스님 (문경 개운사 주지)

"어린이들이 우리 유치원에서 뛰어노는 생각만 하면 마구 흥분됩니다. 특히 가까이 사는 시골 아이들이 올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포교에 대한 남다른 원력으로 작년 12월 문경 최고의 유치원을 준공한 선구 스님은 마지막 개원 준비를 서두르면서 어린이들을 만날 설레임을 감추지 못했다. 83년 윤필암에 왔다가 개운사에 모셔진 경주옥돌부처님이 너무 좋아 개운사를 인수한 스님은 당시 바쁜 농사일로 홀로 내몰린 5~6세의 시골 아이들 10여명을 모아 돌보면서 어린이포교 원력을 키웠다.



스님은 "20년 전 코흘리개 아이들이 성인이 된 지금도 잊지 않고 찾아온다"며 "스님과 있었다는 기억만으로도 어린이들에게는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오직 소임에 충실할 뿐"

중원 스님 (문경 김용사 주지)



"나는 아는 것도 없고 할 말도 없습니다. 그저 밥 먹고 절 지키는 소임만 할 뿐입니다"

쉽게 툭툭 던지는 스님의 첫 마디에서 맺힘도 끊어짐도 없는 수행자의 시원함이 엿보인다. 김용사 회주 자광 스님의 상좌로 7년 여 동안 스님의 시봉을 맡았던 중원 스님은 전국사찰을 누비며 운수납자의 삶을 살다가 지난해부터 김용사 주지 소임을 맡았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고스란히 불교의식에 담겨 있기에 오직 불교의식에 충실할 뿐 다른 것은 모른다는 스님은 김용사가 전통을 잘 보존해 갈 수 있도록 도량을 수호할 뿐이라고 말했다.

'향가' 보급 불교문화 알려

지정 스님 (예천 장안사 주지)

4년 전 장안사에 들어온 지정 스님은 장안사를 관광개발이라는 외압으로부터 지켜냈다. 스님은 장안사 곳곳에 법구경과 향가를 게시하여 '다시 가보고 싶은 수행도량'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또, "사찰은 지역신도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역민을 위해 노력할 때 살아난다"며 지역민들에게 사찰을 모두 개방했다. 장안사는 지역민들의 손에 의해 기왓장 하나 목재 하나가 운반되면서 복원된 곳. 스님은 "겨울철 눈만 오면 모든 마을 주민들이 삽과 비를 들고 자기 집 마당보다 먼저 장안사의 눈을 치우러 온다"고 전했다.



복이 있어 수행자로서 경도 보고, 선도 하고, 삼천배, 백일기도도 했다는 스님은 초하루 법문을 모은 법문집을 발간하고, 불교적 신앙심이 담긴 우리 고유의 문학인 향가집 보급에도 힘써 오고 있다.

35년 역사 '법우회' 창립

김동출 거사 (상주 법우회 회장)



"종단, 종파, 사찰을 떠나 재가불자 간 얼굴도 익히고 거사들이 나서 지역불교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68년 6월 발기인을 조직하고 1969년 1월 법우회를 창립했습니다"

법우회 발족 과정을 들려준 김동출 회장의 목소리엔 남다른 자부심이 깃들어 있다. 법우회는 매년 봉행되는 초파일 봉축행사를 비롯해 연초에는 불교인단합 윷놀이를 벌이고 연말에는 불교인송년법회를 등 불자들의 화합과 신심을 다지는데 앞장서 왔다.

또 기초교리강좌를 운영하기도 했고 법우회 사무실에 컴퓨터 12대를 설치해 불자들에게 전산교육도 지원해 왔다.

특히 매년 봄 가을 서성동에 있는 복룡동석불좌상(보물 제119호)에서 봉행하는 비로자나불 헌공대재는 불교문화재를 재가불자들이 가꾸고 돌본다는 점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

불심으로 화합 이끄는 '군수님'

김수남 거사 (예천불교연합신도회장 · 예천군수)



"예천의 재가불자들의 신심은 배우 돈독한 편입니다. 정법수호를 위해 일과 몸, 마음을 아끼지 않습니다"

김수남 회장은 9년 전 예천불교연합신도회를 창립하면서 예천지역 재가불자들을 하나로 모은 장본인이다. 1984년 용문사 화재 이후 용문사 복원불사 추진위원장에 위촉되면서 신심이 깊어졌다.

사암연합회가 종단과 종파를 초월한 지역 스님들의 협의체로서 지역불교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면, 예천불교연합신도회는 재가불자들의 연합체로 지역불교활동을 외호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예천 군수로서 불교문화재를 발굴, 보존 정비해 나가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발로 뛰며 청년불교 힘모아

이상구 거사 (문경불교청년회장)



"문경에 있는 모든 사찰이 우리 절이고 법당입니다." 92년 대불련 활동을 통해 불법과 인연을 맺은 이상구 회장은 문경지역 어느 사찰이건 행사가 있으면 즉각 달려간다. 또 스님들도 불교청년회 일이라면 적극 나서 힘을 모아준다. 지금까지 문경불교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 굴러왔다.

최근 문경불교청년회는 문제점에 봉착했다. 미래불교를 짊어질 후배불자가 나서질 않고 있는 것. 이 회장은 이 문제점을 풀 대안으로 2002년까지 23년 동안 이어왔던 반야불교학생회의 부활을 꼽았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뛰고 있다.

승려·법사 ID카드 발급

(재)일붕선교종, 정보화 시대 종무행정 개선

서경보 스님 열반 이후 오랜 침체를 경험한 (재)일붕선교종(총무원장 동봉)이 승려증과 법사증을 ID카드로 제작, 새로운 종단 분위기 만들기에 나선다. 또 전자 신도증 발급도 추진해 종단차원에서 신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각종 신분증의 ID카드 교체는 1월 18일 중앙종회에서 기존의 승려증과 법사증을 플라스틱 재질의 최신 ID카드로 교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종무행정을 해보자는 결의에 따른 것.

일붕선교종은 투투컴퓨터와 함께 전산관리 프로그램도 개발, ID카드 신규발급을 통해 입수된 스님 개인의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관리 부재 상태였던 종무를 바로 잡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승려증과 법사증 남발로 인한 종단 위계질서 해이 등의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통일된 형태의 신분증이 발급되면 대내외에 종단의 위상을 알리는 데도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일붕선교종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종단 소속 스님들에게도 협조공문을 보내 종단 업무에 대한 관심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일붕선교종은 승려증과 법사증을 1차로 발급한 뒤 2차로 신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신도증도 계획하고 있다. 신도증 발급을 통해 신도들에게 체계적인 기본교육은 물론 재적사찰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자 신도증을 발급받으려면 신도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본교육, 수계, 신도등록, 전문교육 등으로 이어지는 신도 입교 및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다보면 신도자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종단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흐트러진 신도조직이 새롭게 구성되면 신행활동도 자연스럽게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승려증



법사증

일붕선교종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협의해 전국 전통사찰과 국립공원의 무료입장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총무원장 동봉 스님은 "4월 중순경부터 사찰 전산화 사업 등을 통해 종단 추스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조계종 중진스님을 대상으로 한 제4회 불교지도자연수회 참가자들의 모습.

조계종 중진 스님 연수

조계종 교육원은 올해 법랍 20년차, 25년차 중진 스님들을 대상으로 제4회 불교지도자 연수를 아산 한국증권연수원에서 3월 21~23일, 29~31일 각각 개최했다.

종단 중진 스님들의 재교육 열의가 높아지고, 교육원의 수준 높은 연수프로그램이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 교육에는 20년차 연수에 50여명, 25년차 연수에 40여명의 스님들이 몰렸다.

2박 3일 일정으로 열린 이번 연수는 △불교지도자 양성과정 △현대종교환경의 이해 △도제양성 및 지도방법론 등 불교지도자들의 리더십 향상에 주안점을 뒀다. 또 축제기획 불무 김유신 대표,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윤승용 연구원, ngo미래경영연구소 이영철 소장 등 각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이번 연수에서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중진스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중진지도자연수 활성화로 수행과 포교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외국어 홍보책자 발간

조계종, 영·중·일어로



올해 국제포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조계종(총무원장 법장)이 외국어 홍보책자(사진)를 발간했다.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발행된 홍보책자는 △한국불교와 조계종 △스님과 수행 △간화선 △조계종 사찰 △불교문화유산 △신도와 문화활동 △사회활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해외홍보책자는 해외 불교단체와 한국사찰, 주한외국대사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조계종 사회부장 정념 스님은 "국내외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간화선과 사원건축, 불교전통문화 등에 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유철주 기자

신임이사장 해월 스님

법상종, 법인이사 구성

법상종(총무원장 해월)은 3월 21일 총무원에서 (사)대한불교법상종 이사회 제1차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이사장 해월 스님, 상임이사에 도일(부원장) 스님을 선출하고, 법인이사 구성을 매듭지었다.

법상종은 지난해 12월 문광부에 사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사단법인을 발족시켰다.

한편 법상종은 이날 제61차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하고 종회의장 사임으로 공석이던 종회의장에 무성 스님, 부의장에 경천 스님을 선임했다. 총무원 임원진 개편도 단행, 교육원장에 교덕, 총무부장에 법정, 교무부장에 천웅, 포교부장에 해암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신 기자

농사용 비닐·묘목 北에 지원

천태종, 3월29일 육로이용 개성으로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이 북한의 개성 영통사복원위원회에 농사용 비닐 100톤과 묘목 1만그루를 전달한다.

천태종은 이들 물품들은 18톤 트럭 6대에 싣고 3월 29일 오전 8시 30분 파주시 임진각 광장을 출발해 도라산 출입관리사무소를 거쳐 오전 10시께 개성공단지역에 도착할 계획이다.

농사용 비닐은 개성 영통사 주변 농민들에게 지급되며, 은행나무, 느티나무, 향나무, 적단풍나무, 소나무, 밤나무 등 묘목들은 영통사주변 야산 녹화 및 진입로 조경용으로 식수될 예정이다.

천태종은 2003년 10월 27일 영통사 복원기와 10만장을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15차례 대북지원을 해왔다.

한편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스님과 신도 등 10명은 대북 물품지원을 위해 3월 29일 방북해 개성 영통사를 참배하고 국청사 사적지 등 개성지역 문화유적을 돌아본 뒤 3월 30일 귀환한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사찰오수처리시설 교육

조계종 사회부(부장 정념)는 3월 25일 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05년 사찰오수처리시설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올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설악산 봉정암 등과 2002년에 시설을 설치한 사찰 등 모두 12개 사찰이 참석했으며, '오수처리시설의 필요성과 관리방안', '오수처리시설 관련 법령 및 정책 방향', '오수처리지원사업 실무행정'에 대한 강의와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오수시설을 설치한 12개 조계종 사찰 실무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유철주 기자

기획 동출·사회 정업·호법 태진·조사 인오 스님

조계종 국장 인사

총무원 새 기획국장에 동출, 감사국장에 삼혜, 사회국장에 정업, 호법국장에 태진, 조사국장에 인오 스님이 3월 25일 각각 임명됐다.

동출 스님은 1984년 사미계, 86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94년 개혁회의 홍보차장 등을 역임했다. 82년 사미계, 87년 구족계를 수지한 삼혜 스님은 삼장사 주지, 총무원 호법국장 등을 역임했다.

정업 스님은 86년 사미계, 89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대응사·와룡정사 주지, 호법부 상임감찰 등을 역임했다. 86년 사미계, 90년 구족계를 수지한 태진 스님은 총무원 감사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관촉사 주지를 맡고 있다.

인오 스님은 88년 사미계, 98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총무원 사회국장 등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태고종 경기동부 종무원장에 청봉스님

태고종 경기동부종무원은 3월 31일 오전 11시 양평 대명콘도에서 종무원장 청봉 스님(하남 용천사 주지) 취임법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경기동부교구 종무원은 3월 15일 하남시 선법사에서 지방종회(의장 보경 스님)를 개최하고, 종무원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종회의원과 종정홍보원 부원장인 청봉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또 부원장에는 광주 수왕사 만월 스님을 선출했다.

청봉 스님은 당선소감을 통해 "분원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여 종도들 간 화합과 단결이 가장 잘되는 힘 있는 종무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동부종무원은 이날 사찰 주지 총회를 개최하고 종무원 임원을 새롭게 구성했다.

△원로위원 법륜(칠보사) △자문위원 범산(선법사) 지성(감로사) 일각(묘각사) △포교 위원장 = 해월(관음사) △호법위원장 = 상문(흥덕암) △호법위원 설성(대왕사) △종무국장 인성(월봉사) △교무국장 혜명(정혜사) △재무국장 지원(보광사) △규정국장 혜성(영취사) △사회국장 혜인(사나사) △양평 분원장 지원(보광사) △남양주·구리·가평분원장 혜명(정혜사) △광주·하남분원장 해월(관음사) △이천분원장 인성(월봉사) △여주분원장 설성(대왕사)

김원우 기자


창종 14주년을 맞은 미륵종은 8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3월19일 김해 진례체육관에서 창종법회를 봉행했다.

미륵종 창종 14주년 법회

미륵종(총무원장 송정) 창종 14주년 기념 및 보살수계법회가 전국 말사 주지 100여명과 불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9일 김해 진례체육관에서 봉행됐다. 이날의 법회는 1부 괘불이운, 2부 창종기념법회, 3부 보살수계법회 순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송정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미륵10선운동을 사회에 뿌리내려 혼탁악세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미륵종은 이날 한의원, 노인복지시설, 납골당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는 올해 종단 사업계획을 종도들에게 밝혔다.

미륵종은 신도 대상으로 '미륵십선법'을 강의해, 미륵십선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미륵종은 3월 29일 150여명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태국 아유타야 사원을 방문하는 성지순례를 실시했다.

강유신 기자

태고종 비구니회 총회

태고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여초)는 4월 4일 서울 성북구 여의정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전승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선상방생법회와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동참, 비구니회 수첩 제작 등의 안건으로 진행된다. 한편 태고종 비구니회는 22일 총무원에 남아사이 지진해일피해돕기 구호품으로 티셔츠 300벌과 슬리퍼 300족을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몽골불교에 자비의 등불을 밝힙시다

73년 동안 소련 공산당에게 짓밟힌 몽골불교 부흥을 위해 몽골국립공원에 23m 노천대불을 세웁니다.

몽골국립공원에 노천대불조성을 위한 10만등 동참불사 (1인 1등 1만원 밝히기 운동)

◆ 신청기간
◇ 1차 : 2005년 5월 20일 (음, 4월 18일)까지 (몽골 부처님 오신날 행사일까지)
◇ 2차 : 2005년 7월 8일 (음, 6월 3일)까지 (국립공원에 노천대불 낙성식일까지)
※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의 명단을 몽골불교공원에 기록하여 영원히 남깁니다

◆ 몽골세계불교공원추진위원회
• 몽골 불교대표 구르도바보취 • 몽골불교대학 총장 체대브 • 아세아 불교 연구소장 볼칸
• 몽골대학생 불교연합회 남정주 • WFB몽골대표 담마자브
• 세계불교법왕청 대표·몽골 고려사 주지 활안 한정섭 • 법화정사 주지 석도림
• 후원 : 대한불교진흥원·(사)한국불교금강선원·평화통일 불사리탑 법화정사

◆ 몽골성지순례안내
◇ 제1차 : 2005년 5월 20일 - 24일 (음, 4월 13일) 3박 4일 110만원
◇ 2차 : 2005년 7월 7일 - 11일 (음, 6월 2일) 3박 4일 110만원

▶몽골 국립공원 노천대불조성을 위한 10만등 동참 불사에 동참해 주신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참자 명단-접수순)

● 서울 금강선원 : 용재완, 고영철, 여지헌, 심영진, 임응선, 정광운, 임승준, 김기훈, 임은정, 김나경, 김건희, 김종철, 임은봉, 김경빈, 김다영, 김재윤, 전진억, 정영현, 이옥순, 정순렬, 정연주, 정현주, 문춘희, 구병회, 정인순, 구민정, 구윤명, 손태혁, 정광자, 손래오, 손윤옥, 한문섭, 박자환, 윤기정, 소희원, 소태윤, 문재상, 이상진 ● 불교TV : 이태형, 이호민, 유상애, 신 철, 한임련, 미숙원, 김기홍, 김윤미, 정정국, 조금이, 김평등심, 최태근 ● 광명사 : 대덕, 보현, 강상현, 강소양, 유현주, 유삼석, 한춘순, 유은기, 유성제, 김옥경, 이범석, 박정명. 강희출, 박영재, 박병선, 정용기 정용오, 정용규, 윤옥수, 정혜원, 정원철, 변용철, 배송미, 변가현, 변가은, 이주한, 정명자, 이호준, 이태준, 이승배, 정선기, 정은주, 김태진, 김재원, 박계연, 김옥분, 고순점, 박성문, 최종국, 최종식, 이태봉, 오경숙, 이채순, 이간택, 김은아, 이형택, 최영은, 이정현, 이정민, 조 훈, 이채선, 조은영, 박태춘, 오현숙, 박진욱, 박민선, 이창행, 박정희, 이윤신, 이윤주, 손삼례, 유상우, 유상민, 유정현, 임묘선, 윤진호, 윤진석, 박길자, 윤성호, 윤기헌, 윤성원, 윤성희, 이동헌, 이유민, 조기옥, 송의수, 정향완, 송병구, 송은실, 조홍근, 손경자, 조수연, 최경호, 고경숙, 최원석, 최성중, 이선우, 박영자, 이충현, 이동엽, 정금애, 김현정, 박복녀, 김종훈, 황승업, 김봉도, 조익성, 김보경, 조창동, 곽선주, 조연희, 조태희, 이병근, 김복순, 이경재, 조종님, 이종원, 이주연, 유현숙, 김재열, 김정임, 김기준, 박종훈, 김영희, 정순자, 정영현, 김진숙, 정봉근, 정봉진, 박사덕, 정창래, 민정희, 정가혜, 정하연, 왕윤선, 심귀채, 이영애, 심재혁, 심순혁, 심귀호, 이종숙, 이희춘, 왕문수, 이재용, 최문정, 이원용, 한유진, 최만규, 기화영, 최지희, 최지영, 권미숙, 정성욱, 정복석, 최금옥, 노연화, 김정희, 노연희, 김동환, 김동규, 홍기석, 이한림, 홍리경, 홍정연, 홍창규, 김윤지, 홍형규, 채선정, 홍화련, 최영준, 홍남득, 최호영, 최재영, 홍선자, 배홍렬, 유인구, 김복희, 유재연, 유성희, 유주연, 노현수, 노성호, 최정아, 노동욱, 허상임, 노성훈, 권우정, 노민영, 노영진, 고미경, 노나영, 노나경, 노성택, 한종예, 노동준, 현순화, 김정자, 김보경, 김수병, 김형병, 박미성, 김건우, 노시연, 이상영, 노준상, 노경림, 오근배, 홍수옥, 홍경옥, 소재민, 노연옥, 소홍석, 소원석, 조성우, 이주배, 윤영수, 이정옥, 이정선, 이정남, 윤한만, 윤진희, 이봉길, 양덕자, 이성준, 이성민, 이승훈, 김문주, 이소미, 이다현, 신종복, 이명옥, 신봉주, 신영석, 이세창, 박정숙, 이서현, 이서경, 이성호, 조영숙, 이상혁, 이상문, 이상석, 이길천, 오재숙, 이성숙, 지승봉, 이옥심, 김경환, 안성진, 김유리, 김승환, 이송한, 윤정애, 이주현, 이태영, 나상복, 박정은, 나형암, 나수진, 박영환, 김종락, 김춘록, 김예송, 김예은, 이승훈, 손금식, 최경숙, 손은수, 손기일, 김성모, 최혜숙, 김준용, 김건용, 최진환, 이유진, 조성민, 이은임, 조아라, 조아해, 간문기, 장영임, 간명균, 간보경, 조익성, 김보경, 조창동, 곽선주, 서정환, 이경자, 서대연, 박현선, 김진환, 박한순, 김세희, 김세진, 김대훈, 김정옥, 임승자, 김영식, 김민규, 손종례, 정석조, 전정애, 정병태, 김영만, 임금단, 김성현, 김창현, 김종국, 오영환, 김영주, 전경준, 김익희, 김중희, 김지철, 오미숙, 김창기, 김인기, 김병률, 고애란, 이우진, 이성환, 고시립, 고영진, 고영준, 고등희, 박경순, 김태영, 김성영, 유순애, 김세영, 김기영, 이병근, 김복순, 이경재, 조종님, 이종원, 이주연, 이형재, 배미숙, 송준명, 김진옥, 송민근, 김형봉, 지경숙, 김민정, 김지연, 이홍기, 김순례, 이호영, 이희정, 이준한, 정진순, 최봉순, 김금순, 최영진, 홍선자, 배홍렬, 이용복, 박정희, 이재영, 유혜선, 서계선, 박갑순, 안광수, 안경희, 이예인, 박상구, 장은미, 박두일, 박대일, 안병완, 홍명애, 안수아, 안지혜, 이재석, 유명순, 이진용, 이명숙, 윤재안, 김우용, 김정연, 김재권, 정화순, 김지혜, 김성진, 김봉식, 김정순, 김미애, 김대헌, 정은경, 김준용, 김선희, 정기수, 장안자, 정봉현, 정명진, 권영두, 서삼례, 이우영, 이우길, 이무혁, 이은숙, 박상영, 김정희, 박준호, 박은비, 김지철, 오미숙, 김창기, 김인기, 권영두, 전정기, 박정숙, 전홍진, 장종분, 이재협, 장영주, 이영희, 권오섭, 김미현, 권서영, 권희철, 천정효, 선명희, 천우영, 천교영, 김부한, 정경숙, 김동건, 김민성, 이우리, 정승원, 김정수, 김상곤, 김상아, 김경순, 김라연, 김유빈, 최정용, 박준옥, 박상복, 김복순, 박승준, 황복진, 장금덕, 황정구, 정유경, 황병인, 황병선, 박정재, 문정수, 정재득, 장유정, 정봉주, 정현주, 최종렬, 정인옥, 최재영, 최재혁, 정영진, 정경미, 최소휴, 유태희, 최인영, 정상현, 김미자, 정순범, 이동헌, 윤성원, 이유민, 박병규, 김덕희, 박종석, 신미경, 박수현, 박현석, 박진희, 허종필, 황점순, 허성문, 허현숙, 이현국, 서옥자, 이장우, 이경희, 이서운, 좌정길, 송연우, 좌승철, 정선영, 김경표, 좌순애, 김병준, 이승훈, 김문주, 이소미, 이다현, 이병창, 김미경, 이유진, 이동원, 강인구, 이문자, 강병헌, 강연주, 김현태, 김명희, 김유빈, 김도경, 이동익, 심명진, 이지은, 이현석, 이종인, 이향임, 이선화, 이순호, 박종덕, 이선미, 이쌍영, 이쌍윤, 이창준, 정봉근, 정영현, 김창환, 김혜숙, 오영환, 김종국, 김영주, 전경준, 김익희, 김중희, 김명희, 김병언, 전진희, 김성은, 김동빈, 김경화, 권혁철, 김수미, 권순범, 권순원, 최영준, 홍남득, 최호영, 최재영, 최경호, 고경숙, 최원석, 최성중, 고영산, 진동화, 김민식, 편철우, 전성기, 박정숙, 전홍진, 곽상태, 곽병태, 최경희, 조영숙, 조덕승, 조아라, 조병철, 나형암, 박정은, 나수진, 박영환, 김종락, 김춘록, 김예송, 김예은, 이승훈, 조구웅, 염영걸, 노연금, 김봉자, 이교관, 이유진, 이정은, 김호균, 김예진, 박교식, 김금란, 박환일, 박환국, 최준성, 홍영숙, 송석구, 김복진, 송재영, 송윤채, 김문영, 송진영, 송혜리, 송희숙, 김창득, 김한순, 김종미, 강희봉, 이삼순, 강현홍, 이유성, 유순기, 이형준, 이은선, 송순덕, 황옥례, 임공남, 장용식, 송석옥, 장경운, 권길우, 홍숙희, 권순범, 김지원, 권순혜, 김준서, 홍창규, 김윤지, 홍기석, 홍형규, 윤한준, 김순득, 윤진희, 윤제호, 김선녀, 이숙영, 김종록, 목선이, 김유승, 육은이, 김중수, 김세원, 김선정, 박상열, 김예현, 김소현, 김종훈, 박종순, 김문영, 이순희, 김정은, 홍승배, 김지영, 홍수진, 홍서영, 이옥진, 김금순, 김만준, 염정자, 최봉춘, 최명진, 박옥순, 류정민, 류창한, 이진희, 류경엽, 류소연, 박지호, 우임숙, 박상언, 박수영, 류호우, 김상규, 김호영, 이태국, 이상현, 박창영 ● 천태종 신도 : 이창석, 강태순, 이재완, 이희연, 이준영, 이현지 ● 대전 오득영 법사님 : 이동훈, 오정순, 김금순, 강희중, 신동원, 신현섭, 김수열, 윤금례,오득영, 황일서, 오지윤, 오혜진, 오혜숙, 박희석, 이남수, 박상용, 박지영, 이석분, 박희재, 김재용, 박순미, 정석호, 정택규, 최진경, 최진영, 최진주, 최주영, 나종성, 김선이, 황광서, 강교선, 오경진, 강연교, 양득석, 이귀숙, 조성남, 양승균, 양수진, 이기창, 임남옥, 이용욱, 이소영, 김학덕, 김진실, 심혜옥, 황태협, 유귀현, 황동규, 황수연, 황수진, 김정애, 유민숙, 오경근, 오성근, 이영희, 최임성, 문정순, 최근영, 최혜영, 김선이, 박미정, 나종성, 최창현, 정영숙, 최정훈, 최수진, 최종석, 정영희, 김영자, 윤석빈, 윤진희, 박인수, 강남길, 권옥자 ● 보현불교대학 : 김재복, 김혜순, 현정미, 현미란, 현재란, 이경화, 곽점순, 송순섭, 조경호, 송구빈, 송석기, 송현주, 한필동, 이화섭, 안남순, 이은옥, 이종모, 유경표, 이두원, 박구현, 전은숙, 장대원행, 여창구, 강선규, 박하나, 이송순, 김세화, 김승엽, 박연희, 김창수, 조용길, 곽채영, 김동례, 윤재현, 윤준영, 나상만, 나윤권, 김을중, 유효임, 송성모, 김홍섭, 박미임, 김혜연, 최삼규, 송좌빈, 박광복 영가, 임양숙 영가, 최중복 영가, 박수경 영가, 송세근 영가

◆ 문의 및 접수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사무국 02)969-2410
◆ 1인 1등 1만원 계좌번호 : 우체국 010983-01-003730 (예금주 : 몽골고려촌후원회)
◆ 500등 이상 권선하시는 불자님께는 몽골정부 초청으로 3박 4일 왕복 항공료가 나옵니다.
◆ 몽골 불자들은 고려사와 구르도바보취 노스님 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LA LUMIERE DE L' EXTREME-ORIENT

exposition de lanternes traditionnelles de "hanji" 동방의 불빛

"샹들리에 보다 화려한 한지 전통등의 멋에 흠뻑 빠졌어요"



2005 파리 한지문화제

곱고 은은한 빛깔 속에 한국의 사상과 한국인의 심성을 담아 천년을 간직하는 한지. 최근에는 옷, 등, 인형 등 한지공예로 다시 생명력을 부여받고 있는 한지(韓紙)의 멋을 살린 전통등(燈)이 프랑스 파리로 첫 나들이를 떠났다. 3월 10일부터 4월 4일까지 파리 외곽에 위치한 루이비통그룹의 아클리마타시옹 공원에서 열리는 '2005 파리 한지문화제'에서 아름답고 질긴 멋을 뽐내기 위해서다.

(사)한지개발원(이사장 이창복)과 한불문화교류협회(Echos de la Coree, 회장 이미아)가 주관하는 파리 한지문화제는 한국의 전통한지등 전시회를 비롯해 개막식 특별행사로 열린 한지패션쇼, 이야기가 있는 닥종이 인형전, 한지의상전, 한지대표작가 초대전 등의 전시회와 '한국의 종이-한지'를 주제로 한 세미나, 한지공예 체험, 한지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지개발원 · 한불문화교류원 주관
연등축제 노하우 유럽인들에 선사
한지와 한국불교 우수성 알리는 계기

한지공예품들은 첫 유럽 나들이라는 신선한 이미지가 맞물려 개막부터 프랑스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문화제에서 가장 눈길을 끈 프로그램은 '상생의 불빛-한국의 색'을 표현한 전통한지등전.

프랑스 인사와 국내 인사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0일 오후 7시 공원내 징가로 극장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주철기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 이창복 (주)한지개발원 이사장 등이 점등버튼을 누르자 공원 위에 설치된 전통등이 환하게 불을 밝혔다. 형형색색의 등이 점등되는 장면을 모니터로 지켜보던 관객들은 "트레비앙(Tres bien, 최고)!"을 외치며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다.

'고구려'와 구전설화를 담은 '한국이야기', 물밀듯이 들어온 서구문명의 홍수속에서도 잘 간직되어온 한국 전통의 특색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것들'로 나누어 소개된 전통등은 모두 26종. 수렵무사등, 사신도등, 삼족오등, 장산곶매등, 호랑이등, 도깨비등, 주마등, 거북등, 잉어등, 해태등, 학등, 종등, 장승등, 연꽃등, 귀면등 등. 출품된 등들은 10여년간 진행된 연등축제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살려 제작된 전통등으로, 전통등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온 전통등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영일(전영일공방 대표)씨의 작품이다.



전영일씨는 전시회 현장에서 전통등에 호기심을 관객들은 한국의 전통에 대한 신비감을 질문으로 쏟아냈다고 현지분위기를 전했다. 프랑스인들이 전통등을 바라보며 관심을 보일 때마다 전씨는 "등은 불교에서 이어져 내려온 전통으로 한국의 역사와 함께 하며 가장 한국적인 멋을 품고 있다"며 한국불교문화를 설명했다. 그래서 그는 파리 한지문화제를 "단아하면서도 화려한 한국과 불교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는 무대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뜻 깊은 자리"라고 평가했다.

이번 문화제에는 전영일, 현재열, 소빈, 곽현주, 권혁근 한지공예가를 비롯 김현태 상지대 공예학과 교수, 김진희 한지개발원 사무국장, 이미아 파리 이브리대학 교수 등 한국의 한지 · 전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문화제에 선보인 한지와 각종 공예품들은 중국의 '선지'와 일본의 '화지'보다 품질과 디자인이 월등히 좋다는 평가를 받아 유럽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한지가 유럽인들의 시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맞은 것이다.

특히 문화제가 열리는 공원을 아름드리 수놓고 있는 각양각색의 전통등은 관람객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이끌어냈다.

여기에 이번 문화제는 유럽에서의 동양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려 한국의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소개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 서울시가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해 2002년 파리시에 기증한 아클리마타시옹 공원내 서울공원을 아름드리 수놓고 있는 각양각색의 전통등은 관람객들의 찬사를 이끌어내며 한국불교문화의 세계화에 희망의 불씨를 당겼다.

프랑스 현지언론도 전통등과 한지공예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주간지 <누벨 옵세르바 퇴르>는 가장 먼저 전통등을 소개하고 전통등에 반한 프랑스인들의 반응을 소개했으며, <피가로스코프>지도 "한국의 전통종이가 프랑스를 마술로 빠져들게 한다"며 전통등 전시회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라신코레엔느>지는 파리 한지문화제를 "절대적으로 봐야하는 전시"라고 홍보했을 정도다. 이 외에도 텔레비전 채널1, 2, 3이 "아침의 나라의 전통적인 괴물들을 모티브로 한 등들이 환상적"이라며 극찬했다.

글=박봉영 기자 · 사진제공=전영일 공방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 소림사, 용문석굴 순례 5일
여행경비 :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 자	교 통	일 정
1 일	CZ686 CZ3962	12시 인천 공항 출발/대련 도착 송산사 순례 및 대련 관광/정주로 이동
2 일	전용버스	개봉-용정, 철탑, 포공사 관광
3 일	전용버스	소림사, 탑림, 백마사 순례
4 일	CZ3961	중국의 3대석굴인 용문석굴 순례 대련으로 이동/러시아 거리 관광
5 일	CZ685	08시 30분 대련 출발/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팁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호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 (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와불사, 담저사, 옹화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청도 태산 곡부 6일 (천불동, 영암사, 잠산사) 목요일 출발 ₩ 420,000원
•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팁 불포함

중국의 6대조를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 자	교 통	일 정
1 일	CZ338	14시 30분 인천 출발/광주 휴식
2 일	전용버스	소관으로 이동-남화선사, 용문사 순례
3 일	전용버스	서초산으로 이동-남해관음, 사방죽원, 문화원 순례
4 일	전용버스	심천-소인국 민속촌 관광
5 일	CZ337	09시 30분 광주출발 / 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팁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경전 함께 읽으면 세상이 밝아져요"

수원포교당 '법공양 생활화' 운동 새 신행코드로

3월 22일 수원포교당. 반야회 정기법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하나둘 <불교성전>을 가방에서 꺼낸다. 삼귀의로 법회가 시작된 뒤 '법공양'을 일러주는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박하원 반야회장이 <우리말 불교성전(동국역경원 刊)>을 들고 앞으로 나왔다.

"오늘은 <불교성전> 154페이지 '괴로움을 없애려면'을 법공양으로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법회에 참석한 대중이 박하원 회장을 따라 봉송하기를 5분여, 분위기가 한결 경건해졌다.


수원포교당 종무원들이 업무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공양'을 올리고 있다.

"요즘 우리집 아들 녀석이 친구들과 다퉈 남모르게 고민을 해왔던 모양입니다. 함께 등산을 갔다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군요. 다음날 가족들과 아침밥을 먹으면서 함께 이 경구를 독송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큰 목소리로 인사하면서 학교에 가더군요. 저도 무겁던 마음이 쏴아 내려가는 기분이 들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골라봤습니다."

이날의 경구를 고른 동기를 밝힌 박 회장의 설명을 듣고 대중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중공사 시간, 이날 '법공양'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다. 비슷한 경우를 겪은 권용애 씨도 가정에서 '법공양'을 실천하고 있다.

"일요일마다 가족이 함께 <불교성전>을 읽고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진 지 3개월이 지나면서 남편과 아이들이 가정에 충실해진 것을 느껴요. 신도들도 예전보다 더 환희심을 일으키는 모습이 역력하구요."

'법공양'을 올리는 모습은 요즘 수원포교당의 모든 행사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다. 40여 신행단체와 신도회의 정기법회를 비롯해 각종 행사, 회의 등 크고 작은 의식과 불사, 일상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말씀을 봉송한 뒤라야 시작된다. 신도들이 돌아가면서 법공양을 올리고 대중이 함께 봉송하는 형태다.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 스님의 발의로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법공양을 생활화하자'는 캠페인은 대중 스님, 종무원, 신도들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수원포교당이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수원 서호노인복지관과 청주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경찰대 법당 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가정에까지 번져 나갔다. 성관 스님은 <불교성전> 읽기를 새로운 신행문화로 권장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찾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법공양이면서 불교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불교성전>을 읽음으로써 신앙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불자들을 온전히 불교에 귀의시킬 수도 있어요."

홍광희 신도회 부회장은 "이 운동의 포인트는 불교를 생활 속으로 가져오는데 있다"고 강조한다. 10년동안 절에 다니고도 불교를 모른다고 말하는 불자들도 <불교성전>을 자꾸 대하다보면 모든 일을 부처님 말씀에 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홍부회장은 '법공양 생활화'가 뿌리내린 요즘, 가정과 집안에서 예전에는 몰랐던 재미를 맛보고 살아간다고 했다. 늘 <불교성전>을 읽다보니 새로운 삶을 얻은 것 같은 만족감과 자신의 긍정적인 변화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경찰불자 '승진바람' 경사났네!

치안정감·총경 등 경감이상 15명 "부처님 은혜"

대한민국경찰불교회(회장 한진호 · 경찰청 정보국장) 소속 경찰불자 상당수가 1~2월 있었던 경찰 승진예정자 발표 및 정기인사에서 승진 · 전보됐다. 특히 경감 이상 고위급 간부회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져 경찰불자들의 신행활동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경찰청 불교회장을 지낸 이택순 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되면서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데 이어 경찰청 불교회 박재진 회장이 총경으로 승진돼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으로 보직됐으며, 이만형 수석부회장도 경정으로 진급돼 전남지방경찰청으로 전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 정은식 회장과 정인식 前 회장도 나란히 총경 승진후보자 명단에 올랐다. 정인식 前 회장은 경찰종합학교 교무과장으로 전보된 후 종합학교 불교회장을 맡았다.

정기인사에서 회장단과 집행부가 상당수 전보된 불교회들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등 조직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는 임승택 경비1과장과 조계훈 112지령계장을 각각 새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충남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 불교회도 각각 이기병 인사계장과 진계숙 여성청소년계장을 회장으로 뽑았다.

다음은 경감 이상 승진 또는 승진예정된 경찰불자들의 명단이다.

△치안정감: 이택순 경기지방경찰청장

△총경: 박재진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정은식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지도관, 정인식 경찰종합학교 교무과장

△경정: 강복순 관악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이만형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과장, 김호철 경기 구리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이병춘 인천지방경찰청, 황인옥 전남 영암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김성조 경북 칠곡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최재만 울산지방경찰청 불교회장

△경감: 강맹순 경기 광명경찰서, 노철수 강원지방경찰청 정보통신2담당관, 이규천 충북지방경찰청, 이을수 충남 홍성경찰서 경무과장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3월 19~20일 대전 토지공사연수원에서 제2차 총무단 회의를 열었다.

'봉사의 날' 2회로 늘려

공불련 총무단회의서 결의

최대 직장 신행단체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세호)가 소속단체간 '밀고 끌어주기'식 협력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공불련은 3월 19~20일 대전 한국토지공사 연수원에서 제2차 총무단회의를 열고 활동이 미약한 공무원불자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속 불자회의 활동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불자모임이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근기관 및 상급기관의 지원을 통해 불자회 창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불련은 또 소속 불자회 활성화를 위해 불자회내 공부모임과 찬불가 배우기, 목탁 습의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기존의 법회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법회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공무원불자 봉사의 날(11월 26일)'은 연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지역내 봉사활동도 상시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번 총무단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6월 수계법회 봉행(양산 통도사) △7월~9월 해외 성지순례(중국 돈황) △창립 5주년 기념법회 봉행(대전 광수사) 등을 차질없이 개최해 공무원불자들의 결속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송도근 공불련 사무총장(과천청사불자연합회장)은 회향식에서 "올해로 창립 5주년을 맞은 공불련이 내실있는 신행단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소속단체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각 도청 및 광역시청의 주도 아래 산하기관의 신행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총무단회의에는 송도근 공불련 사무총장, 정상현 춘천시청 도반회장, 장광대 울산광역시청 불자회장 등 40여단체의 회장 및 총무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봉영 기자

우리단체 이사람

조계훈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장



개인신행 독려하며 단체 특성화에 몰두

서울지방경찰청 법당에 팔상탱화를 봉안하는 법회가 열린 3월 23일, 조계훈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장(49 · 112지령계장 · 사진)이 좌석 배치에 열중하고 있었다. 법회가 시작되기 한시간 전부터 법당에 찾아와 법회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장 선출 후 열리는 첫 행사라 각별히 신경이 쓰인 탓이다.

조계훈 회장은 "회원들이 고된 직장생활 가운데에서 신행활동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발을 이렇게 내디뎠다.

"불교회장은 회원들의 신앙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관내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불자들이 신앙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고된 업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수사계통에서 일했던 조회장은 바쁜 일과로 인해 법당을 찾을 기회가 거의 없어 법명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불교회 활동을 할 기회도 그만큼 늦게 찾아왔다. 서울지방경찰청 본청으로 전보 명령을 받은 지난해 7월 곧바로 불교회부터 가입했다. 어렸을적 자식을 위해 부처님전에 정성껏 기도를 하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대시절 20리를 걸어서 찾아간 법당에서 경전을 외던 아련한 추억이 그를 자연스럽게 불교회로 이끌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소극적이고 조직적이지 못한 모습이 늘 아쉬웠다"는 조회장은 "개인수행을 중시하고 인정이 넘치는 불교회만의 특징을 살려나감으로써 단점을 극복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내보였다.

이를 위해서 조회장은 회원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매주 한차례 열리는 교리강좌, 정기법회 외에 각종 기도와 찬불가 등을 새롭게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통해 사무실이든 가정이든 업무현장이든 회원들의 생활 속으로 불교를 스며들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박봉영 기자

언불련 새 집행부 구성

정기법회 활성화 등 활동 재개

언론사불자연합회가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언론사불자연합회(회장 이연재 · MBC 보도전략팀장)는 3월 17일 부회장에 김태호 한국방송(KBS) 불교연구회장과 김종두 경향신문 불자회장을 임명했다. 또 대표총무에 최종라 MBC 불교연구회 총무를, 총무에 이태전 서울방송(SBS) 불교회 총무와 유기정 경향신문 불자회 총무를, 홍보간사에 김도만 KBS 불교연구회 홍보부장을 임명했다.

이 밖에도 새 집행부를 지도할 고문에는 박영석, 김진평, 정종철(이상 KBS), 류자효, 박준영(이상 SBS), 강신철(경향신문), 장영효, 류희근, 황진욱(이상 MBC)씨를 선임했으며, 감사에 허원제 SBS 불교회장을 인선했다.

한편 언론사불자연합회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 정오 열리던 정기법회의 시간을 저녁 7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정동) 불자회와 SBS(목동) 불교회가 그동안 시간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데 따른 조치다. 박봉영 기자

중국 오대산, 운강석굴 순례

문수보살의 도량 오대산과 중국 3대 석굴 중 하나인 운강석굴, 중국 최고의 목탑인 응현목탑 등을 전세기편으로 가장 편리하고 알차게 다녀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좌석 관계로 60분만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전세기 특별가 4박 5일 69만원

● 출발일 : 4월 30일 ~ 5월 4일 (4박 5일)

●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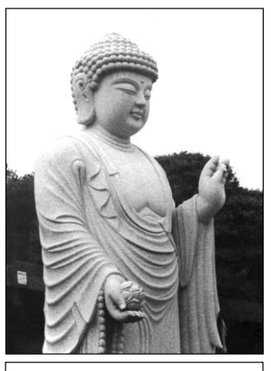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제 1일 4/30(토)	인 천 태 원	항공 22:50 23:50	인천공항 집결 / 출국 수속 후 인천공항 출발, 중국의 태원 도착 후 호텔로 이동
제 2일 5/1(일)	태 원 오대산	전용차량	호텔투숙 / 조식 후 오대산으로 이동, 도중에 불광사, 불공삼장이 건립한 금각사, 장엄한 일주문이 있는 용천사 참배
제 3일 5/2(월)	오대산	전용차량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한 중대 등정, 천년고찰 현통사, 보살정, 탑원사,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조성한 수상사, 오대문수보살을 모신 대라정 등 참배
제 4일 5/3(화)	오대산 대 동	전용차량	오대산 출발 중국 최고의 응현목탑, 현공사 순례 후 대동 도착, 중국 3대 석굴 중 하나인 운강석굴 순례 후 호텔 투숙
제 5일 5/4(수)	대 동 태 원 인 천	항공 19:00 22:00	대동출발 / 태원 도착 후 고색 창연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모신 숭선사, 진사 등 순례 후 태원 출발 / 인천 도착

■ 구비서류 – 여권만 제출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분은 연장해야 합니다)

■ 여권 없는 분은 여권용 사진 2매, 주민등록증 원본, 주민등록등본 1통, 인지대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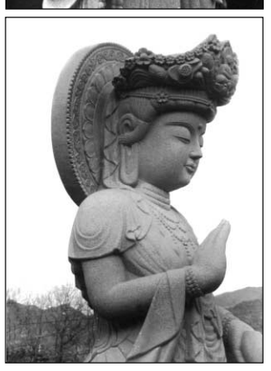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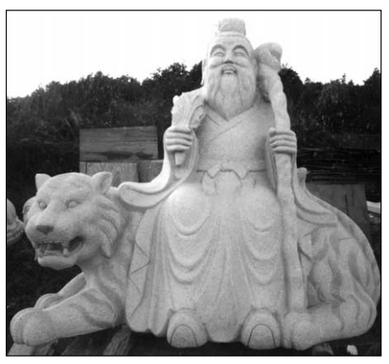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최면개인지도
그동안 최면을 배우긴 했으나 활용치 못하시는 분들
전생, 빙의치유, 각종질병, 우울증, 비행청소년 교정
사찰을 비롯 수가 없는 스님들, 배울곳이 원거리에 있어서 등 여러조건이 여의치 못하시는 분들께 본인이 전국어디든 출장하여 상주하면서 확실히 완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011-597-6700

믿음과 신뢰의 40년 전통
보문불교서점
대전시 동구 중동 27-7 (홍명상가 제일은행 뒤)
전화 : 042)257-0161, 253-6446
취급품목
● 1층/서적부 : 불교, 한의, 역학, 지리, 승복, 법복, 염주, 불교음반, 한방의료기, 녹차, 다구, 카렌다, 불교용품, 도소매
● 2층/용품부 : 불상, 탱화조성, 개금, 범종불사, 인등, 고급유기, 경상, 불전함, 영가옷, 농악기, 행사 용품 제작

영남범음범패
천도재, 49재, 수륙재
바라 · 나비무, 회심곡, 호적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학인스님 모집. 부산범음범패연수원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 사 문 의
011-869-8560 진우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천도재 49재	정안식	용왕산신재	바라나비춤	상가염불	천도시식전문	명리주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역학으로 영가 보는법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육임역학 비법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3)551-1356(011-1763-3567)

창업하실분
일년 200만의 시험생과 취업 준비생이 당신을 기다리는 사업
인터넷쇼핑몰 겸 매장판매
SBS 이색상품 방영. 발명특허 출원제품
참조 www.bujukshop.com
011-537-1739

해외포교사 지망생모집
자혜불교회 삼우스님은 미국/캐나다 주류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포교사 지망생을 모집함
● 자격 :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영어기초실력이 있는자로 18세~40세 미만 남녀
● 문의 : 010-4619-8922, (시카고) 773-528-8685

禪 비법 강의
청안락 하십니까? 강호 제현님들이여 뭇광고에 접해보면 생각과 많이 다르지요 이곳에 오시면 속지 않을것입니다 배우면 스님! 불사에 만락하실겁니다
● 강의내용 : 귀신보는법(빙의, 사주학) 돌아가신 조상님을 직접만나는법 산소풍수법(간단함) 산소 속을 직접본다 (강의시간: 5시간)
010-3189-3525 토굴산승 합장
(경기 강원 지역 스님 방부 됨)

안일념 역학연구원
역학 개인지도, 인생상담
명리학,구성학,육효,관상학,성명학
031)901-8425
031)902-8425

숫자와 운명 개인지도
못사는 방법이 한가지라면 잘사는 방법은 10가지이다.
의 저서 직-강의
아울러 각 길 흉 事
(사: 개운 반운법 및 다수 등...)
대처 방편술(예방비법)도 함께 전이 합니다.
031)633-1517

수강생 모집
주역원전강좌
● 3월2일 개강 매주(수) 오후 7-9시
● 4월6일 개강 매주(수) 오전 11-1시
● 회비 : 6만원
● 기타 : 오운육기론 (화) 오후 7-9시 대학소주 (월) 오후 5-7시
사단법인 동방문화진흥회
02)2237-9137, 8970

희귀 난치병(암) 영가 장애 치유
불교와 최면의 절묘한 조화
성 원 사
02)845-4301

대구승복사
스님께 좋은 웃음, 불교용품 일체
대전시 동구 원동 62-2 (패션 104 뒤)
일터 042)254-8776, 8772
010-4455-1798
011-407-4305
맑고 향기롭게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초파일 연등을 만들어 드립니다
010-3170-8948

기도 부전스님 구함
(비구 비구니) 천연고찰
보시는 상담 후 결정
연령 제한 없음
▷ 경남 양산
011-595-5121

공양주 보살님 사무장. 행자 모십니다
▷ 경기도 평택 조계종 사찰
011-9150-919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포항 자장암.천년기도도량
011-584-0888
054)285-0129

조용한 암자에서 불심이 돈독한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 천안
041)567-5085
011-337-3991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 가평
011-9723-0967

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을 모십니다
▷ 경북 청도
011-9493-0002
016-9870-2388

행 자 모 심
(스님이 되실분,50세이하)
경북 칠곡군 지천면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황 룡 사
종무실 054)972-3174
종무실장 011-9942-247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부산소재 전통사찰
051)508-5165
051)508-5033

부전스님 구합니다
010-2202-8090

스님입니다
자가용을 무료로 주실 분.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6-601-3709

부전스님 모십니다
▷ 서울
011-9081-0034
02)971-7366

부전스님 모십니다
▷ 대전
042)282-9270

성실하고 신심깊은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기도 고양시
011-9062-4002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0~60대. 지리산
011-483-5639

동자, 행자승,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 포항시 남구
054)274-9443
011-517-6099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립니다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안에 맞추면 입금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안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3월 22일(화), 24일(목) 개강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전국 제 1의 불교대학 · 체계적인 교육
▶주 · 야간반 선착순
- 3월 22일(화)-주간반, 24일(목)
- 주 · 야간반 각 요일 선택. 주 1회
- 불교 TV 금강경강의,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큰스님들의 특별 법문
출가 학교 및 행자 모집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 인터넷방송국,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문의-대구큰절: (053)474-8228, 경산도량: 811-0337, 칠곡도량: 312-8221
인터넷 홈페이지 : www.TVbuddha.co.kr

해외 포교에 관심있는 분 모심
한국 사찰로서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종교국으로 부터 설립 허가를 득한 사찰입니다. 한국인이 제일 많고 한국기업만 10,000여개의 회사가 상주한 중국 청도에서포교의 꿈을 실현 할 비구 스님을 모십니다.
● 해외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
● 이력서, 자기소개서 FAX로 제출
FAX : 031)906-5108 / 전화 : 031)901-1954

낙태(유산)아 무보시 1000일 천도대법회
● 일시 : 매주 목요일(오전 10시) 수자영가 기도
● 기도비 무료(당일 대중공양 보시)
● 접수 : 지혜정사 종무실, 수성포교원 지혜선원
● 문의전화 : 054)975-7766, 0104, 053)752-0108
● 장소(위치) : 팔공산 한티재입구 기성삼거리
※ 태영가 추모탑 건립을 위하여 동참하시는 불자님께는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보시합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05번지
한국불교태고종 정법수행정진도량 팔공산 지혜정사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시스템
웰빙난방 기존 난방비의 70% 절감
설치하면 좋은곳
법당, 요사채, 선방, 유치원, 식당 오피스텔, 기숙사, 가든, 고시원 상가
이런점이 좋습니다
① 간편한 시공 ② 경제적 시공 ③ 쾌적한 난방 ④ 건강한 난방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을 시공한 사찰전문 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 본사 : 유성바이오텍(주)
● 제품 : 미국칼로구사 직수입품입니다.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로얄제리 프로폴리스를 권합니다
소승은 전남 보성 회천에서 직접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기미, 당뇨, 관기지, 변비, 만성위염 .....
꿀벌이 만들어낸 천연건강식품, 강력한 항생, 항균작용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016-779-2237 일림사 성구 스님 합장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지 / 저서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禪법문!



바로보인 전등록 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5권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권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6권까지)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냄새, 물 걱정없는...
포세식 양변기 이동화장실

포세식 이란 디지털 제어방식으로 거품을 이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변기로서 네코놀이라는 무공해 특수세제와 물에 의해 24시간 하얀 거품이 생산되어 변기내부를 깨끗이 씻어내립니다. 변기에서 흘러내린 거품은 변조탱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파리 구더기등을 완전히 방지하며 농작물에도 무해합니다.



특징
● 정화조 상하수도 시설이 필요없다
● 동파방지시설 내장
● 우드형이라 자연과 잘어울림



넥스토-2 FRP 이중단열
● 규격 : 2150×1200×3050(H)
● 분뇨탱크용량 : 2500L
● 가격 : 4,500,000원

넥스토-3 FRP 이중단열
● 규격 : 3200×1200×3050(H)
● 분뇨탱크용량 : 3700L
● 가격 : 6,400,000원

넥스토 특판사업부 032)466-3423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

" 영가천도의 중요성 "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1334-9490, 334-9491 야간 : 0311706-3060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사 찰 안 내

- 사찰 및 납골당 부지 -
- 위치 : 대전
- 부지 : 15,800평
- 가액 : 평당 60만원
- 시내접하고 작은산에 있으며 건축허가 가능한 최적지임

- 위치 : 부산
- 법당 : 24평
- 요사 : 50평
- 부지 : 300평
- 가액 : 3억 6천

- 위치 : 경기
- 법당 : 15평
- 요사 : 21평
- 부지 : 800평
- 가액 : 7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해 드립니다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 서울 ① 8억(대250/건138) ② 5억5천(대175/건90)
- 경기 ③ 9억(840/건383) ④ 9억(700/건180) ⑤ 2억5천
- 원주 ⑥ 토굴8천 ⑦고찰2억2천(1000/63) ⑧ 납골당25억(대4만평/건210평)
- ⑨ 납골당부지3억(대24000평) ⑩ 절터관악산계곡20억(2085평)
- 안양보 3천원80 (70평) 수원보 2천원100 (65평옥상130)

※ 사찰, 사찰터 다양보유, 공양주 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제주도 땅 안내

- 위치 : 제 주 도
- 토지, 임야, 별장지
- 농가주택. 전원주택지
- 사실 분, 파실 분

064)711-1447
011-9773-4414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 대지 : 160평 요사 : 2동
- 밭 : 250평, 임법당
- 법회 즉시 가능 비구니스님 적합
- 가액 : 1억 5천만원

011-9554-5674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갈현동 구산역 부근
- 법당, 식당, 종무실, 주지실구비
- 가액 : 답사 후 결정

행자모집
011-9150-9190

사 찰 안 내

- 경북 시내 한눈에 보임
- 땅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 18평 외 미륵불
- 요사 : 23평, 산신각
- 급매 : 1억4천만원,약수물
- 위치 : 서울
- 부지 : 천평
- 법당 : 12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7천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51)637-5697
011-9542-5726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청 옆
- 대지 : 310평
- 건물 : 3층건물 1동 100평, 슬라브 기와 1동 45평, 부속 건물 1동 10평 (소나무 조경 및 그림같은 포교당)
- 가액 : 6억 8천만원

010-4876-5535
011-877-7677

사찰 안내

- 위치: 밀양시 얼음골
- 총평수 : 전답 임 포함 약 3천7백평
- 가액 : 13억, 현주위시세 평당 30만원

※ 명산,계곡절경,등산객 피서객 항상 많음

010-4876-5535
011-877-7677

사찰안내

- 위치 : 강릉 I · C 부근 천혜의 소나무 자연 조경
- 부지 500평, 노천 미륵 법당
- 법당 30평, 요사 30평, 산신각
- 가액 : 2억 (융자 6천만원 포함)

011-452-8374

지리산 깊은 산중 사찰 (산청과 대원사 중간)

기운이 장하고 전망이 웅혼하며 맥반석계곡에 접한 동남향 명당터. 무문관 수행이 가능한 4개의 방사와 법당외에도 심야전기, 기름 보일러, 황토방이 설치된 여러채의 건물에 총 15개의 방사와 1000여평이 넘는 부지, 만오천평의 임야, 아래마을까지 2.5키로 일체의 소음없고 청정한 기도, 참선도량 가액, 오억원

010-6398-5730, 011-9136-1314

사 찰 안 내

- 위치 : 수원시내
- 대지 : 120평
- 법당 20평, 요사 25평
- 가액 : 7억5천
- 수원 도심 사찰임

- 위치 : 공주시내
- 부지 : 1,200평
- 법당 25평, 요사 40평
- 가액 : 3억5천
- 산세 좋은 도량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수원 시내
- 평수 51평, 건평 50평 2층
- 구조 : 1층 전세 2층 법당 요사 주차가능
- 가액 : 1억 6천(전세포함)

031)254-6425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남구 무고1동 단독주택 독채
- 방3, 거실, 화장실, 창고, 텃밭, 법당, 삼존불, 산신, 용왕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6373-7260
016-429-2820
052)223-2823

사 찰 안 내

- 위치: 광진구 구의역5분거리 구의시장옆 대로변 3분거리
- 평수 : 대지 50평,평당 750만원
- 특징: 최신 리모델링 시설, 기와지붕

02)3437-9773
010-4726-9773

경관 수려한 사찰을 원하십니까!!

- 위치 : 경산 와촌면 음양리
- 대지 : 총부지 813평 (대지 200평, 주차장 613평, 공터 200평) ● 건물 : 건축물 45평
- 전체부지를 자연적으로 조성됨
- 특징 : 본존불, 탱화 (고려시대 고불과 똑같이 조성)
- 가액 : 3억 2천만원 가능 (융자 6500만원 포함)
- 부동산 중계업자 전화사절

011-9378-563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소재
- 부지 : 약 1,000평
- 법당 : 30평(구한옥, 단청)
- 요사채 : 40평(신축)
- 가액 : 1억 7천만원
- 특징 : 도심 인근의 조용한 사찰로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적합

- 위치 : 울산광역시 소재
- 부지 : 약 70평
- 법당 : 35평(2층)
- 요사채 : 35평(1층)
- 기타 : 산신각, 용왕당 10평(3층)
- 가액 : 1억9천
- 특징 : 신시가지에 위치한 도심사찰로 포교지로 아주 좋음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상남면
- 대지 50평, 건평20평
- 수라히여 깨끗함
- 가액 : 2천 7백만원

055)391-3799
011-9207-2488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 평수 : 120평
- 가액 : 4천 8백만원
- 임법당1, 방2개, 주방1 집기일체

011-462-527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인천 서구
- 15년된 포교당 3층중 3층
- 평수: 70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66만원
- 시설A급(답사 후 절충)

011-253-7729

사찰안내

- 위치 : 통영시 근교
- 총면적 약 5500평 법당 약 20평, 칠성각 약 10평 산신각 1동, 요사채 목조1동 15평, 양옥 1동 30평
- 계곡청정한 고찰
- 가액: 2억5천

055)637-5927

사찰 겸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 부천역사 2분거리 시장유동인구 밀집지역 2층 30평
- 법당1개,방2개,거실욕실,도시가스,살림해결 금불상, 삼존불, 법단2단 13자목조각 완벽함.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5만원. 시설비 1천3백만원
- 주차 80% 주인직거래

011-650-8481
032-667-8485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근교
- 부지: 283평
- 법당: 20평
- 요사채: 300평
- 가액: 3억5천
- 조용한 근교암자

- 위치: 청송
- 부지: 300평
- 법당: 30평
- 요사채: 20평
- 가액: 2억5천
- 유명관광지 옆 암자

- 위치: 경주
- 부지: 3천평
- 법당: 15평
- 요사채: 20평
- 가액: 2억5천
- 한적한 산골암자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18-563-9575
동면공인중개사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en

사찰안내

- 위치: 강릉시 옥계면 신축사찰
- 대지 150평 전 430평
- 전세 3000만원 양도가 8500만원

- 위치: 양산시 포교당 35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35만원

055)362-0199
010-7167-3499

사찰,전원주택 최적지

- 위치: 부산 기장군 도로 2차선접 국도연결
- 총 510평 요사채 30평 창고 20평 송림울창
- 가액: 답사후 절충
- 실수요자만 면담요 주인직접

017-567-0362

포교당 안내

불교교양대학 용도로 적합

- 위치: 도봉역 지하철 5분거리
- 건평: 110평 법당: 80평
- 방4개, 시설일체 완비 큰주차장 있음
- 가액: 보증금 9000만원 월 180만원

010-8771-6442

사찰안내

- 위치: 대전시
- 2층 50평 방 5개 주방 및 삼존불
- 각단탱화 법당시설 살림살이 일체를 800만원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 역술을 할 수 있으면 더욱 조건이 좋은곳임. 스님건강상 급하게

011-806-8467

토굴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200평(등기필)
- 전통한옥건물 2동(안채, 사랑채)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됨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 토굴이나 노후 가족 휴양처로 최적의 장소 ● 가액 : 9천만원

041)753-3766

사찰안내(천연동굴)

- 위치 : 강원도 홍천, 횡성 새말근교(각 15분거리)
- 산신각, 천연동굴 15평, 산신백옥불
- 임야 3만평, 답 1천평(군유지사용), 납골당 터 가능, 대웅전, 주지실, 종무실 별도 방2, 주방1, 지장전 15평, 요사채 55평, 방 7개, 부대시설 25평
- 가액 : 7억 5천만원(중계인사절)
- 산새수려하고 기도, 별장용지로도 최적지

011-369-4154

사찰안내

- 위치: 충남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대천시내에서 5분거리
- 부지: 611평
- 2층건물 1층: 48평, 2층법당: 27평
- 산세좋고, 청룡백호, 심야보일러
- 가액: 2억3천만원

041)932-0533
011-9020-6037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 평수: 35평
- 불상 5불 각탱화 모셔져있음
- 가액: 보증금 2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300만원
-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051)524-8108
011-844-9893

포교당 안내

- 위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38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됨
-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380만원(조정가능)
- 덕산온천 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018-601-3389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 신모라 사거리
- 평수: 약 40평
- 전세금: 보증금 3천만, 월 10만 시설비: 절충후 결정
- 교통편리, 아파트 단지 인근 포교최적지로 즉시 입주가

051)317-0011

포교당(급)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충북대 부근 역세권
- 3층건물 중 2층 약 45평
- 시설 : 삼존불, 각단 고급 후불탱화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30만원 또는 300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 최저가 2300만원
- 즉시 입주 법회 가능합

※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요망

016-261-2068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 수성구 범물동
- 3층 중 1층(35평)
- 시설 : 법당, 공양간, 화장실, 뒤뜰(10평),법당내 오승상, 오탱화 모셔져있음
- 특징 : 주변 주차시설 편리 도시가스 에어컨 완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3139-663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진전면
- 대지 : 600평
- 건물 : 요사채(37평) 큰방3개, 주방, 화장실
- 법당 : 대웅전(고건축 신축건물) 22평
- 특징 : 시골 야산 마지막터(산세수려)
- 가액 : 4억 5천(1억7천 융자포함) (답사후가격절충 可)

011-530-8490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서면에서 도보로 10분거리
- 평수 : 60평 5층건물 5층
- 전세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2245-3534

춘천 강촌 검봉산 절터

대지 108평

011-370-5904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 평수 : 600평, 대지402평, 대웅전 33평(삼존불)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 7층석탑, 약수 전망 좋고, 산세 수려하고, 수행과 포교에 적합
- 가액 : 6억 9천

011-9411-5302

토굴 안내

- 위치 : 충남 웅천
- 대지 : 80평 임법당(집기일체)
- 가액 : 1200만원

041)934-4125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산밑으로 마을과는 1km 떨어져 있으며 차가 마당까지 들어오며 수련원으로 이용하였으며 기도원이나 고시입시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물 1동 60평 (인법당, 방7개, 넓은 입식주방, 욕실, 화장실3개) 창고1동, 하우스1동, 심야전기 보일러, 지하 암반약수
- 답사 후 가격절충(전세나 매매)

010-6611-7749
(꼭 하실 스님 만 연락주세요.)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인근섬
- 대지 : 120평, 밭 :200평
- 건물 : 요사채 18평(방4개)
- 법당 : 30평(삼존불, 각단탱화)
- 불심있는 지역으로 포교불사에 관심있는 스님께 적합
- 가액: 1억6천만원(답사후 가액조정 可)

011-9576-1648
054)832-164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용인시내(도심포교최적지)
- 구조: 4층건물 중 4층 42평 옥상사용가. 방4개, 주방, 거실, 화장실, 욕실 법당, 아미타삼존불, 산신각
- 가액: 보증금 4천, 월 1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7-372-8968

포교당(급)안내

- 위치: 울산 남구 신정동 2층 건물중 2층(32평)
- 법당 15평 삼존불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시설비 포함)

052)258-4994

사찰터(급)안내

- 위치 : 오대산 국립공원 근처의 산중사찰. 송강계곡이 울창하고 전망수려
- 면적 : 3만평 (대지 200평)
- 소음없는 청정지역, 산세수려

016-313-9297
(지주 직접)
※ 중개사 사절

사찰터 임야

- 위치 : 경기도 양평 팔당공원 인접 임야
- 평수 : 3만평 (104,033평방미터)
- 가액 : 3억원
- 특징 : 사찰 및 납골당 부지, 준보전 29,752평방미터 허가남

※ 실수요자만 전화요

017-781-0449

포교원 안내

- 위치 : 목동 사거리에서 80m
- 평수 : 25평 2층
-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1천5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2)2648-4401
017-760-6279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즉시입주(법회) 可.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융자 1천 2백만원 포함)

019-503-7959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 부평구 부개1동 (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4층건물 2층내), 법당1, 방2개,후원1개,대중방 포함
- 주차 : 도로상 일렬 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2500만원 (절충가능) (삼존불,영단,복사기,컴퓨터 팩스 etc 집기류 일체)
- 불법홍포와 신심있는 분들을 위해 바로 운영 가능

017-269-2629
032)517-3001

포교당 안내

- 위치: 일산 탄현동 아파트단지 (5만가구)
- 법당: 38평, 삼존불 건물은 상가건물 3층
- 특징: 시설완비, 집기일체, 즉시법회 및 생활가능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는 조정가능 (시설비만 내시고 생활해 보셔도 됨) 이전관계로 급

031)912-2756
016-239-1475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 현재 하우스 전기 전화 가설 계곡에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군 마애불 지방문화재근처
- 부지: 330평
- 가액: 상담후결정

011-742-5925
043)644-1666

해외사찰 안내

- 사찰명 : 고려사 (korea temple)
- 위치 : 인도 비하르 보드가야 (bodhgaya gaya bihar india)
- 대지 : 2천 5백평
- 가액 : 10억

※ 인도불교 4성지 중 깨달음의 땅 부다가야에 한국최초로 세워진 고려사를 인수하여 세계적으로 한국불교를 선양하고 깨어나는 인도의 불교세계화 물결에 따라 세계불교 교류와 함께 21세기 수행과 포교의 참신하고 원력있는 새 주인을 찾습니다.

011-307-3473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부근(한라공대옆)
- 평수 209평, 법당 20평, 삼존불 돌탑부처님(미륵불,약사불, 관세음보살님), 요사채 20평

※ 산세 수려하고 경관 좋음

- 가액 : 2억

033)766-0057
011-471-1996

사찰안내

- 위치: 원주 봉화산
- 총평수 1300평(800평 종교부지) 대웅전 35평, 보궁 25평, 삼성각 5평 미륵대불, 석가탑, 요사채 50평 신축, 심야전기. 정법포교 청정도량. 산세수려한 등산로임
- 가액: 6억3천만원

※꼭 하실분 절충가능

- 큰가람을 이루고자 뜻이 있는분 시세보다 싸게 양도함

010-6213-5949
033)734-3527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금사시장 3층 건물 2층
- 법당, 방2개, 주방, 화장실, 옥상, 창고1개
- 가액 : 전세 보증금 1천만원,월 45만원 시설비(삼존불, 탱화, 인등, 연등, 집기류 일체 포함) 1,500만원. 입주 즉시 법회 가능

051)529-3302
010-6236-2848

'한국 구법승…' 국제 세미나
한국불교연구원, 4월 2일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은 4월 2일 동국대 90주년 기념관 예술극장에서 '한국 구법승들의 중국 내 활동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의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제 수행 차원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중국 불교학계의 대표적 연구자인 로우리이에(樓宇烈) 북경대 교수, 일본의 사토 아츠시(佐藤厚) 박사를 비롯해 정병조 · 김상현 동국대 교수 등 한중 불교교류사 전문가 5명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김상현 교수는 '7 · 8세기 해동구법승들의 중국에서의 활동과 의의'라는 논문에서 한국구법승들을 중국불교 전래 수용자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탈피해 동아시아 불교사상 형성의 중요한 참여자로서 조명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 사토 아츠시 박사는 '입당승 신림과 신라화엄학에서의 위상'을 통해 8세기 중반에 활약했던 신라 화엄학승 신림(神琳)에 대한 본격적 검토를 시도한다. (02)762-5624

가산불교대사림 제7권 출간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은 최근 <가산불교대사림> 제7권을 출간했다. 이번에 나온 제7권은 '무소잉'이라는 표제어로 시작, '바수'까지 4500여 개의 표제어를 포함하고 있다.

<가산불교대사림>은 불교학 용어뿐 아니라 불교관련 인명 · 사찰 · 사지 · 문화재 · 역사적 사건까지 불교 관련 술어를 두루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불교대백과사전으로, 1999년 1 · 2권이 나온 이래 매년 1~2권씩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한자어 · 산스크리트어 · 빠알리어 · 티베트어 등 원어와 원문을 병기하여 전문사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용어 설명은 가급적 쉽게 함으로써 일반적인 용도의 활용도 가능케 배려했다. 총 15권으로 편찬 예정인 <가산불교대사림>에는 15만여 표제어가 실리게 된다. (02)765-9602

'한국불교전서' 제14책 출간

동국대 출판부는 최근 <한국불교전서> 제14책을 출간했다. 이번에 나온 제14책에는 제13책에 이어 통일신라시대 도륜(道倫) 스님이 집찬(集撰)한 <유가론기(瑜伽論記)> 11~20권이 수록됐다.

<유가론기>는 인도의 미륵이 저술하고, 당나라 현장이 번역한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을 도륜 스님이 주석한 것으로, 이 책은 인도 · 중국 및 한국의 유식학계 고승들의 사상을 다양하게 인용하고 있어서 <유가사지론>의 연구에 필수적이며, 유식학 연구의 지침서와 같은 책이다. 현재 14책이 간행된 <한국불교전서>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한국인이 찬술한 불교서적을 집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10책으로 조선편까지 마무리됐고 11권부터는 누락된 자료의 보유편(補遺篇) 성격을 띠고 있다. (02)2260-3483

문화재 절도 '전문화' 암거래 '지능화' 수사는 '제자리'

'전담반' 설치 미룰 수 없다

지난해 성보도난 14 · 회수 4점 … 최근 10년 회수율 6.7%
3월 19일 목포 달성사서 6점 도난, 단서조차 못찾아

"현재의 '담당실'로는 정보관리 · 예방 기능 부족"

3월 19일 새벽 목포 달성사(주지 법정)에서 성보문화재 도난사건이 발생했다. 도난당한 성보는 전남 지방문화재 제229호 목조지장보살반가상을 비롯해 시왕상(초강대왕상) 1위와 판관 2위, 녹사 2위 등 총 6점이다.

지난 2002년에 도난사건(판관 5위와 동자상 1위)이 발생했던 달성사에서 사건이 재발한 데다 지정문화재까지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사찰문화재 도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중 사찰에 소장돼 있는 성보문화재는 절도에 취약하기 마련이다. 2004년 한 해 동안 사찰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만도 제천 정방사 관음보살상(충북 유형문화재 제206호)과 독성 · 나한탱, 경주 금정사 지장탱화, 김천 봉곡사 금악당 부도, 고창 문수사 시왕상 4위, 금강역사상 2위 등 14점에 달한다. 지난 3월 1일경에는 대전 고산사에서 불상 대좌가 없어졌다.

하지만 이 가운데 회수된 것은 고창 문수사의 시왕상 4위에 불과할 정도로 도난당한 문화재를 되찾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문화재범죄에서 범인 검거율은 23.4%, 문화재 회수율은 6.7%(1985~2004)로 일반적인 재산범죄의 검거율 77.9%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검거 · 회수율이 현저하게 낮은 까닭은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문화재범죄를 수사 역량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달성사 도난사건 역시 3~4인의 절도단이 명부전 옆문 창살을 뚫고 들어와 경보기를 차단하고 범행을 저지른,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추정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5일이 지난 24일까지 아무런 단서조차 찾지 못한 채 대흥사와 달성사가 1000만원의 현상금을 걸어놓을 뿐이다.

절도 방법 뿐 아니라 수사망을 피해 문화재를 암거래하는 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포함된 문화재범죄단은 절도한 문화재를 여러 부분으로 분할하거나 제작년도 · 소장처 · 제작자 등을 기록한 화기(畵記)를 소멸하는 등 현상을 변경해 수사를 어렵게 하고, 해외밀반출조직과 연계된 전국적인 비밀유통망을 구축해 점조직을 통해 암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문화재사범의 지능화 · 조직화 경향과 관련해 불교계가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검찰 · 경찰청 내 문화재사범전담반 설치다. 문화재사범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검사와 전담 수사반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전문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전담반을 설치함으로써 도난문화재의 안전한 회수에 초점을 맞춘 수사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고, 평소 문화재사범 동향과 음성적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 · 관리함으로써 절도범의 활동을 대폭 위축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검찰에는 문화재사건담당실에서 문화재 사건을 맡고 있지만, 다른 많은 사건 수사도 병행하고 있어 문화재 사건에만 집중할 수 없는 형편이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문화재범죄를 예방하는 기능까지 기대하기 어렵고, 도난 사건에 대처하는 신속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난 문화재는 해외로 밀반출 될 위험이 커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 수 없다.

문화재사범전담반을 검찰 내에 설치하는 것이 도난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전담반이 생긴다면 도난사건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도 "일반 범죄 건수가 연간 100만여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담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업무의 과중함보다도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나 검찰의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조계종 문화부 박상준 계장은 "문화재는 도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할 충분한 가치를 갖는 공동의 자산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담당검사, 사무인력, 수사인력 약간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하면 예산증가요인 없이도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엽 · 박익순 기자



▌달성사 목조지장보살반가상은?

임란전 조성 현존 유일
성보 조각사 연구 귀중자료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는 유일하게 현존하는 반가상 형태의 지장보살상으로 민머리에 눈과 눈썹, 코와 입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돼 있는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1565년(명종 20년)에 남평(나주) 응점사(운흥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전남 지방문화재 제229호.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8>

업의 과학

업이라는 용어만큼 불교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도 많지 않다. 또한 종교에 관계없이 우리의 생활에 깊이 녹아 있는 말도 흔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만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도 없을 것이다. 업의 인도 말은 카르마다. 아마 의도된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결과를 일컬어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순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인도인들의 냄새가 배어 있는 말이다. 현재의 행동의 결과나 반드시 나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도덕적인 인과론이 포함된 말일 것이다.

과연 나의 의도에 의한 행동의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남을 돕고 나면, 아무리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뿌듯한 행복감을 느낀다.

남을 괴롭히고 난 후, 아무리 승리의 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허무감과 자괴는 남는 법이다.

이와 같은 선업과 악업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과학은 이러한 질문에 몇 가지 단초를 제공한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뱀을 싫어하는 이유에는 아마도 수 백 만년 동안 뱀으로 대표되는 파충류와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받았던 고통이 녹아 있을 것이다. 소름이 끼치는 행동(業)에는 긴장하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하는 것이며, 이 효소의 분비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는 메모리 장치인 DNA에 저장된 명령의 결과이다.

다른 예를 들기로 하자. 침을 뱉고 나면 더럽게 느낀다. 방금 전 자기의 입에 있었던 것이 데도 말이다. 흔히 사람들은 이와 같이 더럽고 깨끗한 것이 마음먹기 달렸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더 깊은 업의 법칙이 숨어 있다. 일단 나의 입에서 나가고 난 침에는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나의 입에서 나간 침을 더럽게 느끼도록 나를 구성했던 과거의 '업'들이 명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과거의 업의 흔적들에 의해서 행동하는 자동기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업의 그물은 끈질기다.

생존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불교에서는 '애(愛)'와 '취(取)'로 설명한다. 아마도 생존을 위한 생물적인 욕망과 결과를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그 갈구에 의해서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 지는 인연법을 설명하는 것이리라. <방등경>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고집멸도(苦集滅道)'라는 인연법이 중생과 다르지 않다고 하신다. 그리고 업과 중생이 다르지 않고, 중생과 업이 다르지 않다고 하신다. 인간을 포함하는 삼라만상의 생존하려는 모습이 바로 업의 결과이고 원인이라는 점을 간결하게 설명하신 것이다.

의도된 행동의 결과, 순환적 인생관 담겨
실체 이해하고 집착 벗어날 때 자유의 삶

과거의 '업'의 그물에 갇혀서만 살아가는 생은 참으로 고단하고 허망하다. 그 업의 실체를 이해하고 집착에 의해서 벗어나는 모습은 참으로 생기 있고 거룩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유 없이 '나'라는 생각이 말썽을 일으킬 때, 말썽이 어디에서 생기는 지를 관찰하면 집착에서 비롯된 업의 그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만남이 더 큰 좋은 업의 원인이 되기를 바란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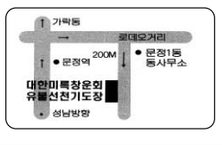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

"천기도법"(天氣道法)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일주문



파키스탄 지원사업 논의차 출국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파키스탄 정부와 초등학교 지원사업을 논의하고 간다라 지역 불교유적을 둘러보기 위해 3월 24일 출국했다.



문경사암련 회장에 추대

문경 대승사 주지 탄공 스님은 3월 22일 문경불교회관에서 개최된 사암연합회 총회에서 문경불교사암연합회장에 만장일치 추대됐다.



제3대 목포불교대학장 취임

목포 약사사 주지 도정 스님은 3월 12일 목포불교대학에서 학장 취임법회를 갖고 제3대 학장으로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제8회 선서화 개인전 열어

대구 혜광사 주지 진일 스님은 4월 4~10일 대구 문화예술회관 1·2·3 전시실에서 제8회 선서화 작품전을 개최한다. (053)473-3131



'종교의 개념' 주제 세미나 참석

동국대 인도철학과 김선근 교수는 4월 2~4일 인도 바나라스 힌두대학에서 개최되는 '종교의 개념' 주제 세미나에 참석한다.



육군본부 2군 사령관에 임명

국군불교총신도회 권영기 회장(前 국방대학 총장·중장)은 3월 22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육군본부 2군 사령관에 임명됐다.



광주전남불교신도회장 추대

광주불교방송 이상진 사장은 3월 24일 능인회사무실에서 열린 (사)광주전남 불교신도회 정기총회에서 제11대 신도회장으로 추대됐다.



9대 대한불자가수회장에

불자가수 김흥국씨는 3월 28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9대 대한불자가수회장으로 취임했다.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에

주간불교신문 前 편집부장 하춘생 씨는 3월 21일자로 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에 임명됐다. 하씨는 6·7대 한국불교기자협회장을 역임했다.

"교육환경 변화 속 희망의 길 봤죠"

취임 1년 맞은 금강대 김유혁 총장



"몰아치는 태풍은 큰나무나 어린나무를 가리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대학환경과 무한 경쟁 속에서 어린나무(금강대)가 견딜 수 있는 지혜를 찾는데 1년을 보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천태종 종립 금강대를 이끌어 온 김유혁 총장(사진)의 소회다. 3월 26일 총장 취임 1년을 맞는 김 총장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 새것이 좋다"라는 말로 개교 3년차 금강대의 장점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와 우리사회가 주문하는 대학의 급격한 경쟁체제 도입과 구조조정을 '태풍'에 비유한 김 총장은 대학 설립초기부터 비교적 잘 갖추어진 IT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지향적 대학을 만들어 나갈 계획을 착실히 진행 중이다.

우선 2월 23일부터 중국 요녕대와 금강대 간의 사이버 강의시스템을 도입했다.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 대학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학점교류와 공동학위도 인정된다. 이는 신생대학의 한계를 세계적 명문대학과의 교류로 해소하려는 김 총장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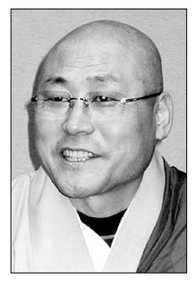
지난해 금강대는 중국의 명문 북경대, 상해사범대, 요녕대 등 3개 대학과 교류협력을 채결했다. 매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북경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금강대는 지난해 학생 16명을 상해사범대로 보냈다.

"우리는 단지 이름만 빌리는 형식적 자매결연이 아니라 학생교환과 학점교류 등 실질 협력체계를 갖췄습니다"라고 밝힌 김총장은 올해는 일본, 내년은 구미지역으로 교류의 외연을 확대, 약 10여 곳의 세계적 명문대학과 교류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용수 기자

"징계보다 사전예방이 화합의 길"

조계종 신임 호법부장 종수 스님



"사후징계보다는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승가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월 21일 열린 조계종 제166회 임시중앙종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은 호법부장 종수 스님(사진)은 "업무 특성상 징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사전예방을 위한 조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잘못이 드러나면 일벌백계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결과주의의 산물일 뿐"이라며 "입장이 서로 다른 한쪽을 징계하기보다는 전체 승가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종수 스님은 중국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비유로 들었다. 즉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험담과 비방을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스님은 "종권 수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종수 스님은 1975년 사미계, 82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삼불사·분황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 감사국장 기획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영덕 장육사 주지를 맡고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문정희씨



김원일씨



염무웅씨

제10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

시 문정희·소설 김원일·평론 염무웅씨

4월 30일 시상식 조계종 역사문화기념관서

조계종 제10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로 시 부분에 문정희 시인, 소설 부분에 김원일 소설가, 평론부분에 염무웅 평론가가 선정됐다.

1969년 <월간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한 문정희씨는 최근 시집 <양귀비꽃 머리에 꽂고>에 수록된 '돌아가는 길' '수련 앞에서' '시가 나무에게'를 통해 불이(不二)의 불교적 상상력을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자로 꼽혔다.

중견 소설가 김원일씨는 냉전시대의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증언한 연작소설집 <푸른 혼>의 중편소설 <여의남 평전>으로, 40여 년간 비평의 길을 닦아온 염무웅씨는 <모래 위의 시간>으로 불교문학의 앞길을 제시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번 수상자들의 작품은 <불교문예> 봄호에 소개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4월 30일(토)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강신재 기자

쌍문동노인복지센터 보경 스님 관장 취임



3월 23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쌍문동노인복지센터 관장 보경 스님(사진)은 "중책을 맡아 부담이 크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등 '준비된 관장'으로 불리는 보경 스님은 "도봉구 관내 유일한 노인 복지시설을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교양교육과 건강증진, 복리후생 등 어느 부분에서도 뒤지지 않는 복지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구촌공생회(대표 월주)가 도봉구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는 지난해 12월에 완공됐다. 지하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도서실 등 교육 시설은 물론 여가시설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 (02)900-4641

유철주 기자

부처님 출가열반절 정진법회 회향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3월 24일 저녁 서울 조계사에서 출가열반절 참회발원 정진법회 회향식을 거행했다.

1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법사로 나선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은 "부처님의 출가와 열반 정신을 오늘에 오롯이 되살려 열심히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불화가 박정자씨 전통불화전



불화가 박정자(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씨의 네 번째 전통불화전이 3월 19~23일 광주 남도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파노라마박물관 건립발원차 열린 불화전 개막식에는 조계종 前 포교원장 암도, 백양사 주지 두백, 대흥사 주지 몽산, 선암사 주지 상명 스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스리랑카 노동자 법당 안산에 개원



안산시 월피동 현대쇼핑 3층에 위치한 '마하보디사'가 3월 20일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스리랑카 노동자들의 쉼터와 신행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마하보디사 개원법회에는 파주 보광사 회주 효림 스님, 안산 보문선원 주지 보림 스님, 범종사 김철오 회장을 비롯 300여명이 참석했다.



통도사 前 주지 신허 스님 입적

통도사 前 주지 신허 스님(사진)이 3월 19일 통도사에서 입적했다. 신허 스님은 1934년생으로 45년 월하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76년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울산 내원사 주지, 표충사 주지, 불교 TV 대표이사, 통도사 주지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천미희 기자

인사

대구 동화사 △부주지 수성 △총무국장 선광 △교무국장 삼현 △재무국장 법경 △포교국장 정관 △사회국장 대법 △호법국장 법혜 △사서실장 상원 스님

한국불교기자협회 △총무부장 조용수 △조직부장 유남경 △홍보부장 배재수 △재무부장 손범숙 △편집부장 양동민 △총무차장 홍진호 △조직차장 윤승헌 △홍보차장 박인탁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말과 글과 형상에 붙어있지 않고 마음자리에 감춰진 자성 찾는 경신도통 대법회

지구촌에 천지개벽이 오고있다

지구촌지각이 변동되는 이 시대에 도통군자, 사명자 초능력자 되소서



도통군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2005년 지각이 변동되는 시대에 도전. 중생제도 사명선사 진인 대법회

선천법도는 드러나지 않게 전했고 후천미륵달마도법으로시작되는 2005년 (양)4월 5일이 자시와 6일 오시에 경신일이 들어 지구촌 모든 종교문화가 바뀌는 종교시대에 미륵달마 진법으로 천문도법인 초능력 도통비법을 경신입문한 공덕으로 평상시 수년을 수행한 공덕보다 큰 힘을 얻는 법회에 그대를 초대하오며 동참한 이들에게 특별 돈부 달마를 드립니다.

진인경신도통 비법에 천하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 치료해도 안되는 정신에 병, 잡신의 병에 빙의 된 것을 제도 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경신 수행법

지각이 변동되는 지구촌 개벽시대에 자신은 물론 가족과 중생을 구할 자 누구인가? 바로 당신인 것이다.
그 주인공은 경신입문하여 진광의 빛으로 인가 받은 당신이 주인공이며 인간에게는 누구나 삼시구충이 있어 육신에 병을 만드는 것을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진태양법으로 의통능력과 퇴치능력법만이 삼시구충을 제도하므로 육경신 도통회로 모든 종교법이 모아지는 것임을 명심할 지어다. 이 법으로써 도를 통하여 중생도 구하고 각종 종교의 종주도 된 것이며 오늘날 중생도 제도하는 것이다. 말법시대에는 너나 없이 도인 아님이 없으며, 말과 글과 입으로 통한 자와 알지 못하고 스승인냥 도인인척 하는 자는 하늘의 도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경신도통으로 육신에 병, 정신에 병, 잡신에 병, 마음에 병을 제도하여 영가해탈법을 득도하여 새로운 윤리, 도덕창생, 윤리관으로 사명자, 도통군자로 승화하노라.

경신도통과 무극대도란 무엇인가, 운명을 조종하는 것이다

경신이 돌아오는 것은 60일, 1년에 6회가 들었으며 기도수행으로 수마, 병마, 색마를 이긴 자리인 만큼 모든 종교를 초월 모든 종교들이 이 수행으로 오늘을 제도하고 있는 신출귀몰한 비법으로 많이 배우지 않아도 단 한가지 정진법으로 득도하는 수행법이며, 이 기도는 천안통경없이는 그 누구도 도를 통할 수 없고 해봐야 잠 안자는 잡신에 빙의되여 허송세월만하는 것이다. 천안통만 잘하면 전생, 금생, 내생을 넘나들 수 있으며, 내가 과거 사람 몸받은 모든 업장과 조상들이 못다이룬 恨을 풀어줄 수 있는 기도중의 기도가 경신기도이며 자아완성은 물론 도통 신비의 기도 경신 수행인 것이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귀신들까지도 제도할 수 있는 초능력자 도통군자되는 비법인것이고 자신의 운명과 생명을 개척하는 최대의 수행법인 경신인 것이다.

- 경신도통이란 역대 선각자, 도인, 신선들이 수행한 방법이며 도술, 의술, 선술, 병술, 무술, 침술, 마술, 점술 등 초능력으로 대운을 받는 것이며 참선, 요가, 단전, 명상 모든 수행법과 도술 비법으로 도깨비나 귀신들을 부릴 수 있으며 천안통 비법인 것이다. 을유년 출현 봉황과 입춘이 없는 해이므로 중풍, 치매, 정신병, 잡신병, 빙의 되어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도에 동참하시어 영통능력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상담 일생대운, 건강, 운명 특별 상담

•무박 2일 침식무료 제공 •교제대 : 평생연구재료 일금 5만원

- **입제 : 양력 2005년 4월 5일 화요일 음. 2. 27 (해시)**
- **해제 : 양력 2005년 4월 6일 수요일 음. 2. 28 (해시)**

02)821-6622 / 821-7767 무박 2일
016)239-3110(직) / Fax 02)821-7768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하차. 2번출구 모자원고개 쪽 300m 관음정사 내

웅조미륵달마 진인경신 도통회
세계불교 달마종 총 본산 태일합장



불자 세상보기

황 진 수
한성대 행정학 교수

보통 여성, 강한 여성

장자크 루소는 <인간불평등기원론>을 썼다. 그는 원시시대의 인간은 자연 속에 살면서 나무 열매를 따먹고, 사냥을 하며 살았는데 언젠가부터 인간사회에 씨족, 부족국가가 생겼고, 또 근대국가로 이행되면서 땅을 많이 차지한 국가, 개인과 땅이 없는 국가, 개인 간에 불평등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논리를 우리나라의 남녀 불평등문제에 대입시켜 볼 수도 있다.

유사이전에는 모계 중심사회였다. 그런데 농경사회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힘든 일은 남성이 하고, 비교적 쉬운 일(가사)은 여성이 하면서 어려운 일을 한 남성이 사회의 중심축에 진입했다. 거기에다 남존여비의 사회질서를 강조한 유교문화가 이 땅에 뿌리를 내렸고 그 후 일제식민지, 전쟁. 경제개발 등 시대적 아젠다(Agenda)가 진행되면서 남성중심사회는 '굳혀진 상식'이 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사회진출의 문을 열어 놓지도 않으면서 여성을 '암탉' 운운으로 폄훼하면서 여성의 능력, 자질을 일방적으로 평가 절하시켰던 것이다.

사실 헌법상에는 남녀평등이 시퍼렇게 살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은 취업, 고용조건, 사회적 역할에서 현저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

여성만이 갖는 임신, 출산, 자녀양육 부담을 사회가 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불우한 환경의 미혼모, 저소득층의 근로여성, 빈곤선이하의 모자가정 그리고 윤락여성이 있다. 그들은 여성복지의 대상자(Client)로 늘 남아 있고, 정부당국자나 사회의 확실한 원조대책을 받지 못한 채 음지에서 신음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밑바닥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면, 2001년 현재 HDI(인간개발지수)에서는 총 162개국 중 27위이며, GDI(여성개발지수)는 146개 나라 가운데 29위에 머물러 있고, GEM(여성권한척도)은 64개국 중 6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행정 관리직 중 여성비율은 5%에 불과하고, 정무직 여성비율도 세계 평균10.8%를 밑돌고 있다. 국회의원 진출도 13%로 세계163개국 중 평균 15%에 미달된다.

또 미국의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이 최근 13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남녀 사회 경제적 수준인 노동시장의 여성참여도, 대학교육, 임원비율, 평균이상 수입비중 등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13등을 했다는 것이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남자 73.7%에 비해 여자는 48.3%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2005년 1월 통계청) 또 여성이 취업하고 있는 분야도 임시, 일용직급이 많다.

위의 통계치가 갖는 의미는 남녀 간의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묵시적으로 진행되어 온 '관습법'일 수도 있고 또 여성 스스로 남성의 성(城)에 안주 해온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스웨덴의 경우 전쟁이 났을 때 남성들이 했던 탄광 광부, 기차운전, 중장비운전 등을 여성들이 맡아서 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성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현재 스웨덴은 국회의원 장관의 4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도 대단한 면이 많다.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여자 선수들. 각종 골프대회에서 보내오는 승전보. 한국 여성의 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보통 여성'이다. 거기에는 강인하고 억척스러움이 있고, 아름다운 자태가 함께 존재한다. 그 모습이 우리의 어머니요, 누이요 그리고 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제 21세기 국가발전의 '뚜껑을 따지 않은 보고'는 여성 인력과 고령자 인력이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국력신장의 바로메타가 될 수 있다. 여성의 문제는 '그에게 매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더 절실하게 들린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재정확충'의 전제조건들

조계종이 재정자립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나온 <조계종 재정확대 방안 연구 보고서>는 종단이 경제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 자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조계종 중앙 종단의 예산 규모가 모 교회 예산 수준의 5분의 1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조계종 재정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의 해결 없이는 여러 종교와 종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건강한 종단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 최대 종교의 거대 종단으로서, 또 무소유를 종지로 삼는 불교의 종단으로서 무조건 세입증대만을 꾀하는 방안을 세울 수는 없다. 타 종교나 타 종단을 참고하되 청정 종단의 위상을 해치지 않는 건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도들에게 주는 만큼 되돌아온다는 사실에 입각해 재정확충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는 점이겠다.

우선 신도들의 긍지를 높여주고, 믿음을 줘야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불교를 믿음으로써 괴로움을 벗어나는, 믿음에 따르는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종단이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또 스님들의 청정한 수행상이 선양됨으로써 높아진 신도의 긍지가 종단재정의 바탕이다. 투명한 재정운영에 대한 신도들의 믿음이 안정적인 재정확보의 뿌리이다. 근본적으로는 기복 중심의 신앙행태를 벗어나 현실의 괴로움을 극복하는 참신하고도 효과적인 방편을 제시함으로써 조계종의 우월성을 드러낼 때 재정도 확보된다. 사업을 통한 수익을 꾀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측면을 우선해야 한다.

공익성을 띤 분야에 불교적 이념과 방법을 적용한 독창적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사회적 평가와 세입 확대를 동시에 꾀하는 한편, 신도들의 종교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사업성을 띨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 공략이 필요하다. 이런 기본에 충실할 때 종단의 위상을 높이면서도 재정확충을 꾀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리리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작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도들의 보시에만 의존하는 틀을 벗어야 하는 것도 틀림없다. 새로운 재정자립의 틀을 모색하는 조계종의 결단에 지지를 보내며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한다. ■성태용(건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나눔과 베풂

베품은 중생을 위한 복의 그릇이요 참된 진리에 이르는 길이니 누구라도 보시의 공덕을 생각하거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내라. 베품은 널리 평등하게 골고루 하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아야만 베푸는 마음속에서 나를 만나 구제받는 인연을 맺으리라. 〈증일아함경〉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일명 '고구마와 벌금 사건'이 벌어졌다. 3월 18일 대검 홈페이지에 소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이번 사건을 접한 이들은 잔잔한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3년 전 고구마를 길거리에서 판매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7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루 생활하는 데도 빠듯했던 터라 벌금을 갚지 못했던 그는 목포지청 징수기동반에 의해 16일 검거됐다.

그러나 직원들은 평소와 같이 벌금 미납자를 구인해 노역장에 유치하지 못했다. 그는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로 배우자가 지체장애 3급이었고 자녀 2명은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딱한 사정을 안고 있었다.

가장인 그가 노역장으로 유치되면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다. 직원들은 해결책을 찾았고 그가 파는 고구마를 사들이는 것으로 도움을 줬다. 고구마 판매대금으로 그는 벌금 절반을 납부했고 나머지는 분납키로 약속했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아는 깨끗한 믿음으로 남에게 베풀면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그가 있는 곳 어디라도 그림자처럼 복된 갚음이 따르니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조건없는 깨끗한 베품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번에 조건없이 도운 목포지청 직원들은 진정한 보시의 공덕을 쌓은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도움을 받은 그 역시 앞으로 베품과 나눔을 몸소 실천하게 되지 않을까. 요즘 같이 힘든 세상, 작은 온정이 모인 따뜻한 보시로 마음이 훈훈하다.

■강지연(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영문표기 틀린 절 표지판

양평군 백운봉에서 장군봉으로 가는 등산로에 있는 절 안내 표지판은 양평군에서 세운 것인데 사나사와 상원사를 소개하는 영자표시에서 절 사(寺)자 temple이 아닌 사당 사(祠)에 해당하는 shrine으로 쓰고 있다. 빨리 고쳐지길 바란다.

우리스님(붓다뉴스)

신도회관 없는 조계종?

조계종에는 신도회관이 없다. 얼마 전 신도단체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만나 신도회관 건립에 대한 일을 논의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올해로 신도운동 50년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살아갈 둥지 정도는 틀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 지금까지 내 집 없는 설움을 겪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라도 신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한다.

법장 스님은 이날 만남에서 신도단체들에게 좀더 자립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차제에 신도회 스스로 자립기반을 마련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종단에서도 재가불자 1000만을 대표하는 중앙신도회가 신도회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

윤달식(부산 동래구 안락동)

환경 훼손한 정토회에 실망

언론을 통해 접해온 정토회의 다양한 활동에 언제나 존경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 빈그릇 운동을 비롯한 환경운동, 인도 등에서 학교건립과 자원봉사 활동 등은 불교NGO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항상 기쁘게 지켜봤었다.

그런데 며칠 전 TV뉴스에서 정토회가 문경에 수련원을 지으면서 불법 산림 훼손과 불법 농지 전용 등으로 사법 기관으로부터 처벌받았다는 내용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벌금액은 100만원을 조금 웃돌아 얼마 안 되는 액수였지만 정토회가 그동안 펼쳐온 환경운동을 생각하면 이런 실수를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정토회 측이 불법 사실을 시인하고 훼손 복원과 생태마을 조성을 약속했지만 이미지의 훼손과 도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하기란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런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토회 뿐만 아니라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나 산 속에 위치한 사찰들은 환경에 좀더 신경써야 한다. 스스로 청정해야 어떤 일을 해도 떳떳할 수 있다. 어종수(광주 서구 화정2동)

여법한 '역사문화도시' 되길

경주시가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한다고 한다. 도시 자체가 거대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경주시는 문화재 보호라는 측면으로 인해 개발과는 거리가 좀 있는 곳이었다.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특별법 등 다양한 법에 의해 집중 보호 관리되고 있는 곳이 바로 경주다.

문화재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무리가 없지만 경주시민들의 재산권 문제에서는 계속 불협화음을 빚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그 돌파구로 마련된 것이 바로 '역사문화도시'라고 한다. 유적 복원, 도시 개발, 관광경주의 옛 모습 회복 등을 '역사문화도시' 조성으로 이루어낸다는 것이 경주시청의 야심인 것 같다.

문제는 총 사업비가 3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양립해 온 문화재 복원과 개발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개발되고 난 후에 후회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3조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들여 2034년까지 30년 동안 꾸준히 하겠다는 계획이니만큼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역 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지운(서울 광진구 능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불교방송 창사 15주년 기념, 중국 실크로드 불교 성지순례

동서양을 잇는 문명의 교역로, 실크로드 성지순례!

불교방송에서는 창사 15주년을 맞아 오는 4월 16일과 23일, 5박 6일 일정으로 2회에 걸쳐 불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를 실시합니다.

서역 최대의 도시 우루무치를 시작으로 중국 3대 석굴인 막고굴, 삼장법사가 인왕경을 설법했던 고창고성과 세계문화유산인 교하고성 등을 견학하며, 만년설산과 초원의 눈부신 경치를 감상하고, 마지막 날에는 북경의 천안문과 자금성을 관광 합니다.

지도법사는 차 한잔의 선율을 진행하시는 진명스님 노적사 주지 종후스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 동 참 금 : 1,080,000원(5박 6일)
● 비 자 : 중국 비자비용 24,000원 별도
● 포함내역 : 1억원 여행자보험
공항이용료 및 출국세 등
● 신청마감 : 출발 10일전 까지
● 출 발 : 2005년 4월 16일(토요일)
4월 23일(토요일)
● 문의전화 : 불교방송 02)705-5302, 5303



일 자	출발 / 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4/16 4/23	인천 북경 돈황	CA 124 국내선 CA1287	11:00 13:05 14:05 17:40 20:30	인천국제공항 3층 L과 K카운타사이 집결 인천국제공항 출발 북경도착 후 국내선 공항으로 이동 북경 출발		
					중	기내식
				돈황 도착 후 호텔투숙 및 휴식	석	현지식
				HOTEL 태양호텔급		
제02일 4/17 4/24	돈황 유원	전용버스 야간열차	22:46	아침공양 후 4세기 부터 1000년에 걸쳐 조성된 막고굴 견학 -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된 제17굴 - 조우관을 쓴 삼국인 벽화가 있는 제220굴 237굴, 335굴 명사산, 천년동안 마르지 않는 월아천 순례 유원으로 이동 후 열차로 트루판 향발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식	현지식
				HOTEL 열차박(4인 1실)		
제03일 4/18 4/25	트루판	전용버스	06:50	트루판 도착 후 서유기의 배경인 화염산 및 석굴사원 천불동, 옛 고창국의 수도인 고창고성(삼장법사가 인왕경을 설법한곳)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교하고성, 소공탑 견학 후 휴식	조	현지식
					중	현지식
					식	현지식
				HOTEL 트루판 호텔급		
제04일 4/19 4/26	트루판 우루무치	전용버스	전일	아침공양 후 우루무치로 이동 (2시간30분소요) 우루무치 박물관, 인민광장, 홍산공원 회족시장(바자르)등 견학 후 휴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식	현지식
				HOTEL 은도호텔급		
제05일 4/20 4/27	우루무치 천산 우루무치 북경	전용버스 국내선 CA1902	16:35 20:05	아침공양 후 천산으로 이동	조	호텔식
				천산 천지 유람 및 설산 조망후 우루무치	중	현지식
				귀환 우루무지 출발 북경도착 후 호텔 휴식	석	현지식
				HOTEL 특급호텔급		
제06일 4/21 4/28	북경 인천	중국항공 CA125	14:00 17:00	아침공양 후 천안문광장, 자금성 관광 후 북경 출발 인천 도착 후 해산 - 성불 하십시오 -	조	호텔식
					중	기내식

문의전화 : BBS 불교방송 (02)705-5301~3 / www.bbsfm.co.kr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진각종 탑주심인당 사조마니회

관심보다 큰 힘이 있나요?



매월 셋째 토요일마다 서울시립노인요양원을 찾는 진각종 탑주심인당 '사조마니회' 회원들. 사진은 3월19일 서울시립노인요양원을 찾아 엄마와 함께 봉사를 하고 있는 성준과 혜찬.

맑고 시원한 물과 공기를 자랑하는 수락산. 돌보는 가족이 없는 노인들이 2001년부터 진각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수락산 자락 서울시립노인요양원(원장 김유탁)에 모여살고 있다. 등산객은 많아도 시설을 찾는 이는 없어 적적하게 지내는 노인들에게 매달 셋째 토요일마다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는 진각종 탑주심인당 소속 사조마니회(조장 손양익) 회원들이 있어 한결 외로움이 덜어진다.

완연한 봄기운에 수락산 나들이 행렬이 끊이지 않았던 3월 19일에도 어김없이 할머니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는 사조마니회 회원들. 이들의 봉사활동은 3년 전부터 시작됐다.

"우리는 여기 와서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요. 할머니들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먼지를 털어내는 것 같이 사소한 일들을 챙기지요. 말동무도 해드리고요."

손양익 조장이 말하듯, 사조마니회가 요양원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일상적이다. 그렇게 회원들은 요란하지 않은 가운데 할머니들과 함께 일상을 공유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자부심도 뿌듯함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할머니, 할머니! 시원하시지요?"

이날 봉사활동을 하는 엄마를 처음 따라왔지만 낯선 할머니들에게 꼭 친손자처럼 곧잘 말도 걸고 안마도 할 줄 아는 성준(7)이와 혜찬(6)이의 모습을 보며 혜찬이 엄마 오명자(36) 보살은 "아이가 사람과 함께하는 법을 자연스레 배우는 것 같아 대견스럽다"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울시립노인요양원에서 그렇게 한달에 한 번, 토요일 오후의 나른함을 공유하는 사조마니회 회원들의 모습에서 사소한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을 찾는 것도 소중한 봉사 활동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강진 기자

▮후원해 주세요 - 지속적인 만남 필요해요

서울시립양로원에는 성인용 기저귀나 쌀 등의 물품도 많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꾸준한 손길과 관심이다. 사조마니회 조장 손양익 보살은 "할머니들이 사람을 많이 그리워한다고 해서 일회성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다"며 "한달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꾸준히 할머니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불자들의 관심과 방문을 호소했다. (02)939-6176

"자비의 등 밝히기는 나눔의 시작"

우리는 선우, 본사와 장충단공원에 5천등 켠다

"자비의 등 밝히기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사)우리는 선우(대표이사 성태용)와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김광삼)은 4월 23일부터 5월 16일까지 서울 장충단공원에 자비의 등 5000개를 밝힌다.

올해 14회째인 '자비의 등 밝히기' 행사는 나와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웃을 생각하는 나눔의 불사. 보시금 전액을 소외받고 있는 이웃돕기와 장애우 나들이 행사에 사용된다.

등은 신신의 건강을 기원하는등, 몸과 마음의 병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쾌유를 비는 등, 모든 인연의 도움에 감사하는 등, 사랑하는 모든 이를 위한 등이 있다. 또 복된 삶을 기원하는 행복 등, 가정 국가 세계의 안녕을 기원하는 평화 등, 학업 직장 사업의 성취를 기원하는 성공 등, 지난 노력의 결실을 맺도록 기원하는 합격 등, 사랑하는 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 등 등 총 9가지이다. 이웃을 위해 등을 신청하면 우리는 선우는 따뜻한 마음을 담은 예쁜 카드도 상대방에게 직접 발송해준다.

등 보시금은 일반인이 1만원, 대학생 5000원, 중고생 3000원, 가족등 3만원, 대원등(큰등) 10만원이다. 등 접수기간은 3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우리는 선우(sunwoo.or.kr)를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 (02)2278-8672~3

우리는 선우 성태용 대표는 "부처님 오심의 참 의미를 깨우치고 그 뜻을 나누어 내가 아닌 이웃과 함께하는 불교로서 사회 회향의 종교로 자리매김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웃을 위해 등을 달고 그 수익금으로 다시 한번 소외받는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우리는선우와 현대불교신문사는 올해도 부처님오신날 맞이 자비의등 5000개를 밝힌다. 사진은 2004년 점등식 모습.

"열심히 공부할게요"

강북장애인복지관 장학금 전달

"어려울수록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명궁)은 3월 22일 장애청소년과 장애인 가정 청소년 10명에게 올 1사분기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강북장애인복지관은 청소년들이 '장애'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1년에 4차례에 걸쳐 10여명의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1사분기 장학금은 광운대 총동문회로부터 100만원을 지원받아 10명의 학생들에게 각각10만원씩 지급했다.



그 동안 장학금을 받아온 장애청소년 김민(20)군이 올해 삼육대 약학과에 입학하는 등, 강북장애인복지관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은 금액 이상의 큰 희망이 되고 있다. (02)989-4215 김강진 기자



"그림 보며 치매 치료해요"

성북노인복지관 갤러리 나들이

"그림 참 좋구먼."

10년 만에 갤러리를 찾은 이원복(79) 할아버지가 이왈종 화백의 작품 '제주에서의 중도(2001)' 앞에 서서 감상에 젖는다. 다른 쪽에서는 현희자(80)할머니가 그림 속 제주도 풍경을 보며 젊은 시절에 갔던 제주도의 기억을 떠올린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성욱) 치매주간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11명의 노인들이 3월 18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 현대'에서 열린 이왈종 화백의 '꿈과 일상의 중도' 전을 관람했다(사진). 노인들은 한달에 한 번 있는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술관을 관람하면서 현실감각은 물론 정서적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이다.

성북노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사회기술훈련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치매 노인들의 치료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02)929-7950 김강진 기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칩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722-4162~3/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불기 2549년 마하몰 | 봉축용품 기획상품전

단체 홍보상품 • 이미지 큐브 – 신기한 입체블록으로 보는 부처님 일대기
※ 300개 이상 주문시 원하는 이미지에 맞춰 제작해 드립니다



·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확보
– 감전,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합니다.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시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찰용 연등전선(법당용, 외곽용) ·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 봉축현수막 : 실사
· 90cmX6m (48,000원)
· 90cmX7m (56,000원)
· 90cmX8m (64,000원)

▮ 장엄 번(만장기)
· 90cmX210cm (40,000원)
· 90cmX230cm (45,000원)

▮ 지하철(장엄)현수막
· 105cm×200cm (40,000원)
※ 현수막 크기, 내용 변경가능



▮ 봉축리본 세트
· 일 반 : 25,000원
· 고급형 : 35,000원



▮ 연꽃리본
· 25,000원
※100개 1세트 (공통)



▮ 봉축캐릭터 앞치마
· 4,500원 ※ 200벌이상 주문시 사찰명 인쇄



▮ 차량용 깃발 · 4000원
▮ 만자기/법륜기/불교기 · 20,000원
※다른 사이즈 제작 가능



▮ 봉축 타이슬링
· 2,800원 ※4개 1세트

연 등



▮ 공단등
· 大-23,中-18, 小-15cm
· 황금,연분홍,진분홍, 빨강,흰색(영가등)



▮ 캐릭비닐터만월등
· 32cm × 32cm
· 분홍,파랑,빨강,노랑, 초록,색상별



▮ 황금연등
· 20인치,13인치, 10.5인치, 8인치,6인치
※ 최고급 금색 특수섬유 사용



▮ 연꽃등
· 진분홍,연분홍, 주황,연두,보라



▮ 캐릭터 청사초롱
· 소재 : 숙고사, 프라스틱
· 고급본염인쇄 · 1박스=100개
※ 300개 이상 주문시 사찰 및 단체명 무료인쇄



▮ 종 등
· 40cm × 27cm
· 노랑,연두,분홍, 빨강,오렌지



▮ 풍경등
· 빨강,분홍,노랑, 초록,파랑



▮ 만월등
· 32cm × 32cm
· 노랑,연두,분홍,빨강, 오렌지,흰색(영가),오색 등



▮ 비단팔모접등
· 28cm × 24cm
· 분홍,노랑초록, 빨강,파랑



▮ 팔각조립등
· 26cm × 28cm
· 핑크,오렌지,초록,파랑,봉축빨강, 봉축노랑,성도일빨강,성도일노랑



▮ 봉축 버튼
· 4,000원 ※10개 1세트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주문전화 02-732-1520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향기 도반의

식목일 앞두고 만난
토종 소나무의 '대부' 박재봉씨

자연과 인간 풍요롭게 해주는 '나무방생' 하세요



서울 강남구 대봉산 자락에 소나무 1만여 주를 심고 가꿔온 박재봉씨는 "소나무는 나이가 들면 쓸데없는 가지를 내지 않고 주위를 살피며 자란다"며 "욕심없는 소나무를 본받고 싶다"고 말한다.

전국 누비며 묘목 구하고 연구, '미친듯' 정성 들여
"한 그루 잘 키우는데 20년 … 자연에 투자해야"

재선충·솔잎혹파리·산불·수종갱신·무관심 …
개체수 절반이상 줄어 '민족의 나무' 멸종 위기

'민족의 나무'로 추앙받으며 수천 년 이 땅을 지켜온 소나무. 사철 푸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는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기상을 대변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소나무가 당면한 현실은 차라리 암담하다. 한때 우리나라 산림의 60% 이상을 차지했던 이 땅의 소나무는 솔잎혹파리와 '소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의 창궐, 산불과 수종 갱신 등으로 급격히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 중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32%에 불과하며, 특히 재선충이 국내 28개 시·군으로 퍼져 소나무 60만 그루가 고사하기에 이르렀다. '민족의 나무'가 처한 상황이라고 믿기 어려운 현실이다.

반면, 우리나라 소나무를 지키고 가꾸는데 20여년을 바쳐온 사람도 있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 대봉산 자락에 토종 소나무 1만여 주를 심고 가꾸는 박재봉(60)씨가 바로 그다. 대봉산 자락에서 500년을 넘게 살아온 집안에서 태어난 박씨는 나전칠기 공장을 운영하던 82년, '불현듯' 소나무에 빠져들었다.

"지금도 '그냥'이란 말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휘고 더디 자라지만 그 속에 품위를 간직한 소나무의 모습이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소나무를 찾아다니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범람하는 외송(外松)에 밀려 이 땅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들었습니다."

60~70년대 시행된 녹화사업에서는 발육이 더딘 토종 소나무 대신 리기다소나무와 아까시나무 등을 주로 심었고, 이것이 결국 토종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소나무가 고사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그는 88년 가족과 함께 무작정 강원도 속초로 이사를 갔다. 그곳에서 하루 종일 산을 오르내리며 솔방울을 주워 심었다. 하지만 싹이 튼 것 중 토종은 극히 일부였다. 생계는 뒷전으로 한 채 토종 솔방울을 찾으러 다니던 그 시절 지인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도 숱하게 들었다.

"소나무 한 그루를 제대로 키우려면 10~20년은 족히 걸립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야 어쩔 수 없이 빨리 크는 나무를 심었다고 하지만, 이제 돈보다 자연에 투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90년 토종 소나무 묘목 몇 주를 가지고 서울로 돌아왔지만, 묘목을 제대로 키우는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손수 땅을 고르고 묘목을 심었다. 전정가위로 가지를 정리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밤늦게 귀가할 때면 손전등을 들고 소나무를 일일이 살핀 후에야 잠이 들었다. 박씨가 토종 소나무 묘목을 얻느라 보낸 10여 년 동안 아내 역시 안 해본 일이 없다. 아침저녁으로 남편을 도와 농원을 가꾸었고 낮에는 고된 식당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나무는 삼대(三代)가 망해야 된다는 말이 있다죠. 강원도에 심은 잡종 소나무라도 캐다 팔자고 했지만 남편은 절대 허락하지 않더군요. 그러니 어쩔 수 있나요? 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죠."

박씨는 묘목을 키우는 틈틈이 전국에 유명하다는 소나무를 찾아다니며 연구를 계속했다. 며칠씩 소나무를 구경하다 돌아오기도 했다. "어떤 소나무가 가장 인상적이었냐"는 질문에는 "지명은 모두 잊어버리고 소나무만 기억한다"고 대답했다. 자칫 "어디에 좋은 소나무가 있다"고 알려지면 사람들이 몰려 나무를 망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아예 지명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나무가 본래 자리에 심겨져 있으면 모두가 즐길 수 있을 텐데 돈 몇 푼 벌겠다고 그걸 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걸음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디지만 꾸준히 자라나는 소나무 묘목들은 대봉산 자락에 조금씩 퍼져나갔다. 그새 토종 소나무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서서히 늘어났다. 토종 소나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묘목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다. 하지만 쉽게 얻은 것에 대한 애정은 쉽게 사그라지는 것이 인지상정일까. 소나무의 생태와 특성을 배려하지 않은 채 과잉보호한 사람들은 "소나무가 너무 쉽게 죽는다"며 다시 그에게 손을 벌렸다.

"10여년 가까이 온갖 정성으로 기른 소나무를 제 손가락 하나 자르는 기분으로 분양한 것인데, 사람들이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소나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의 농원에는 이정숙(33)씨가 소나무 키우는 일을 배우고 있다. 이씨는 "소나무는 나이가 들면 쓸데없는 가지를 내지 않고 주위를 살피며 조금씩 자란다. 이 점을 본받을 수 있겠냐?"는 박씨의 한 마디에 자신의 삶을 소나무에 걸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평생 소나무를 심고 가꾸며 얻은 삶의 지혜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도층들도 소나무의 겸허함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박씨의 또 하나의 바람은 불자들이 식목일에 '나무방생'을 하는 것이다. 말없이 자라나 자연을 지키고 또 목재와 종이로 쓰임을 다하는 나무를 심는 것이 참다운 방생이라는 뜻에서다. 그 자신도 몇해 전 자녀들과 함께 근처 사찰에 소나무를 심었다.

"방생을 위한 방생이 아니라 자연을 살리는 방생이 되기 위해, 자연과 후손을 위해 우리나라 재래 나무를 심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평생을 소나무처럼, 부처님처럼 살라고 친구들이 붙여줬다는 그의 호는 '여송(如松)'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평생 여여(如如)한 소나무처럼 살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미소 짓는 박씨는 "작은 것,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 비우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소나무를 키우며 알게 됐다"고 말한다.

사람의 발에 채이고 바람에 넘어지며, 무심(無心)으로 자라는 소나무에서 인생을 배우는 그에게서 투박하지만 은은한 소나무의 향기가 느껴진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삶의 지혜를 원하는 당신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책

오직 당신에게만 권하는 붓다의 지혜 가르침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밖으로부터 불행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왔다라고 생각한다. 허나 불행한 일을 당해서 자신이 괴롭게 되는 것은
그 불행과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끌어 잡아당기듯이 끼리끼리 모이게 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의 '고(苦)'를 벗어나야 할 것인가.

현대인을 위한 붓다의 가르침

신간



신국판 / 344쪽 / 저자 안양규 / 값 9,000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www.yosiamun.com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여시아문

나의 수행법

김의식 (下)



1년을 그렇게 화두를 들었다. 그러다 간화선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먼저 간화선을 잘 하려면, 화두를 잘 기억하는 것이 첫째라는 것을 깨달았다. 잠잘 때에도 화두가 기억나야 하고, 죽을 때에도 화두가 기억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기억이란 것은 눈앞에 마음속에 현수막처럼 항상 보여 져야 한다는 깨달음이었다.

참선수행으로 간화선에 확신을 얻게 된 나는 '수식관'으로 집중법을 숙달 시켰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화두를 투철하게 바라보고 만지고 뭉쳐서, 나와 세상이 모두 이 화두 속으로 녹아들어가게 했다.

그러면서 난 이런 수행을 생활화로 연결했다. '처처선시시선(處處禪時時禪)'의 일상화였다. 또 수행을 통한 마음공부의 작업이었다.

수식관으로 집중법 숙달시켜
장소 따지지 않고 틈만 나면 참선

예를 들면, 나는 내 승용차는 '젠카'(zen car)로 부른다. 아무 곳이나 주차해 놓고 뒷자리로 가서 가부좌를 틀고 뒷 차창을 향해 선정에 들기 때문이다. 또 사무실 의자에서도 엉덩이만 받쳐줄 수 있다면, 결가부좌로 선정에 든다. 만약 아침에 못하면 점심에, 점심에 못하면 저녁에, 저녁에 못하면 밤중에, 밤중에 못하면 새벽에, 새벽에 못하면 잠속에서 참선을 했다. 참선할 시간은 시시때때로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또 참선할 장소도 곳곳마다 가득하다. 그러므로 마음에 '참선'이란 글자가 또는 '화두'라는 의단이 붙으면, 아니 할 수 없는 것이 참선이다.

그래서 난 이런 마음가짐을 갖추기 위해 선지식과 꾸준한 만남을 가졌다. 특히 나에게는 광덕스님, 서옹 스님, 청화 스님이 선지식이셨다.

항간의 재가불자들은 참선에 관하여 그 난해함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그 인연 맺기를 기피한다. '참선은 스님이나 하시는 거지' '시간이 있어야 하지, 내 코가 석자인데 참선에 신경 쓸 수 있나' '내 일도 못하면서 시간 있어도 주제넘게 할 수 있나' 등 참으로 변명과 구실을 붙이면서 참선을 피한다.

그러면서도 편안과 건강과 지혜는 독점하려 하니 참으로 도리에 맞지 않는 바람들이다. 이런 마음을 버리는 사람이 참수행자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된다. 어떤 일이건 99%의 마음성취가 우선 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1%의 마음공부 성취를 위해 우리는 심혈을 기울리는 삶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

끝으로 나의 수행체험담을 짚어볼 때, 수행에는 선지식을 꼭 모시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선지식은 공부의 방향과 방법을 점검해주기 때문이다. 만약 선지식이 없다면, 바른 도반이라도 있어야 한다. 법우들이 모여서 이벤트나 하고 서로 정보나 교환하는 도반이 아니라, 진정 마음을 닦아가는 법우를 말한다.

도반은 불교 수행를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이다. 서로 탁마하고 서로 비추어 주며 함께 인욕정진을 가능케 한다. 나의 진정한 도반은 임성수 한국수출입은행 부산지점장이다. 임 거사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출신으로, 생활 속에 불교를 실천하는 진정한 불자이다. 하루 수행하지 않으면 하루 일을 하지 않는, 현대판 백장청규에 버금가는 재가 거사이다. 수행이 있음으로 곧 일에 가치가 부여된다는 신조를 지닌 불자이다. 우리 재가불자들은 이런 도반들과 인연을 많이 맺어야 한다.(끝)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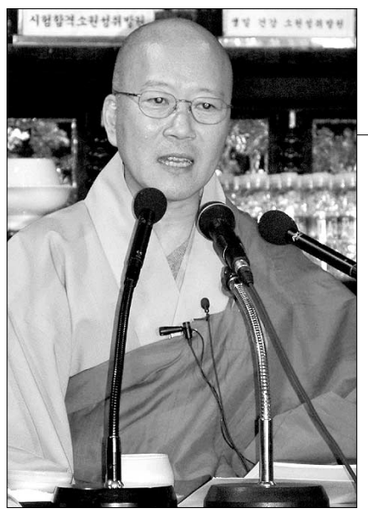
깨달음 위한 '뜻 풀기' '공유' 필요

"화두의 참뜻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온 몸으로 체득되는 깨달음에 눈을 떠야 한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3월 20일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와 불교신문사(사장 향적)가 공동 주최한 '한국불교 미래를 듣는다' 기획법회에서 상대방의 근기와 상황 등 필요에 따라 화두의 숨은 뜻을 암시해줄 수 있다고 법문했다.

스님은 이날 "간화선에서는 현실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인연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신비화해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심지어 화두의 뜻을 푸는데 입을 다물게 했고 말을 못하게 했다"며 "깨달은 사람이 그때그때 방편을 열어 부처님 같은 법을 쓰든지 해서 깨달음의 세계를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스님은 특히 한국선의 앞날을 위해 화두를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화두를 풀든 말든 하나만 풀면 다 풀리기에 비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화두는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일체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한다고 스님은 지적했다. '법으로든 몽둥이로 맞아서든 깨달음의 방법을 열어보여야 한다'는 수불 스님. 스님의 법문을 요약했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3월 2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법회에서 '불교의 깨달음'을 주제로 법문하고 있다.

수불스님이 말하는 '화두풀이'의 참뜻

'한국불교 미래를 듣는다' 조계사 기획법회(3월20일)서 법문

지혜를 이야기하는 종교의 눈

종교를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눈을 떠야 한다. 그렇기에 깨달음을 위한 믿음, 즉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물을 바라보는 데에는 종교적인 눈과 상식적인 눈이 있다. 그 눈의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하고 종교를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종교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종교의 눈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가령 일반적으로 청정하면 깨끗하다고 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이 맑고 깨끗한 것도 아니다. 이는 선과 악에도 진리가 있다는 종교적의 눈이다.

진리는 선악을 포용하되 선악에 물들지 않는다. 물들지 않은 그 영원한 마음을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된다.

조사·묵조·간화선, 깨달음의 차이는?

조사선적 가르침은 선지식이 없으면 깨닫지 못한다. 직접 부딪쳐야 한다. 조사선의 가르침은 공안을 들고 공부하는 간화선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근원적인 의심을 하게하고 문턱을 닳도록 조실 스님 방문을 두드리라고 했다. 조실을 만나 바로 선으로 들어가 믿음으로 '언하대오(言下大悟)'하게 했다. 인연 따라 깨달음을 얻는 공부법을 채택한 것이 조사선이다. 하지만 사원 중심의 조사선 수행전통은 재가자들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제한했다.

그런데 간화선 시대가 열리면서 승속을 막론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됐다. 간화선은 하나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게 한 선수행법이다. 반면 조사선은 근원적인 의심에 대한 공부를 강조했다.

묵조선 수행법은 조용한 환경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다변화되는 현실 속에서 묵조선 수행은 쉽지 않다. 오히려 일과 수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수행법이 필요하다. 의심을 하되 의심을 한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의심을 해야 한다. 이런 점이 간화선 수행법의 장점이다.

지나친 지적 호기심이 선병(禪病) 일으켜

'정말로 공부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불교를 제대로 알고 눈을 뜰 수 있을까?' 수행자라면 가질 수 있는 물음이다. 그런데 이런 의문들이 오늘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됐다. '누가 나를 끌고 다니는가'라고 물었을 때, 본인이 본인에게 묻게 됐다. 이런 공부법은 곤란하다.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뭣고' 하는 공부는 이미 죽은 공부다. 하도 사탕 달라고 조르니까 '이거 물고 있어라'는 차원에서 이런 의심을 일으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부법때문에 현실적으로 병폐가 생긴다. 공부를 더 힘차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 지나친 지적 호기심이 화두공부를 죽이는 셈이다.

선은 현실적이다

선(禪)은 신비주의가 아니다. 지극히 현실적이다. 아니 분명한 것이다. 진리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현실 속에서 선을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육조 스님은 <단경>에서 법문을 듣는 모든 사람이 선지식이라 했다. 우리는 대선지식을 만날 눈을 떠야 한다. 그래서 견성법, 마하반야바라밀법이 설해졌다. 마하반야바라밀법은 견성하고 난 뒤, 견성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혼자만 깨달았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겠다는 법이다. 실천을 통해 문자로서 현실적으로 증명돼지는 깨달음을 온몸으로 체득하는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화두, 모든 사람이 함께 알아야

깨달음의 방법은 모든 중생에게 공개돼야 한다. 여기서는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법으로든 몽둥이로 맞아서든 비판도 받고, 칭찬도 들으면서 열어 보여야 한다. 그래서 간화선은 현실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인연법을 말하고 있다.



1천여 사부대중들이 조계사 대웅전을 비롯해 경내에서 수불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다. 사진=김철우 기자

그런데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간화선을 신비화해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하는 일이 많았다. 또 입을 다물고 말을 못하게 했다. 화두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선의 앞날을 위해 화두를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화두의 내용을 말하면, 일반적으로 '화두를 풀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화두를 풀면 잘못했다고 두들겨 맞게 된다.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네 멋대로 화두를 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비판을 받는다. 화두를 풀든 말든 하나 풀면 다 풀린다고 했는데 말이다.

화두는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다. 일체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것이다. 공통분모를 가지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몇몇을 위한 잔치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체가 다 알아야 한다.

의심 바짝 들어야 화두수행

제대로 의심이 되면, 목을 꽉 쪼는 것을 경험해 죽을 지경까지 된다. 또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사방에 쪼여 온다. 길은 안 보이고, 앉지도 서지도, 가도 오도 못하게 된다. 그야말로 의심이 바짝 든 상태다. 그때 비로소 화두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의심을 어떻게 일으켜야 하는가. 온몸을 화두의심을 지어야 한다. 하나의 화두로 끝까지 밀고 붙여야 한다. 의심을 한 번 잠깐하고 또 의심함이 없으면 의심을 발한 것이 아니다. 만든 것에 속은 것이다. 반드시 화두에 의심이 끊이지 않고 참의심을 일으키면, '이뭣고' 하는 순간에 화두를 꽉 잡게 된다. 다시 빠져나갈 수 없는 외통수에 걸려든 것처럼 말이다. 그 때 눈 밝은 선지식이 채찍을 들고 조지게 된다. '이 놈 참 공부할 놈이구나' '공부할 있는 인연에 걸려들었구나' 하면서 말이다.

활구참구의 핵심은 신심

깊은 우물에 떨어진 사람이 그것을 빠져나오는 길은 따로 없다. 빠진 그 길로 올라가야 한다. 끝까지 온 몸으로 올라가려는 신심이 꽉 찼을 때에 가능하다. 신심은 자기에게 주어진 활구화두를 믿어야 한다.

그 때는 부처님의 조사의 누구의 말도 믿지도 듣지도 말고 화두 하나만의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한다. 대신심은 이렇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런 믿음이 근원적인 믿음이다. 눈앞에 당면한 그 문제를 믿어야 한다.

정리=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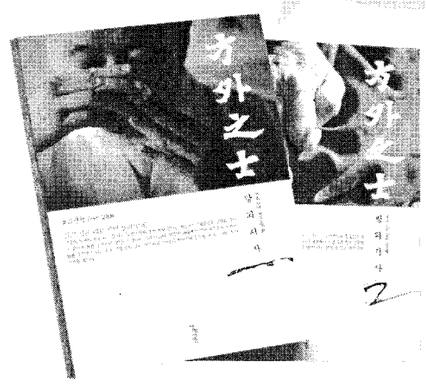
方外之士!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

인생에 정답은 없다, 나만의 길이 있을뿐 …

직장에 얽매여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만 하다가 한 세상 끝나는 것인가? 갑갑한 삶의 틀에서 빠져나와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은 과연 실현 불가능한 일일까? 백수의 제왕에서 무림고수까지 고정관념과 경계선 너머의 인생을 사는 13인 방외지사들에게서 진짜 잘 사는 법을 찾는다.



MBC 뉴스에 방영된 화제의 책
출간 즉시 교보, 예스24, 알라딘 베스트 진입



방외지사 1·2

조용헌 지음 (강호동양학자, 원광대학교 초빙교수, 〈5백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조용헌의 사주명리학 이야기〉 저자. 현재 조선일보에 '조용헌 살롱' 연재 중)

김홍희 사진 / 각 권9,000원

방외지사에 방영된 화제의 책 출간 즉시 교보, 예스24, 알라딘 베스트 진입

방외로 뛰쳐나가 행복을 찾은 우리 시대 삶의 고수 13인 이야기

- 20년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고향집을 수목원으로 일구는 시원 박태후의 귀거래사
- 뗏목 타고 서해 바다를 탐험하는 장보고의 후예 윤명철 교수의 대담무쌍한 도전 정신
- 백수의 제왕 강기욱의 "눈 먼 새도 날아다니면 먹을 것이 입에 들어온다"는 백수 철학
- 교사 출신으로 중국 제 1의 도교 문파인 화산파 23대 장문인이 된 곽종인의 여자 신선의 길
- 할리 데이비슨 타고 팔도를 돌아다니는 전직 기자 출신 시인 이원규의 지리산 생존법
- 역술계의 이종격투기장인 부산에서 입신양명한 박청화의 진기한 역술 공부 이야기
- 서울 이태원에서 계룡산으로 삶의 무대를 옮긴 산중무예 기천문 문주 박사규의 인생 역정
- 50년 세월 동안 한라산에서 화두를 잡고 초절의 삶을 사는 비구니 대각심 이야기
- 전국의 강을 두 발로 걸어다닌 신정일의 "걷다보면 길이 보인다"는 뚜벅이 인생
- 의사는 부업, 주업은 도학으로 평생 스승을 찾아다닌 내과의사 이동호의 구도 역정기
- 차 잎 냄새만 맡아도 원산지를 맞추는 품명가 손성구가 들려주는 인생 최고의 맛
- 실상사 앞에서 70 평생 발우를 만들며 살아온 지리산 터줏대감 김을생의 자연주의 인생론
- 늙어갈수록 아름답다는 나무의 철학을 깨치며 전통의 혼맥을 이어가는 소목장 이정곤의 삶

"인생에 정답은 없다, 나만의 길이 있을 뿐…." 오늘의 한국 땅에 사는 행복한 아웃사이더들의 인생행로를 저자의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낸 책. - 「조선일보」 박해현 기자

정신세계원 www.mindvision.org (02)747-7033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② - 서울 삼보선원

자부심이 대단했다. 첫 출발 때문이었다. 당대 선지식 성철, 청담 스님이 백성욱 서돈각 홍정식 거사 등의 걸출한 석학과 함께 1964년 창립한 '삼보장학회'가 삼보선원의 모태였기에 그렇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 간화선풍을 드날린 성철 스님 등의 '봉암사결사' 정신을 도심 한복판에 지금까지 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긍심은 남달랐다.

3월 22일, 서울 정릉에 자리 잡은 삼보선원을 찾았다.

'성철·청담 정신' 오롯이 지킨다

치열한 선문답으로 공부점검

삼보선원 3층 선방. 백발이 성성한 이정화 씨(90 · 광명자)가 말문을 연다.

"매일 새벽 6시 집에서 갖는 참선 시간은 늘 마음을 후련하게 만들어요.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 나를 없앨 수 있더군요. '이뭣고' 화두도 잘 들리고요."

20년 전, 인천 용화사 송담 스님에게 '이뭣고' 화두를 받은 이 씨. 참선 시간이면 번뇌 망상이 저절로 없어지는 경험을 한다고 말한다.

"맞아요. 수행은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이뤄져요. 꽉 막히는 데에서 공부가 되거든요."

삼보선원 초대 이사장을 지낸 조호정 씨(69 · 관해)가 말을 받는다.

구참자들간 문답은 이처럼 서로의 안목을 드러내며 공부 됨됨이를 점검해준다. 때론 치열한 선문답도 오가지만,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다. 30년 넘게 같은 죽비소리에 가부좌를 틀어온 도반들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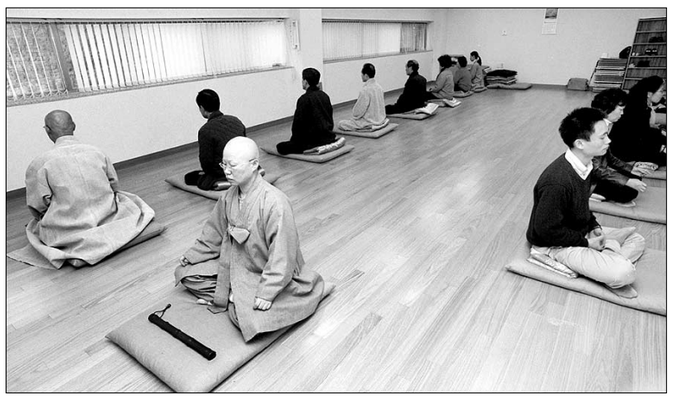
삼보선원은 1995년 개원했다. 얼핏 보면 역사가 짧아 보이지만, 그 전신은 1984년 시민선방에서 비롯된다.

그간 거쳐 간 재가선객들도 많다. 삼보선원의 전신인 삼보법회를 창립한 이한상 거사를 비롯해 선도회 지도법사 박영재 서강대 교수와 권영두 거사 등 쟁쟁한 재가선객들이 이곳에서 공부를 했다.

'부처님 법대로' 지향

삼보선원이 주창하는 수행정신은 '봉암사 결사'에 있다. 지난 1947년 성철, 청담, 자운, 우봉 스님이 '부처님 법대로 살며 수행하자'는 원력을 세우고 문경 봉암사에서 결사한 이 수행운동을 삼보선원은 근본이념으로 삼는다. 지난 1995년 시민선방을 삼보선원으로 명칭을 전환할 때, 봉암결사에 참여했던 前 조계종 종정 혜암 스님을 증명법사로 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삼보선원이 이처럼 봉암결사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봉암결사를 주도한 성철, 청담 스님이 삼보회 전신인 삼보장학회 설립을 선도했기에 그렇다.



서울 정릉 삼보선원 불자들이 3월 22일 선방에서 참선 정진을 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걸출한 재가 선객 배출…1대1 점검
경전 · 선어록 공부와 참선 함께 진행

삼보선원이 재가선원이지만 그 원력이 큰 까닭이 여기에 있다.

'독경+참선' 통해 선지(禪旨) 밝힌다

삼보선원 수행프로그램의 특징은 '독경+참선'에 있다. 이는 먼저 선지(禪旨) 법문이 오롯이 담긴 경전과 선어록 등을 먼저 배우고 참선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육조단경> <달마혈맥론> <벽암록> <이입사행론> 등이 강의됐다. 현재는 매주 일요일에 <화엄경> <법구경> <사십이장경> 등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동국대 박경준, 정병조 교수 등이 강의를 맡고 있다.

삼보선원의 특징은 무엇보다 1대1 지도점검에 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반부터 2시간 정도 좌선과 개인점검인 입실지도(入室指導)를 하고 있다.

입실지도는 초대 종달 이희익(선도회 창립자) 거사에 이어 97년 8월부터 정경문(62) 거사가, 선도회 최고령자인 권영두(76) 거사는 입승 소임을 맡고 있다.

특히 최근 수덕사 혜암 스님의 제자인 청봉 스님을 지도법사로 추대해 체계적인 수행지도를 하고 있다. 화두 점검은 매주 일요일(오후2시~4시)과 화 · 목 · 토요일(오후4시 30분~5시 30분)에 진행된다. (02)913-2859, www.sambobuddha.org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초기불교와 아비담마' 특강
각묵스님, 4월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최근 선우논강에서 '초기불교수행법은 분석적 해체, 간화선은 직관적 통찰에 있다'고 주장한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사진)이 오는 4월 13일부터 12주간 울산불교교육대학에서 '초기불교와 아비담마'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9시.

특강은 초기불교의 요체와 수행을 비롯해 △초기불교와 아비담마(분석과 해체) △마음이란 무엇인가 △업과 윤회와 세계 △왜 초기불교와 아비담마인가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특강에는 또 질의응답과 '사념처관'을 직접 실참하는 시간이 마련돼 초기불교수행법에 관심 있는 불자들에게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52)271-8579 김철우 기자

"명상하면 뇌활동 활발해진다"
안의태 순천향의대 교수, 세계 뇌학회서



'명상은 뇌의 활동을 제어할 수 있다.'

2005 세계 뇌주간을 맞아 세계 뇌학회 주최로 3월 15일 한서대학교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안의태(순천향의대 · 사진) 교수는 "요가와 명상(치료명상)을 함께 하면 뇌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며 "명상을 통해 뇌의 활동을 관장하면서 갖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동은 땀을 흘리고 장기를 움직이게 하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지만,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을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을 활발하게 한다"며 "명상과 요가의 훈련과정을 통해 고혈압, 스트레스 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신재 기자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11> 마조 선사, 고향 할머니에게 한방 당하다

무협지를 읽다가 보면 힘깨나 쓴다고 하면 '강호(江湖)의 고수'라는 호칭이 뒤따라 다닌다. 신경 좀 써서 만든 책은 어김없이 서문 맨 끝에 '강호제현의 질정을 바란다'는 말이 상투적으로 따라 붙는다. 강호라는 말은 '천하(天下)'라는 말이다.

강호라는 말의 어원의 주인공은 조사선의 실질적 완성자인 마조 스님이다.

그 시절 강서지방의 대표적인 인물은 마조 선사였고, 호남지방에서 가장 활약이 두드러진 사람은 석두 선사였다. 두 회상으로 공부인들의 왕래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에 이 두 선사를 찾아 뵙고 거량을 하여 인가받지 못한 납자는 뭘 제대로 모르는 안목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었던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분위기였다.



강서와 호남이 당시 모든 인재들의 집합지였던 것이다.

이렇게 천하의 인재가 모여들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아닌 과거제도의 문란이었다. 응시하는 실력자는 많은데 합격자는 언제나 '이미 내정된' 엉뚱한 사람들이었다.

부패한 과거제도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과거장이 아니라 '선불장(選佛場)'으로 모여들게 만들었다. 관리를 뽑는 곳보다는 부처를 뽑는 곳이 더 인기가 있었다.

그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 마조 선사였다. 단하천연 선사와 방거사는 불교를 만나기 전에 함께 과거길에 올랐다. 가는 도중에 마음을 돌려 부처를 뽑는 선불장인 마조선사 회상으로 출가한 이야기는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준다.

당시의 대 스타인 마조 선사는 광장설상(廣長舌相)과 천복륜상(千輻輪相)을 갖추고 있었다.

즉 혀가 코를 덮었고 발바닥에는 법륜이 새겨져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부처님의 32상을 표현한 것이다. 법문을 매우 잘하였고 열심히 교화했다는 의미다.

그의 문하에서 백여명의 깨친 사람이 나왔고 상주하고 있던 대중이 천여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총림이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소와 같이 점잖았고 눈빛은 언제나 호랑이 같았다.

그런 그에게 드디어 진짜 강적(?)이 나타났다. 무림의 고수도 아니고 강호제현도 아닌 어릴적 동네에 함께 살았던 할머니였다. 선종사에서 내로라하는 선지식들에게 가끔 이런 평범한 노파들이 나타나서 허를 찌르는 광경은 흔한 풍경이기도 하다.

마조 스님이 남악회양 선사에게 법을 얻고나서 이름을 떨치던 중 고향인 사천에 한번 들렀다. 금의환향하니 모든 사람들이 "큰스님이 오셨다" "우리 마을에 인재났다"고 야단들인데 시냇가에서 빨래하던 이웃집 할머니의 한마디는 그야말로 환영사의 압권이었다.

"무슨 경사나 난 줄 알았더니, 뭐야! 이 애는 마씨 농기구집의 작은 아들 아니냐!"

"???????"

늘 '평상심이 도'라고 말하던 마조 스님
아명 부르는 할머니 인사에 마음 '흔들'

마조 선사의 황당해 하는 표정이 눈앞에 선하다.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나 어쨌다나.

송대의 자료인 <오가정종찬>1권에 그 원문이 나온다.

권군막환향(勸君莫還鄕)
환향도불성(還鄕道不成)
계변노파자(溪邊老婆子)
환아구시명(喚兒久時名)

자네들에게 바라노니
고향에는 가지 말아라.
고향에 돌아가면 공부하기가 어렵더구나.
시냇가의 옆집 할머니가
어릴 때 나의 이름을 부르더군.

늘 '평상심이 도'라고 말한 그였지만 고향 할머니의 한마디에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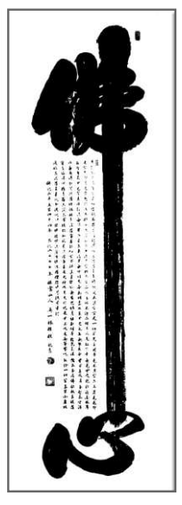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대구 혜광사 진일스님 제8회 선서화 작품 개인전

오랜 세월 한결같은 마음으로 선시와 선서화를 통하여 국.내외에서 포교활동을 하여온 진일스님 선서화전

한국최고의 선필 佛心(길이 11m), 달마도강도(길이 3m), 백두산 대흑호(길이 3m), 금강경병풍 10폭(길이 2m 35cm) 등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대작 350점을 선보인다.

그리고 사찰건립 모금을 위하여 수맥차단, 업장소멸, 소원성취를 이루는 거룩한 달마도 판매.
원하는 사람은 가훈 무료 기증(스님친필). 진일스님은 50년 동안 시와 선서화를 통하여 포교활동을 하여왔다





海成水滴

● 일시 : 2005년 4월 4일 ~ 4월 10일까지
● 장소 : 대구문화 예술회관 1,2,3 전시실
● 문의 : 혜광사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2040-3)
053)473-3131, 011-529-3132

시집 - 거룩한 향기, 고향의 달, 텅빈 마음 (출간)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38)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철학에서 지혜로, 종교에서 길로

저는 영어나 한문을 쓰기가 두렵습니다. 사전은 말의 거친 대강의 의미만 알려줄 뿐, 거기 담긴 구체적 맥락은 물론, 단어의 섬세한 감정과 뉘앙스까지를 보여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외국어 속에서 젖어 살아보아야 합니다. 사전의 풀이에만 의존해 영어나 한문을 말했다가, 오해와 불통으로 고생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곤혹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유희와 편견으로서의 말

각각의 언어는 사물을 분류하는 나름의 체계를 갖고 있고, 그들 사물에 서로 다른 의미와 상징, 그리고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과 이름은 사물 자체의 성격을 보여준다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사물을 구분하고 연관짓는 의미화의 방식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의미화의 방식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기에, 그래서 제가 한사코, 노장과 불교의 근본 통찰을 따라, 말과 이름이 객관적이기보다 주관적인 것임을, 실체적 고정적이기보다 임의적이고 유동적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는 그런 점에서 '진리'보다 '유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달리 말하자면 말과 이름은 '사실'이기보다 '편견'이기 쉽습니다. 말은 위험하고 미끄러운 도구입니다.

각설하고, 각각의 언어는 사물을 분류하고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서로 다른 체계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불교를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불교는 철학이요, 종교요?" 이 질문에 곤혹스러워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네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교는 철학이다." "불교는 종교다." "불교는 철학이기도 하고, 종교이기도 하다." "불교는 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다." 제가 늘어놓은 선택지를 보고, 곧 바로 "아, 이것 용수 나가르주나의 사구(四句)를 닮았다"고 느끼신 분은 불교를 고민해 보신 분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용수 나가르주나는 이 모두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학은 원래 그리스에서 태동해서 오랜 변화를 거쳐 온 서구적 전통의 산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이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불교 즉 '붓다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혔을 뿐, 그밖의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 세상의 고통과 곤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 말을 듣고 익혀라." 불교는 그래서 서구의 근대철학이 설정한 인식론적 관심과 논리학의 엄밀한 방법을 의식하거나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불교는 철학입니까, 종교입니까?



불교는 종교인가, 아니면 가르침인가

불교는 또 종교일까요. 기억하십시오. 불교(佛敎)는 이름 그대로 다만 '붓다의 가르침'이었을 뿐, 그것이 종교냐 아니냐를 묻지 않았습니다. 철학이 그리스어에 기원을 둔 '필로소피(philosophy)'의 번역어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 또한 '릴리젼(religion)'의 번역어일 뿐입니다. 당연히 그 전통과 역사는 서구의 것이고, 그 기준 또한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에 걸맞게 '유일신'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무신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가 기독교와 맞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선전한 전략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초월적 인격을 믿고, 그에 의존하는 것을 삶의 길로 채택하는데 대해, 불교는 자신의 불성을 믿고, 그것을 깨달음과 수행으로 개화시켜 나가는 자력의 지혜라는 뜻에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불교는 수많은 신화를 갖고 있고, 불보살들의 세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신론이라기보다 다신론의 체계입니다. 또 대승의 발전에 있어, 대승이나 일심 등의 근본 원리를 축으로 한다는 점에서 범신론적 체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불교는 초월적 인격이 저 하늘 꼭대기에 있어서 인간의 일을 감시하고 심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종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다르게 말합니다. 종교의 기준을 초월적 인격으로 설정하는 것은 너무 유대교적 기독교적 편견이라면서, 종교의 핵심을 '인간의 궁극적 관심'으로 전향시킨 것입니다. 루돌프 오토가 설정한 이 기준으로 하자면, 불교나 유교는 인간의 구원이라는 최종적 관심을 축으로 돌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깊이 '종교'입니다.

또한 앞에서 철학 또한, 원래 인식론의 복잡성이나 논리적 엄밀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원래 그리스와 로마에서 그랬듯이, 삶의 길을 제시하는 지혜에 대한 갈망과 추구로 규정한다면, 불교와 유교만큼 철학적인 것이 다시 없습니다.

철학이나 종교에서 지혜로 거듭나야

그런데 이제까지는 이렇게 유연하게 여유 있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철학이 아니라 하면 체계도 없고 논리도 허술한 잠꼬대로 오해할까 극구 철학이라고 변명했고, 종교가 아니라면 유일자의 중심도 없는 다신교 정도로 미신 취급을 받았기에 극구 종교라고 강변했던 것입니다.

회고해보면, '철학'과 '종교'의 새 이름이 등장함으로써 유구한 전통의 불교와 유교는 때 아니게 정체성을 의심받고 정당성을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그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물음 앞에서 우리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질문은 권력적입니다. '누가 묻는가'의 주도권을 서구가 거머쥠으로써, 질문에 당황한 나머지 불교와 유교는 혹은 부끄러워하고 혹은 변명하고 혹은 저만큼 피해갔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너희들 기준으로 한다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유교 또한 철학이 아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가르침이고 배움이면 족하지 않은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물을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는 과연 깨달은 사람이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해탈을 위한 적절한 지혜인가 아닌가."

백년의 추궁을 당한 끝에 이제는 질문의 마이크를 불교와 유교도 쥐게 되었습니다. 철학은 역시 삶의 기술(art)이어야 하고 종교는 역시 인간의 길이이어야 한다는데 서양이 한발 앞서 숙이고 들어온 것입니다. 러셀 이래, 철학이나 종교는 삶의 보편적 문제이며, 서양의 전통만큼 동양의 정신적 전통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둘의 문명사적 조우가 가져올 의미가 심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을 받아들인다면, 서양과 동양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풍요롭게 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자신의 '이름'을 너무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와 소통은 타자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또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한 걸음 유보하고 비워주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저쪽은 '철학'이나 '종교'의 현실적 실용적 차원을 고민해주어야 하고, '불교'와 '유교'는 자신을 대단하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달라진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가치를 입증할 적절한 방도를 찾아나가야 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혜능 대사(638~713): 중국 선종의 제6조. 광동성 신주출생. 황매현 동선원에서 5조 홍인대사에게 출가. 홍인대사로부터 달마의 법을 이음. <육조단경>에 행적과 선사상이 기록됨.

네티즌 교리문답

망상은 어떻게 없애나요?

문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망상은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가령 밥 먹는 것, 진급하는 것, 돈 버는 것 등 대인 관계 속에서 살아 나가는 재가불자들이 한 생각 일어났을 때, 화두로만 돌이키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불학자)

답 1 : 생각을 망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서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비로소 망상이 될 뿐 망상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없고 계획이 없고 게을러빠진 사람이라면 부처님이 된들 그런 사람을 뭐에다 쓰겠습니까?

찬밥이든 더운밥이든 진수성찬이든 꽁보리밥이든 그딴 것에 애달아 할 것이 아니라 아무것이나 닿는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잘 먹고 결과에는 연연치 말아야 합니다. 다만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 순리대로 열심히 즐겁게 일하고 남에게 진실하며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면 부자가 돼 한다거나 진급을 빨리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꾸준하고 성실하게 임한다면 원하지 않아도 일은 저절로 술술 풀리는 것이니 이와 같이 마음이 넉넉해지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보람찬 것입니다. 또 저절로 부자가 되는 것이며 때에 맞춰 꼭 맞게 진급하는 것이니 대인 관계도 원만해 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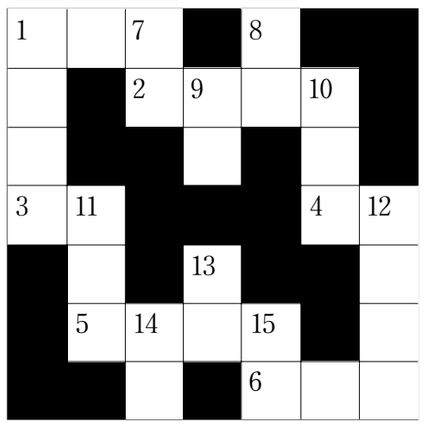
이렇게 한 마음 돌리고 열심히 살아 갈 때 비로소 자신이 바로 부족함 없이 원만 구족한 부처님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

답 2 : 절대로 돈벌 수 없는데도 돈 버는 것 생각하고 추구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지요. 그걸 보고 망상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외 돈버는 것에 대해 한 생각 일어난 것이 왜 망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참으로 모르겠군요. (도레미)

답 3 : 보리의 또 다른 표현이 망상입니다. 즉 보리와 망상은 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원효스님도 <이장의>란 논서를 짓지 않았습니까?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망상이 있어야 공부가 됩니다. 보조 스님이 '땅에 넘어진 자 땅을 인연삼아 짚고 일어서라' 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순간순간 일어나는 번뇌 망상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음공부의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금강소석)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고생대에 크게 번성한 절지동물로 절멸한 화석동물 2. 산과 강을 잘 관리해 홍수 · 가뭄의 피해를 방지함 3. 상업에 관한 사권(私權)관계의 법률 4. 흥부전에서 박씨를 물고 온 새 5.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6. 생산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

세로 1. 우주 속에 존재하는 온갖 사물과 모든 현상 7. 미생물에 침해돼 상한 치아 8. 희고 깨끗한 이, 호치라고도 함 9. 식물의 광합성 결과 생기는 기체, O2 10. 불면증을 진정시켜 잠이 들게하는 약 11. 우주의 진리를 인격화한 부처로 비로자나불을 뜻함 12. '한 두 번이 아니고 많다'는 뜻의 한자성어 13. 염불(念佛) 등을 할 때 손에 들고 횟수 등을 헤아리는 데 사용하는 법구(法具) 14. 철로 만든 전투용 헬멧 15. 산이나 들에서 절로 나고 자라는 동식물.

인생의 고비마다 떠오르는 스승이 들려준 삶의 지혜



하버드 졸업생은 마지막 수업에서 만들어진다
데이지 웨이드먼 엮음 | 안명희 옮김
1만원 | 세종서적

하버드 경영대 교수 15인이 마지막 수업시간에 제자들에게 전한 가르침

하버드 졸업생들은 마지막 수업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한다. 인생의 고비때마다 불현듯 떠오르는 스승의 주옥같은 마지막 말들이 삶의 큰 지혜가 돼주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스승은 거친 세상의 파도 앞에 선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해주었던 것일까? 왜 하버드 졸업생은 마지막 수업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 하버드 경영대 교수 15인이 미래의 CEO에게 주는 삶의 교훈들을 한데 엮었다. 제목은 <하버드 졸업생은 마지막 수업에서 만들어진다>이다.

"그대, 미래의 리더들이여! 당신이 누구인가를 절대로 잊지 마시오."

로자베스 모스 캔터, 킴 클라크, 낸시 코엔, 토머스 드롱, 스티븐 카우프만 … 등. 듣는 것만으로도 입을 다물 수 없는 하버드 경영대의 빛나는 교수들이다.



하버드대 졸업식 모습. 하버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는 교수의 자질이 아닌 학생들의 신념에 달려 있다.

교수들이 털어놓는 이야기는 모두 다르다. 각각의 교훈들 역시 교수들의 성격만큼이나 다양하다. 하지만 어떤 교수일지라도 빼놓지 않는 것이 있다.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수업에서 말한다.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처럼 이 책은 양심과 정직의 가치에서 아주 작은 커뮤니케이션의 기술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을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알려준다.

제프리 F 레이포트 교수는 자신의 하버드 경영대 재학시절의 경험을 한토막 들려준다. 그는 2학년 2학기때 경영학과는 무관한 '동물학' 강의를 신청해 들었는데, 기말고사때 일이 터지고 말았다. 박제된 새를 삼베 주머니로 뒤집어 씌운 카드를 시험장에 갖다 놓고는 이 새의 특징과 이동패턴, 식생활, 짝짓기 습관, 의사소통 방법을 추론하라는 게 시험 문제였다. 보이는 건 박제된 새의 앙상한 두 발뿐. 여기저기서 황당하게 생각한 학생들의 볼멘소리가 터졌다. 그 중 1명은 "이 황당한 시험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교와 대판 싸운 뒤 시험장을 나가버렸다.

레이포트 교수는 살아가면서 이 시험문제에 숨겨진 메시지를 점차 깨닫게 되었다. 인생이나 비즈니스에는 바로 불확실한 것이 많다는 사실이다. 극도의 불확실성과 긴박한 상황 변화 속에서 진로를 계획하는 일은 거의 형체를 확인할 수 없는 박제된 새를 놓고 논술시험을 치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그는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다.

데이비드 벨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5년 후 여러분은 졸업 5주년 동창회 초청장을 받을 것이다. 결코 참석해선 안 된다. 10년 후, 15년 후도 마찬가지다. 그 곳에 간 순간 여러분은, 친구들을 보기도 전에 그들이 타고 온 차를 보며 자신의 위치를 가늠할 것이며, 칵테일 잔을 마주치며 이미 CEO에 오른 친구의 자랑을 듣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것이다.



세계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미국 하버드대. 하버드경영대 교수들은 마지막 수업시간에 명문대라는 자부심 대신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을 졸업생들에게 전한다.

문제는 그로 인해 자신이 설계한, 자신이 가고자 한 삶을 잊은 채, 화려해 보이는 다른 행로를 택할 가능성이 크며, 그 순간 불행한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다

자이 자이쿠마르 교수는 명상가 '오쇼 라즈니쉬' 못지않다. 등산을 즐기는 그는 40년 전 히말라야 산 정상에 오른 뒤 하산하다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했다. 울퉁불퉁한 경사면을 따라 약 2.4㎞ 정도의 거리를 미끄러져 내려갔다. 온 몸은 찢겼고 엉덩이뼈는 산산조각 났다. 가까스로 그는 산간 마을 한 여인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응급처치를 마친 그 여인은 그를 등에 업고 3일간 계속해 병원이 있는 마을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 여인의 관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된 그의 새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많은 '행운'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살아오면서 소유하고 누린 크고 작은 것 모두가 행운이고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산을 오르는 열정은 나를 어느 특별한 봉우리로 오르도록 이끌어주었지만, 추락은 내가 보다 높은 곳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들에게 긴장을 늦추라고 강조한다.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건 긴장을 늦추고, 부디 주어진 삶을 즐기고 축하하기 바란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한 위치에 있는지, 헌신적인 스승이나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남으로써 내게 얼마나 커다란 '행운'이 찾아왔는지 깨닫기 위해 노력하라."

이 책을 덮고나면 책을 읽은게 아니라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 마지막 수업을 듣고 난 느낌이 든다. 그곳에서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이고, 올바른 리더가 갖추어야 할 인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도록 해준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경영의 교양을 읽는다
박기찬 · 이윤철 · 이동현 지음
더난출판 펴냄 | 3만5천원

경영 100년사를 주도해 온 명저 30여 권을 엄선하여 소개한 책이다. 단순히 고전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고전 속에 숨어 있는 진리와 지혜를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을 점검하게 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도를 제공해준다. 특히 고전적 이론과 개념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어렵고 딱딱한 지식이 아닌, 말랑말랑한 교양으로서의 경영 지식을 전달해 준다.

이 책은 국내 경영학자들이 경영서의 고전으로 불리는 30권을 선정, 핵심 아이디어와 구성, 주요내용, 현대적 시사점, 저자소개 및 도서 정보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근대적 의미의 기업이 태동하고 발전했던 1910~1960년대, 치열한 경쟁과 경영효율화가 목표였던 1970~1980년대, 백가쟁명식 경영이론이 나왔던 1990~2000년대로 나누어 각 시기의 고전을 소개한다. 저자들은 이 시기를 각각 경영의 시대, 경영의 전략을 발견한 시기, 경영의 르네상스로 지칭했다.

그런데 저자들은 경영고전들이 가장 현대적 이론서들과 일맥상통함을 발견한다. 가령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레더릭 테

고전으로 본 경영 100년사

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서 주장하는 구체적 경영아이디어는 이런 것들이다. '과업관리' '하루의 공정한 작업량' '차별 성과급제' 등. 현대에서 논의되는 연봉제, 성과급제란 개념은 테일러의 이론에 좀더 다양한 양식만 덧붙였을 뿐이다. 더 재미있는 것은 '과학적 관리법'의 목적을 테일러는 '노사간의 최대 번영과 함께 종업원의 최대번영을 창출하는 데 있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Good to Great)'와 100여년의 시차를 뛰어넘어 상당부분 일치하는 셈이다.

제1부는 191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초기 경영의 시대로, 경영의 가장 본질적인 의문점들을 해결해주는 책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석유파동을 기점으로 기업경영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경영의 화두로 등장하며, 경쟁에 관련된 주제들이 주요 관심사로 다뤄진다.

이전의 책들이 주로 기업 차원의 경쟁력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제3부인 1990년대 이후의 책들은 기업의 문제를 다루는 데서 나아가 다른 사회 영역에 접목될 수 있는 논의들에 집중하고 있다. 과거의 경험과 그 산물들을 통해 경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발전했으며, 현재는 어떤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독자들 역시 경영서적에 대해 막연한 지식의 수집보다는 지식을 소화하는 양식을 개발하라고 권고한다. 실용도서 한두권의 지식에 의존하기 보다 실용도서가 출간된 배경, 경영의 고전적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 책은 학생에게는 정독, 시간이 부족한 회사원 등은 키워드 중심, 경영분야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집단은 책의 구성을 반대로 읽어 현대적 베스트셀러 경영서적의 핵심을 파악하는 독서법까지 알려준다.

■김영인(한국미래경영연구소장)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참옻의 신묘한 약성을 조청으로 먹는다!
山寺 참옻조청 · 약도라지조청
어혈, 노폐물, 피로독소, 적체의 해소 / 손발저림, 몸의 냉증, 다이어트 / 위장, 심장, 신장등 / 오장육부기능 정상화 / 신경조율, 관절염, 항암, 원기회복에 기여
기관지, 천식, 기침의 완화 / 호흡기 질환개선 / 폐기능 강화, 피로회복 / 거담, 배농 작용에 기여
속이 편안하면 오래살고 몸이 따뜻하면 만사가 잘 풀린다
● 山寺 참옻조청 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거사님의 비법으로 참옻 나무의 유독성은 제거하고 좋은 약성만 추출, 농축하였으므로 누가 먹어도 옻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山寺 참옻조청 은 국내산 좋은 원료만을 사용하여 사찰에서 7일동안의 정성으로 겨우 한 솥 고아지는 극소량의 명품조청입니다.
● 山寺 약도라지조청 은 천연 야생 약도라지에 야생약초를 가미하여 약도라지의 약성을 배가시켜 고농축 시킨 고품격 조청입니다.
문의 및 주문처 : 054-372-3166 054-372-5721 금용사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 현순희
(산사 참옻조청과 약도라지 조청은 주문에 의해서만 만듭니다)

"부처님 등불"
수공예 전기촛불
귀의 삼보 하옵니다.
기도 도량에 수행정진하시는 스님 불자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가 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화재위험 및 그을음과 미세한 먼지로 인하여 건강을 걱정 하시는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이런 점들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수공예 양초를 이용한 전기 촛불을 개발 하였습니다. 특히 조각 모양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고안되어 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스님과 불자님 이제는 안심하시고 늘 24시간 "부처님 등불"을 밝히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등불' 특징 안정성과 그을음이 없고 불자님 가정과 법당에 늘 환히 밝힐 수 있으며 30초 간격 마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입니다.
사용처 부처님전, 산신각, 탱화 등 기도용으로 널리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소원성취(자주) 소원성취(노랑) 소원성취(흰색) 소원성취(파랑)
연꽃초 법당, 탑돌이, 방생 등 특히 야외의 다양한 곳에서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보현불교예술원 | 불교용품 · 불상조성 · 전기촛불 · 양초제작
전국 불교 용품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81-119번지 02)996-8830

"불서보급 30년 전통" 동진기획
제품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보답하겠습니다.
묘법연화경 • 금장가죽양장제본 • 캐이스삽입 • 값 35,000원

금강경수첩 • 비닐수첩 • 값 2,500원

예수재용품 • A 값1,200원 • B 값1,500원

예불천수경수첩 • 비닐수첩 • 값 2,500원

영가천도다라니 • 값 1,200원

자비도량참법 • 양장제본 • 값 15,000원

신판불자수첩 • 비닐수첩 • 값 3,000원

영가종이옷

• 남(男) 값 2,000원
• 여(女) 값 2,000원
성불합시다 • 양장제본 • 값 16,000원

불자신행집 • 비닐수첩 • 값 3,000원

Since1975
동진기획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051)515-8888(代)
FAX:(051)508-0101
H·P:011-554-2988
■불교서적 ■불교카렌다 ■주문카렌다 ■
■불교용품 ■연 등 ■사찰인쇄전문■
E-mail:tunhwang@yahoo.co.kr
www.dongjin.biz
※대량구입시 가격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인 박정자씨가 불보살의 명호를 쉽게 설명한 불화 안내서를 펴냈다.

불보살 이름 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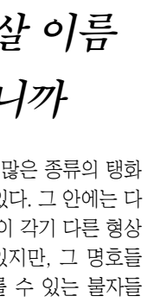
사찰에 가면 많은 종류의 탱화들을 만날 수 있다. 그 안에는 다양한 불보살들이 각기 다른 형상으로 표현돼 있지만, 그 명호들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불자들은 많지 않다. <신비한 불화의 세계>는 이러한 불자들을 위한 책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 박정자씨가 펴낸 이 책은 부처님을 주존(主尊)으로 하는 상단 탱화, 보살을 중심으로 그린 중단 탱화, 신중과 천왕 등을 형상화한 하단 탱화 등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종류별로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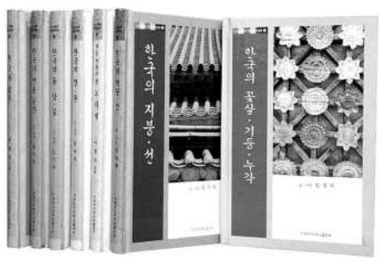
소개되는 불화들은 박씨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명장의 붓끝으로 살아난 부처님 형상의 장엄미도 함께 느낄 수 있다. 박정자씨는 "탱화의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각각의 그림이 담고 있는 의미까지 전할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라고 출간 의의를 밝혔다.

강신재 기자

신비한 불화의 세계
박정자 지음
광진문화사
3만원



우리문화 더 깊이 맛보기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이화여대출판부 펴냄 | 전7권 | 각권1만2천원

각 대학 출판부들이 일반인들을 위한 시리즈물을 펴내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가 올컬러 한국문화 입문서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시리즈를 선보이며 독자들 곁으로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 2년간의 기획 기간을 거친 출판부는 2009년까지 총 50권을 펴낼 예정으로 최근 1차분 7권을 먼저 출간했다.

시리즈는 문학 · 건축 · 미술 · 역사 등의 큰 주제 아래 세부 주제가 다시 나누어져 있다. 문학에서는 탈춤과 민요 판소리 여성 문학 등을, 건축에서는 지붕 꽃살 기둥 등을, 미술에서는 일반회화와 조각 도자공예 목공예 등을 배치하는 형식이다. 집필은 해당 분야 전문연구자가 맡았고 각 책은 영어본이 함께 발간된다.

출판부는 "지나치게 학술적인 경향이나 단순 안내서 수준을 지양하고, 한국의 전통 문화의 근간을 세부적으로 천착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우리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방적 전문성'을 띄게 했다"고 밝혔다. '개방적 전문성'이란 각 분야를 세부적 · 전문적으로 짚어보면서도 작은 판형과 풍부한 시각적 자료를 이용해 독자들이 보다 친근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구성을 말한다. 출판부는 이러한 구성방식을 통해 현대 문명이 유발한 문제를 치유하는 대안이 우리문화의 본질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리즈에서 살피고자 하는 우리 문화의 근원에 불교가 있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책에서 다루는 주제들 대부분은 불교에 잇닿아 있다. 건축과 미술, 문학 등 역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교의 역사적 문화적 의의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계기가 된다.

이대 출판부 2년간 기획 거쳐
2009년까지 50권 발간 계획
1차분 7권 전통건축 등 펴내

총론격인 1권 <한국사 입문>은 신형식 교수(상명대)가, 2권 <전통 한복의 멋 노리개>는 이경자 한국복식문화연구원장이 집필을 맡았다. 3~7권에서는 임석재 교수가 우리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지붕 · 선, 꽃살 · 기둥 · 누각, 창 · 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직선도 아니고 곡선도 아닌 사찰 지붕 선의 조형미뿐만 아니라 법당 문을 수놓고 있는 꽃살, 휜 나무를 그대로 사용한 기둥 등 각 분야의 구성요소를 하나하나 떼어내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한 점도 눈에 띈다.

"꽃살과 공포로 대표되는 사찰 건축의 화려한 장식은 공(空)사상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화엄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이것들은 불교의 또 다른 중요한 사상인 화엄의 개념을 상징한다"는 글은 사찰에 담긴 불교 사상을 읽는 임 교수의 폭 넓은 시각과 이해를 느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화여대출판부는 이 책들을 오는 10월에 열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출품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계단은 인간의 이동을 담당하는 기능외에 불교의 단계론적 인연이나 인생 여정을 상징하기도 한다. 사진은 장곡사 대웅전을 오르는 돌계단.

새로나온 책



■ **<빛과 연꽃>**(광덕 스님 지음, 김응화 디자인, 종이거울, 6천원)= "혼자 있을 때 슬픔과 함께 하지 마라. 노여움과 함께 있지 마라. 오직 부처님과 함께 있으라. 진리의 자비광명 앞에서는 온갖 슬픔과 죄가 스스로 소멸된다." 광덕 스님의 법문과 짧은 메시지를 모아 하루에 한 구절씩 뜻을 되새겨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응화 교수(한양대)의 연꽃 디자인이 곁들여져 사색의 깊이를 더해준다.



■ **<착한아이 콤플렉스>**(조안 루빈-뒤치 지음, 김선아 옮김, 샨티, 1만원)=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말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기를 강요받는다. 이러한 억압기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을 '착한사람 콤플렉스'에 시달리게 한다는 것이 상담심리사인 지은이의 주장이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자문하는 어른들에게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마하바라타><라마야나>**(비야사 발미키 지음, 주해신 옮김, 민족사, 각 1만3천원)=1993년 번역 발간됐던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가 다시 출간됐다. 인도네시아, 네팔, 싱가포르 등 동남 아시아 여러 국가의 사원에서는 두 서사시에 등장하는 인물의 조각품과 그림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동남 아시아권 문화의 뿌리 깊은 신화다.

누가 진짜 미륵일까



우리 곁에 오신 미륵
원통 스님 지음 | 해조음 | 9천6백원

익산 미륵사지와 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 오늘날 전하는 문화유산을 통해 우리는 미륵신앙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정치권의 학정 등으로 삶이 궁핍해질 때면 민심은 미륵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내려와 불국토를 일굴 것이라 기대했고, 이러한 기대심리에 부응하듯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미륵'임을 자처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미륵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실제 미륵은 어떤 뜻이고, 미륵신앙을 불교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대구 정토사 주지 원통 스님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미륵 사상을 불경에 근거해 살펴보는 <우리 곁에 오신 미륵>을 펴냈다. 1975년 탄허 스님의 '개벽과 화엄사상' 강의를 듣고 불교가 말하는 궁극의 이치가 무엇인지 의문을 느꼈다는 원통 스님은 5년 전부터 '대승불교 사상의 핵심에 미륵불 사상이 담겨 있다'는 믿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스님은 책에서 "대승불교 경전에서의 여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미륵 부처님을 칭하는 것이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를 위해 대승불교 사상을 하나씩 짚어본 후, 미륵은 7단계에 걸쳐 완성된다고 말한다. 또한 과거 미륵이라 칭한 사람들의 오류가 무엇인지 바로잡고 어떤 조건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미륵이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전통과 만난 우리불교



우리불교 우리문화 김용덕 지음 | 밀알 | 2만원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부회장 김용덕 교수(한양대)가 현대인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 <우리불교 우리문화>를 펴냈다. <한국민속문화대사전> <효봉선사 일대기> 등의 책을 펴낸 바 있는 김 교수는 "우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불교를 알아야 한다는 뜻에서 불교입문서를 펴내게 됐다"고 말한다.

"편리하고 쉬운 것에 길들여진 현대인에게 불교는 점점 어렵게 느껴질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교는 한국인의 생각과 정신은 물론 일상생활에까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문화를 불교적 코드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단순히 불교의 형성체계와 교리를 설명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1부 '어려운 불교를 알기 쉽게'에서는 불교의 전래와 사상, 불교미술은 물론 최근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참선과 명상, 다도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 2부 '불교의 바다에 핀 이야기꽃'은 불교의 이야기, 즉 설화에 대한 설명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불교설화의 형성과 전개 원리를 비롯해 청평사 연기설화와 가야 불교설화를 통해 본 상징체계 연구, 스리랑카 불교설화와의 비교 등도 담겨 있다. 또한 '동양 최대, 세계 최고는 그만' '속담에 비친 불교의 모습' 등 불교를 접하며 느꼈던 자신의 감상을 옮겨 놓아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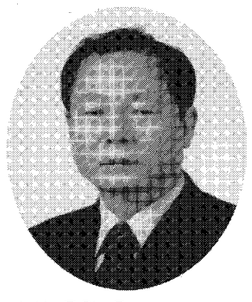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입보리행론	샨티데바	하얀연꽃
2	방외지사	조용헌	정신세계원출판부
3	이장의	은정희	소명출판
4	용서	달라이 라마	오래된미래
5	영가천도	우룡스님	효림
6	조용헌의 사찰기행	조용헌	이가서
7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8	번뇌 업 고통	정승석	민족사
9	오체투지	한경혜	반디미디어
10	마음밭을 가꾸는 불자	보성스님	효림

도서 안내 : (02)737-0695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억겁의 체증을 통쾌하게 씻어주는 이 시대의 야부 선사!
대원 문재현 선사(전강 선사님 인가제자)의 감로법문
바로보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大吉)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건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424쪽 각권정가10,000 원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성명학-누구나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일곱 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원통 지음 | 신국판 | 394쪽 | 값 9,600원
이 책이 던지는 일곱 가지 질문
1 아함경에서 설하는 인수 팔만 사천 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소승경전의 무상성과 대승경전의 항상성은 어떠한 관계인가?
3 12연기법의 무명과 대승불교의 광명사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은 중생이 부처되는 교설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5 화엄경의 세계는 실세계인가? 아니면 상상의 세계인가?
6 주역에서 설하는 선천 · 후천의 개벽사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은 무엇인가?
7 극락세계는 진정코 서방세계에 있는가?
이 책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일곱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립니다.
미륵불은 한 사람이 성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6불과 당신 스스로를 포함하여 현세 7불의 본말을 밝혔듯이, 미륵이 오실 때도 7불의 처음과 끝을 밝힌다고 하셨는 까닭에 미륵불은 6명의 도통을 이어서 7번째로 완성하심을 스스로 밝히게 되어 있다. 이제 일곱 분의 도통 연원과 의의를 밝히며 비로소 드러나는 진眞 대승불교의 일불승 사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구입문의 : 해조음 053) 624-5586 / 정토사 053) 622-0333

불자 음악가들 부처님오신날 기념 무대 나들이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 피아니스트 주형기씨 협연…수익금 '자비나눔' 기금으로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이 현대음악의 역사를 새로이 쓸 수 있었던 이유는? 한 마디로 서양의 악기로 내밀(內密)한 동양적 정서를 성공적으로 구현해 냈기 때문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그 같은 작업을 이어온 주형기씨 등 불자 음악가들, 불교계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와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4월 26일 저녁 8시 호암아트홀에서 봉축기념 '창작명상음악회'를 연다. 피아니스트 주형기, 지휘자 안드레이 안드리에프, 작곡가 김대성 · 이진구 등 '불교'와 '서양음악'의 접점을 모색하는 국내외 음악가들이 한데 모여 정중동(情中動)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무대다.

이날 공연의 백미는 세계적인 불자 피아니스트 주형기씨의 협연 무대. 주씨는 16살 때 스트라빈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천재성을 인정받은 클래식 연주가로, 빌리조엘의 음악을 피아노로 연주한 음반 '환상과 망각'이 18주 동안 빌보드 클래식 차트 1위에 오르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반야심경을 외고 잠자리에 들 정도로 독실한 불자인 그는 "불법을 닮아 곧고 거침없는 선율이 돋보이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협연곡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주씨가 국내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교를 소재로 삼아 한국 클래식 명상음악을 시도한 불자작곡가들의 창작명상곡도 공개된다. '한국음악을 이끄는 10인'에 선정된 바 있는 작곡가 김대성씨는 <님맞이>를 통해 한국적인 클래식을 선보인다. 이는 박경훈 스님의 선시를 음표로 구현한 곡으로, 불립문자 선(禪)의 사상을 '규격을 갖춘 서양의 기법'을 빌어 표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대성씨 禪사상 담은 창작곡 공개

이진구씨 '광명진언' 클래식 선보여

작곡가 이진구씨는 대금과 오케스트라의 협연을 통해 국악과 서양 클래식의 접목을 이끈 '광명진언'을 무대에 올린다. 대금의 리듬을 반복하며 진언의 느낌을 살렸으나 오케스트라의 조화로운 선율속에 진언의 무게를 녹인 곡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창작오페라 '동승(작곡 이건용)'의 출연자들이 그대로 출연, 당시 연주를 맡았던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춘다.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게 된 안드레이 안드리에프는 동양음악과 불교에 정통한 불가리아 출신의 지휘자로,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두 차례 공연을 가진 바 있다.

강형진 단장은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협연으로 새로운 스타일의 현대 불교음악을 선보이게 돼서 기쁘다"며 "양질의 음악회를 통해 불자음악가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한국불교음악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음악회는 조계종의 '봉축 자비나눔'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다. 니르바나 측은 이번 음악회를 통해 '자비나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음악회(9월), 지방순회 키즈음악회 등으로 음악을 통한 나눔의 정신을 실천에 옮길 예정이다. (02)415-2599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이번 음악회의 지휘자로 초청된 안드레이 안드리에프.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머리맡에 늘 경전 … 음악학교 수석 졸업

■ 피아노 협연하는 주형기는?

1973년 영국에서 출생한 주형기는 바이올린의 거장 예후디 메뉴힌에게 발탁돼 본격적인 음악수업을 받았다. 뉴욕 맨하탄 음악학교를 최우수로 졸업하고, 16살 때 스트라빈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천재 피아니스트로 극찬받기 시작했다. 백악관 초청 공연, 카네기 홀 단독 피아노 리사이틀 등 수많은 초청공연을 벌여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빌리 조엘과 공동 작업한 음반이 장기간 클래식 차트 1위에 올라 화제가 됐다.

기독교인의 장학금 지원 등의 유혹을 뿌리치고 머리맡에 늘 경전을 두는 '불자 음악가'로도 유명하다. 영국 연화사 신도회장인 아버지의 권유로 불교와 가까워졌지만, 후원을 맡은 진명스님 등 한국불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불교서적을 탐독할 정도가 됐다.

현재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활동하며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양식을 모색하는 중이다. 희극과 음악을 통합한 <Duel>을 제작해 에딘버러와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현재 영화배우 가브리엘 번과 함께 시와 산문을 클래식 음악과 접목하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백악관 초청 연주가 끝난후 청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주형기씨.

고무신 통해 不二사상 표현

희상 스님의 '하나로 돌아가기' 展



희상 스님 作 '관조를 통한 하나됨'.

불교에서 '발'은 특별한 개념이다. 불상이 조성되기 이전에는 부처님을 두 발의 형상(불족적 · 佛足跡)으로 표현하곤 했다. 45년 간 곳곳을 누비며 중생을 제도하고 진리를 전파한 의미를 상징화한 것이다.

희상 스님은 그 같은 발의 이미지를 '고무신'에 담았다. 스님은 4월 8~17일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개인전 '하나로 돌아가기'를 연다. 스님들이 신다가 버린 낡은 고무신으로 불법을 얘기하는 설치미술 전시회다.

1000개 석고 신발에 금강경 새겨

1000개 고무신의 석고를 떠서 선반 위에 진열한 작품 '관조를 통한 하나됨'이 대표작이다. 신발 주인 발의 형태가 제각각인 탓에 모양과 크기도 모두 다른 고무신. 그것의 석고 모델 역시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각각의 스님네들이 체화한 불법의 깊이, 부처님 가르침을 대중에게 회향하는 방식 등에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그 근본이자 목적은 결국 하나다. 작품의 주제가 '하나로 돌아감'인 이유가 설명된다.

진열된 석고 고무신에는 경전 글귀까지 새겨져 있다. 희상 스님이 밤낮으로 독송하는 <금강경>이다. 스님은 "하루 8시간씩 1년을 꼬박 새겼다"며 "천 가지 생각을 '이뭣고' 화두 하나로 돌리듯 일념으로 글귀를 새기다보니 금강경을 10번이나 옮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예술로 구하고자 했던 답을 수행의 과정 속에서 얻었다. 역시 '하나로 돌아감'이다.

석고 고무신 앞에 수북이 쌓아놓은 고무신 역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때묻고 늘어진 '고무신 껍데기'나 그 안에 부어서 굳힌 말간 '석고 알맹이(속형)'는 결국 둘이 아닌 하나다.

스님은 '관조를 통한 하나됨' 외에도 고무신을 벽에 걸거나 바닥에 설치한 작품들을 비롯해 40여점의 회화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이번 전시작들은 독일에서 전시돼 호평을 받은 작품들로, 스님은 동국대 석림회 29기모임 '자자회' 스님들이 독일로 직접 보내준 1000개의 고무신을 재활용해 8년여의 독일 유학기간 동안 10여 차례 전시회를 연 바 있다. (02)733-5322

강신재 기자

봉정사에 기와 그림 상설 전시장 마련

귀일 스님 작품 30여점 전시

주제별 교체 진열…특강도

전통문양이자 불교미술인 기와그림을 상시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이 문을 연다.

안동 봉정사 지조암(주지 귀일)은 4월 4일 사찰 내에 기와그림 전시관을 개원하고, 귀일 스님이 직접 그린 기와그림을 상설로 전시한다.

기와그림은 삼국시대부터 사찰이나 궁궐의 처마를 보호하고 장식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귀면(잡귀를 쫓는 용의 얼굴)이나 나한상 등 불교의 호법 신장들을 담은 그림. 귀일 스님은 조선시대 이후로 사라졌던 기와그림의 전통을 되살리고 불교미술 응용 디자인의 활용폭을 넓히기 위해 98년부터 복원 작업에 매진해 왔다.



80여 평에 이르는 전시실 내부에는 30여점의 그림이 전시된다. 귀면, 나한, 신장, 비천상 등 기간별로 특정 기와그림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작품들을 때때로 교체해 진열할 예정이다.

귀일 스님은 "전시관을 통해 기와그림의 모든 것을 보여줄 생각"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관람자들을 위한 기와그림 특강 등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54)855-2268

강신재 기자

UFO와 하나님의 실체

몇 만년에서 몇천년전까지 지구를 찾아온 외계인(UFO)은 하나님으로 군림하며 인간을 지배했었다. 그 기록이 기독교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기독교 성경(에스겔 1장)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날 때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폭풍과 큰 구름속에서 나타난다.
▷ 반짝반짝 빛나는 단쇠(쇠덩이) 같은 것이다.
▷ 날개가 달려 있다.
▷ 다리는 곧고 송아지 발바닥같다.
▷ 바퀴가 달려있다.
▷ 눈이 사방에 달려 있다.(유리창으로 추정)
▷ 이동할 때 번개같이 빠르다.
▷ 수정같은 궁창이 있다.(돔(dome)같은 둥근 유리창으로 추정)
▷ 날을 때 소리는 많은 물소리의 같다.(씨:제트분사)
▷ 궁창위에 사람의 형상이 있다. 이상 나열한 모양이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정확하게 UFO이다. 만약 UFO가 아니라면 과물의 형상임에 틀림없다.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혼명에 광명이 비쳤다.



※ 이 그림은 성경의 내용을 그린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다.



정가 8,500원
도서출판 대명 TEL.042)623-0829 FAX.042)621-0110

지식인(知識人)일수록 허황한 신(神:귀신) 이야기가 나오는 미신에 잘 빠진다.

부시맨이 플라멩을 하나님 선물로 알고 이를 神主로 섬기는 것처럼 현시시대에 UFO(우주인)를 유일신으로 착각하고 맹신하여 신학(神學)을 연구했다면 그 신학은 궤변과 비과학 비합리 비도덕적 괴리로 뒤덮힘이 될 것이다. 기독교 성경의 고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지의 미개한 원주민이 비행기를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사람중에는 하느님을 보았는가? 무척님이 화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는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다. 이 책 한권으로서 기독교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다.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이 100% UFO라고 증명한 책

우리 모두는 21세기 르네상스를 주도할 역군임을 자각합시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한번이라는 것을----!

※ 광고후원은 <범민족 깨닫기 운동 모임>에서 하는 것임.
※ 뜻이 있으신 분은 회원에 (054-633-1138, 010-2465-1357) 동참하십시요.

卍 · 心
(만의 위대한 힘)

만 성 지 음

卍의 최초 해설서

卍은 우주에 존재하는 부호중에 가장 많은 진리가 함축된 위대한 힘을 갖춘 종합적 부호이다. 이 책을 읽으면 卍의 위대한 신비를 알 수 있다.

도서출판 대명 정가 7,500원

범민족 깨닫기 운동 모임

민족의 바른 정서와 바른 종교와 바른 의식의 전환운동으로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민족의 깨닫기 운동을 주도하는 모임

회장 김 도 기

회 · 원 · 모 · 집

TEL. 054)633-1138, 010-2465-1357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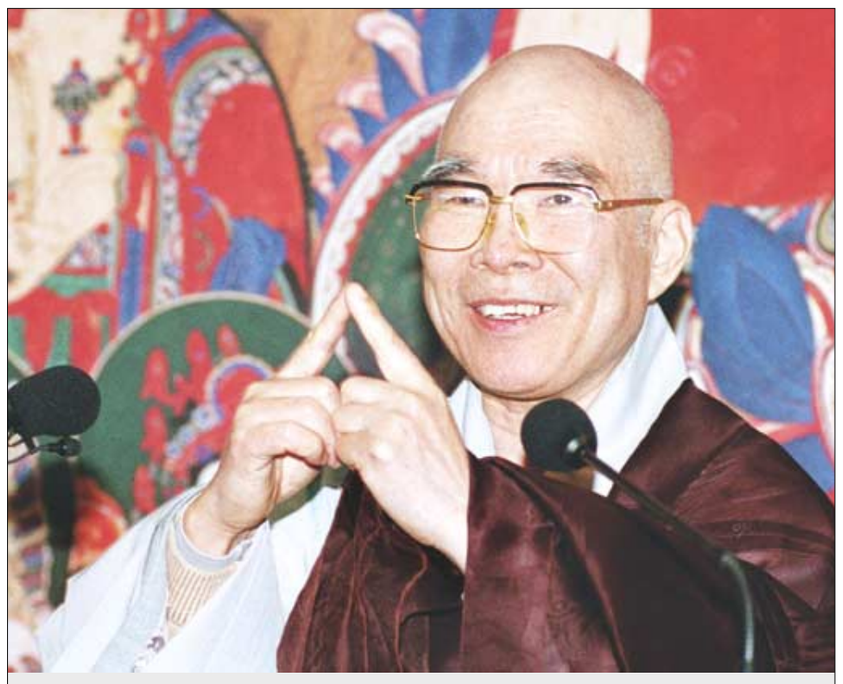
설선대법회 지상중계 3

3월 19일

주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 참선수행

형상만 보면 중생 空 알면 부처

說禪 고우 스님 (각화사 선덕)



고우 스님은

· 1937년 성주 生
· 20살 때 청암사 수도암에서 법희 스님을 은사로 출가
· 관응 · 고봉 · 혼해 스님으로부터 각각 기신론 금강경 원각경 수학
· 축서사 김용사 등 제방 선원에서 참선 정진
· 1968~9년 봉암사 선원을 재건해 조계종립 특별선원의 기틀 다짐
· 각화사 태백선원장 역임. 현재 봉화 각화사 서암에 주석

불교라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사실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한 이해, 즉 정견(正見)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무엇인가? 깨달은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에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생활화하려고 하는 것인가? 실제론 차이가 없습니다. 꼭 같아요. 꼭 같은데 우리는 그 효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뭐다 하는 것도 동시에 이해하게 됩니다.

계속 비교하며 자신 학대

우리는 모든 것을 형상만 보고 있습니다. 형상만 쳐다보고 그 형상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우수하다 열등하다, 귀하다 천하다, 이렇게 계속 분별을 합니다.

<아함경>에서는 형상만 쳐다보는 사람을 장님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형상만 쳐다보는 장님이다보니 길을 걸을 때 부딪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그 상처가 곪아 터져서 몹시 고통을 느끼면서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눈만 그런 게 아니라 코, 귀, 입까지 모든 것을 취사 선택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며 살고 있습니다.

취사선택하면서 자기만 학대하는 게 아닙니다. 앞집은 그랜저인데 우리 집은 왜 티코냐, 옆집 애는 서울대를 다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자기도 학대하고 주변 사람도 학대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나 세계가 그런 식으로 비교, 우열을 따지고 취사 선택하면서, 사회는 사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세계는 세계대로 계속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부처님은 형상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보십니다. 우리는 형상만 보는 반면 부처님은 형상도 보지만 공(空)을 하나 더 보시는 거예요.

공을 보게 되면 장님이 눈을 떠버리니까 부딪칠 일도 넘어질 일도 없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만 이해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시골에 가면 새끼, 가마니, 덕석, 짚신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형상이니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들의 재료는 짚인데, 짚의 입장에서 보면 가마니나 새끼나 덕석이나 짚신이나 다 같아요. 거기에는 귀천도 없고 우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짚이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공(空)입니다.

우리의 짚은 무엇이겠습니까? <반야심경>에서는 공이라고 얘기했고요. 그것을 마음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선종에서는 주인공, 본분자리라고 하는 등 이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름이지요. 간혹 이름만 듣고 그것을 알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이름만 듣고 추측하는 것은 바로 안 것이 아닙니다. 바로 봐야 합니다. 오직 이 '짚'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생활화하면서 체험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수행이고 행복한 삶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불교는 크게 어려운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불교공부는 이해를 깊이 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가고 생활에 적용해 가면 깊이 가면 갈수록 쉬워집니다.

<서장>을 보면 "선 것이 익어가고 익어가는 것이 섭어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선 것이 익어간다는 것은 익어가면 갈수록 점점 힘이 적게 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 적응할 때 어렵지 조금만 적응해서 생활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은 연기로써 존재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생활화하고 수행해야 되느냐?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부처님과 다른 점이 실제로는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부처님과 같이 오온이 개공한 줄 알고, 나의 짚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해하면서 생활에 적용해보고 그 가운데에서 참선을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차근차근 수행해 갈 때 불교가 우리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짚이고 공이냐? 이것부터 알아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갈 수 있습니다. 나라는 이 존재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든, 형상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존재는 연기(緣起)로써 존재합니다. 연기는 글자 그대로 인연이 모여가지고 형상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이 보제루만 해도 천 가지 재료가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재료 가운데는 나무도 창문도 있고 못이나 기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의 무엇을 갖고 집이라고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여가지 재료가 만든 것이지 집이 저절로 된 게 아니예요. 이것이 만약에 세월이 가서 허물어지면 집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재료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집은 실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걸 공이라고 합니다. 무아(無我)라고도 합니다. 이 몸뚱이도 60조의 세포가 모여 있는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60조 중 어느 세포를 갖고 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 신도님들은 이것을 알면 "나라는 것이 없고 실체가 없다면 너무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 아닙니까"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없다고 하는 요소도 있지만 지금도 여러 신도님들이 듣고 보고 하는 그 존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색(色)이 공(空)이고 공이 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이 없어져서 공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면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 아니고, 귀천과 우열을 따지는 등 계속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히던 마음자리가 없어집니다.

구름이 걷히고 밝은 햇빛과 같은 지혜가 나옵니다. 그 지혜가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듣고 수행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체험을 안 했는데 체험을 하게 되면 본래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본래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 사실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부처님과 같이 사고하고 행위도 하면서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원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생물, 무정물 모든 존재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행을 어떻게 해 가야 되느냐? 선수행은 생활에 선이 스며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능엄경>에 손가락과 달 얘기가 나옵니다. 진리가 달이고 손가락은 진리를 보라고 가르치는 방편입니다. 우리나라 선불교는 아예 달을 얘기해 놓고 생활속에 바로 스며들어가서 달로써 생활하도록 하는 수행방법입니다. 그래서 한국불교는, 수행방편에 생활을 맞추는 다른 나라보다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선은 생활과 각각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굉장히 평화롭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공부거든요. 우리의 선은 철저히 '달' 불교입니다.

생활에 禪 녹아들어야

그런데 달 불교를 한다는 한국불교에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수행은 수행, 생활은 생활, 따로따로라는 겁니다.

"도인은 멀리서 봐야 도인이지 가까이서 보면 도인이 아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정말로 욕입니다. 이 말은 '공부도 안한다, 생활화도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도인이 안 나온다, 선지식이 없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법회를 열기로만 끝내지 말고 생활화로 이어가야 합니다. 생활화도 한 번에 다하지 말고, 백 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 한 가지씩 실천해가면 백 가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참선, 염불,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안팎으로 맞아서 수행이 되고 공부가 됩니다.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정견을 세워서 그것을 생활에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공부도 같이 병행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그 공부가 성취되는 것이지, 생활 따로 공부 따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리= 천미희 기자 · 사진= 고영배 기자

법회 전체 동영상중계
buddhanews.com
비디오·오디오 CD·테이프 구입은
범어사 (051)508-3636
현대불교신문 (02)732-1520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 용, 인도에 사는 용 종족들이 숭배하는 신화의 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 하였습니다.
용의 배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대의 용이 탄생하였습니다.

◆ 이곳방생지 - 칠포해수욕장. 보경사는 15분거리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중국에 가서야면 탈 수 있는 용, 한국에서도 탈 수 있다!」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전망은 푸른바다와 들판, 뒤로 수려한 명산이 병풍처럼 둘러 싸인 곳.
이곳이 바로 성지순례의 공덕, 길지라 하옵니다.... (용꿈 꾸세요)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제141호 한불총02-44호 등재

대한불교 (禪)선종 총림 칠포 대 원 사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2004년도 불교역사를 한 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10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4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습니다. 매주 32면 발행으로 풍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 더 없는 불교신행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2004년 합본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VCD 1장을 증정합니다.

■ 구입 안내
• 구 성 : 상권 2004년 1월(404호) ~ 6월(480호) 하권 2004년 7월(481호) ~ 12월(506호)
• 판 형 : 신문원형(40cm × 55cm) • 절 차 : 전화신청 → 입금확인 → 택배발송
• 가 격 : (상 · 하 2권) 총 80,000원(발송비 무료)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2004년도 이전 합본집 한정 특가 판매 !!
• 2003년(상 · 하 2권) 70,000원 • 2000년 ~ 2002년 각 50,000원 ※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 하세요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 (直) (02)737-8881 (代) | 팩스 (02)737-0697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스님께 묻습니다

사회 : 화랑 스님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초청

설선대법회 지상중계 ③

화두통해 사량분별 끊어진 마음상태 만들어야



질의 법사 : **화랑 스님**
- 범어사 출가
- 동국대 승가학과 졸업, 선학과 박사과정수료
- 현재 동국대학교 선학과 강사
-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재가 질의자 : **조명제**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 일본 고마자와 대학 불교학부 연구원
-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객원 연구원
- 현재 일본 교토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연구원

화랑 스님: 묵조선에서는 '한 치 앉으면 한 치 부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래성불해 있다고 합니다. 간화선에서 정견을 세워야 된다고 할 때 본래성불해 있다는 입장과 묵조선에서 말하는 본래성불은 어떻게 다릅니까?

또한 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지는 삼매(三昧)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밥 먹을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도 삼매를 이어갈 수 있는지요? 돈오와 점수에 관한 얘기를 듣다 보면 '왜 돈오 정견을 세워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대중들을 위해서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고우 스님: 본래성불이라 할 때, 우리 존재원리는 훨저히 '답'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래 부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신심(信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본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지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자기가 본래 부처인데 왜 비교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학대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본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매일 매일 좋은 날이 되는, 그것이 불교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조사스님이나 도인스님들이 우리에게 화두를 제시합니다. 손가락 드는 분도 있고 주먹을 드는 분도 있고 말로 똥막대기라고 하는 분도 있고 '뜰앞에 잣나무'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냐?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본래 달인데 왜 손가락을 요구하느냐 이겁니다. 화두에는 손톱만치도 사량 분별이 붙으면 안 됩니다. 즉 주관과 객관을 나누면 선이 아닙니다. 화두를 통해서 우리의 사량 분별이 박살이 나는 그런 마음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으라고 화두를 제시한 것인데 못 깨닫고 모르니까 할 수 없이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기 위해서 화두 든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꼭 앉아 있는 것만 좌선이 아닙니다. 모르면 차 타고 가면서도 의심하고 밥 먹으면서도 의심하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의심하고 있으면 그게 좌선이에요.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독서삼매와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는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는 적적성성(寂寂惺惺)입니다. 이 불교 삼매를 통해서는 아무리 삼매에 깊이 들어가도 일상생활은 그대로 합니다. 삼매에 들었다고 해서 방으로 갈 걸 부엌으로 가고 부엌으로 갈 걸 화장실에 가고 이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삼매에는 거의 성성은 없고 적적만 있습니다. 적적삼매에 들면 행동도 정지하고 먹고 배설하는 것도 정지합니다. 그러면 생활하고는 완전히 분리돼 버리지요.

<육조단경>에 '적적과 성성을 분리하면 외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적적성성 이것이 하나로 굴러갑니다. 적적성성으로 생활하는 것을 깨달음이라 하고, 제일 쉬운 말로 '응무소주(應無所住) 이생기심(而生其心)' 이라 합니다. 응무소주가 바로 적적입니다. 이생기심은 성성이고요. 이것이 하나로 어울려서 생활하면 도인이라 하고 그것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을 삼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주관과 객관을 뛰어넘어서 비교하지도 않고 구별하지도 않고 전부 다 평등하게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자유 할 수 있는, 매일 매일 좋은 날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화랑 스님: 묵조선이 묵묵히 삼매에 들어있는 것이 아닐진대 본래성불이라는 입장에서 결국 깨어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화선에서도 화두를 꼭 들어야만 성성하게 될 수 있는가? 만약에 성성할 수 있다면 화두가 없이 묵조선으로서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남을 수 있거든요.

고우 스님: 간화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있고 회광반조해서 깨달음을 얻는 묵조선이 있습니다. 간화의 경우, 의심이 먼저 생기니까 성성이 돼서 적적이 따라오게 하는 간화의 경우는 성성적적이라면 묵조는 적적성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적적성성, 성성적적 이것만 갖춰지면 삼매를 거쳐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래성불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공부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게 되면 누구든지 순간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상근기 하근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철저히 믿고 발심하면 다 상근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멀다 가깝다, 상근기다 하근기다 이걸 나눌 게 아니라 무조건 믿고 우리가 그런 의지로 진심으로 믿고 공부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묵조선, 간화선의 우열은 절대 없습니다.



3월19일 열린 고우스님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에는 4천여명이 참석, 고우스님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제법 따가운 봄볕 때문에 행여 공부에 방해가 될세라 범어사에서는 3천여개의 선캡을 준비해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내가 부처라는 자부심으로 스스로 세상을 맑혀가자

화랑 스님: 제가 스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돈오점수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하니 안 하시겠다고 하더니 역시 답을 안 주시는군요.

고우 스님: 중국의 육조 스님하고 신수 스님이 돈오돈수, 돈오점수 갈라졌는데요. 신수 스님은 돈오점수고 육조 스님은 돈오돈수인데 육조 스님의 뿌리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보조 스님 이후 돈오돈수 돈오점수가 나눠지긴 했지만 모두 육조 스님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조상이 같으니 그것 가지고 너무 싸우지 말고 같이 인정하고 서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수행해서 구경(究竟)은 같이 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각자 자기에게 맞는 공부를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조명제: 현실적인 생활의 조건이 행복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도 실제로 개개인을 만나서 "당신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행복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경우를 잘 보지 못합니다. 사회 구조나 조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더라도 결국은 각자의 마음자리, 본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기에 마음자리도 단순한 관념이 아니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본래의 마음자리를 과연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선을 대중화하려면 어떡해야 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요?

고우 스님: 현재 우리생활은 굉장히 편리해졌고 물질도 아주 풍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행복하냐? 행복 안 하거든요. 더 불안해요. 더 각박하고, 걱정도 더 많고….

왜 그러느냐? 형상만 보고 모든 행복의 조건을 바깥에서 찾기 때문이예요. 내면을 찾는 공부는 안 해요. 그래서 도덕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인간성이 메말라 갑니다. 동물과 거의 다름없이 힘센 놈이 이기는 겁니다.

이런 사회가 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갈등하고 대립하는 투쟁하는 이것을 종식시켜서 정말로 더불어서 서로 오순도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불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부처님이 발견한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부처라는 이 세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이 자부심을 잃지 마시고 내 개인부터라도 그렇게 해 가면 그것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웃에게 영향이 미칩니다. 그게 바로 하화중생(下化衆生)이고 사회화가 아닙니까?

조그만 맑은 물이 큰 연못도 맑힐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라도 조금 조금씩 맑혀가는 그런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가려면 굉장히 고답풀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행복감을 느낍니다. 또 행복감을 느끼면 열심히 하게 됩니다.

가정주부, 장사꾼, 직장인 등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열심히 하면 그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법을 이해하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실천하고, 생활화 하는데 절대로 손해보고 괴롭고 불편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실천하면 즐거움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연기로써 존재한다는 이해를 집중적으로 하고 실천하게 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리= 천미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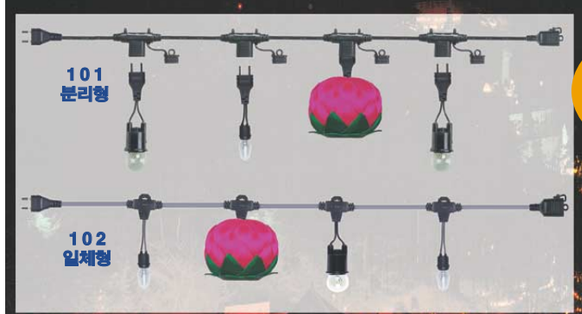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 볼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칼라멘트가 6배 (특 칼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 건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근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람세스 4세 진흙 석상.



인류 문명 한자리에

대영박물관 소장 유물 330여점 선보여
4월 12일부터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이집트와 유럽의 고대 유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예술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던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만한 의문들이다. 이런 의문들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4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세계문명, 살아있는 신화 대영박물관 한국전'이 바로 그것이다.





'공부하고 있는 성 제롬'(위)과 '멜랑콜리아'.

"없는 게 없다"는 대영박물관의 대표적인 유물 330여점을 옮겨 오는 이번 전시에서는 '고대아시아관', '고대이집트관', '고대그리스로마관' 등의 부스가 설치돼 대영박물관에 소장된 기원전 3500년부터 근대에 이르는 전세계 대륙의 유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동양의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고대아시아관'은 고려청자 2점과 조선시대 초상화 2점 등 한국 유물 4점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찬란했던 이집트문명을 보여주는 '고대이집트관'에서는 미이라와 람세스 4세의 석상 등이 전시돼 사람들의 시선을 잡는다. 또 '고대그리스로마관'에서는 헤르메스, 디오니소스, 헤라클레스 등 신화 속 주인공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도 있다.

이번 전시의 자문을 맡고 있는 이화여대 강우방 교수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한 자리에서 보면서 문화에 대한 안목과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신화 속 색다른 문화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서 보면 좋을 것"이라고 추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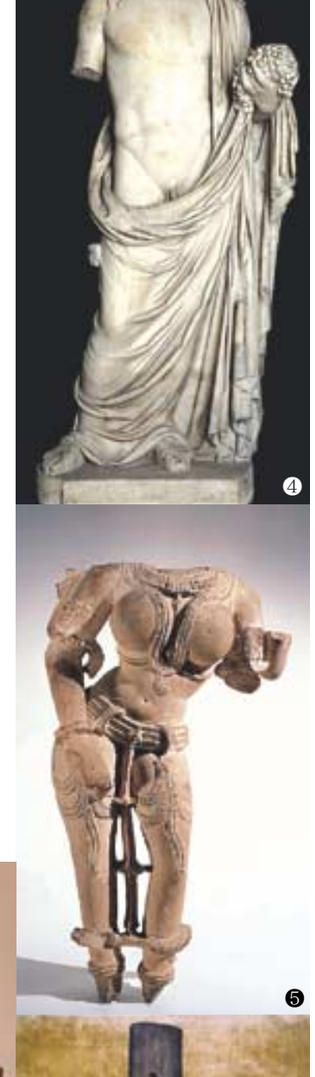
대영박물관은 1753년 개관한 세계 최초의 공공박물관으로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전 세계의 진귀한 유물 700만여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과 러시아의 에르미타쥬 박물관과 함께 세계3대 박물관으로 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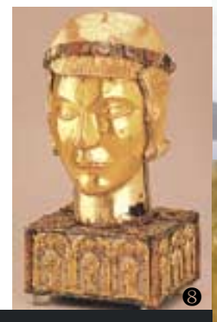
한편, '대영박물관 한국전'은 서울에 이어 7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부산박물관에서도 개최된다. (02)518-3638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청자 매병'.







이번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유물들이 선보인다. 유물명은 다음과 같다. ①청자동채그릇 ②청동 준 ③서 있는 부처 ④디오니소스 상 ⑤서 있는 여신 ⑥유학자 초상 ⑦불행한 미이라 ⑧성 유스터스 두상

신비한 인체 확인하세요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 특별전시관서

담배를 많이 피워 심하게 훼손된 폐는 어떤 모습일까? 배속에 잉태된 아기는 시간이 흐르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 보통사람과 다른 운동선수들의 근육의 특징은 무엇일까?

실제 인체의 피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각 기관의 위치를 3차원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3월 26일부터 2006년 2월 20일까지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 특별전시관에서 계속되는 '2005 신비한 인체 한국특별전'은 △인체 각 기관의 기능에 대한 설명 △태아의 성장과정 및 운동선수의 근육, 혈관 확인 △질병에 걸린 장기를 보고 인체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공간 등이 마련돼 시민들에게 '산교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태아의 성장 과정.

이번 전시를 주관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전시를 통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소중함을 자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와 성인 할 것 없이 각자 자신의 건강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웰빙시대라고 하는 요즘 인체 특별전에서 '내안'의 모습부터 찬찬히 확인해 보자. (02)453-8573

유철주 기자

전시

깨달음 깃든 고승선필

통도사 성보박물관 150여점 선보여



경봉스님의 '달마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승들의 선필(禪筆)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범하)은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국립청주박물관, 예술의 전당 등과 함께 통일신라 · 고려 · 조선 · 근현대에 걸친 고승들의 작품 150여점을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이고 있다.

선필은 말 그대로 선승과 같이 선(禪) 수행으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글씨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 전시는 선필의 역사, 선필의 성격과 종류, 고승과 문인과의 교류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전시 작품은 불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송(偈頌)과 법어(法語), 영찬(影讚), 제발(題跋) 등 사찰의 생활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물론 병풍, 현판, 시판, 주련, 달마도, 사군자 등이다.

특히 작품 중에는 처음 공개되거나 선승과 당시 문인 사대부들의 교유관계 작품 등 희귀한 자료들이 대거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범하 스님은 "한국 서예사에서 큰 맥을 형성하고 있는 선필의 성격과 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055) 382-1001

유철주 기자

北 조선화의 진수 감상

평불협, 故 김기만 화백 유작 특별전



김기만 화백의 작품 '난초'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이하 평불협)가 북한 '조선화' 4대 화가 중 한 사람인 故 김기만 화백의 유작 특별전을 개최한다.

'조선화' 100여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는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인사동 '갤러리토포하우스'에서 진행된다.

고 김기만 화백은 운보 김기창 화백의 동생으로, 한국전쟁 당시 북으로 건너가 미술 창작 기관에서 활동을 해 '공훈화가'가 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김 화백은 역사를 주제로 한 그림이나 민속화를 주로 그렸으며 20여점의 작품이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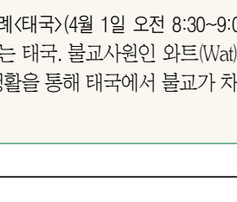
평불협 회장 법타 스님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북한 조선화의 진수를 만끽하는 것은 물론 평화통일과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741-9345

유철주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연실백팔염주

연꽃 씨앗은 몸의 노폐물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등 건강에 좋다고 한다. 이러한 장점을 살린 연실백팔염주가 나왔다. 연실백팔염주는 착용했을 때 느껴지는 질감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 가격은 6만원. (02)723-1520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28일 14:05 음악의 마을
29일 17:10 무명을 밝히고
30일 18:15 뉴스파노라마
31일 19:00 박진선의 트롯시대
1일 21:05 영화음악실
2일 19:00 아침저널
3일 18:20 이현정의 새로운 인생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28일 07:50 명상음악산책
29일 15:10 명상육아
30일 23:40 한국의 명찰
31일 17:30 산중대담
1일 17:20 우리시대의 장인
2일 16:40 부처님경전이야기
3일 15:30 산중대담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3월 31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불교텔레비전: 특집 해외불교성지순례<태국>(4월 1일 오전 8:30~9:00)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는 태국. 불교사원인 와트(Wat)와 주요 유적지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생활을 통해 태국에서 불교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의미를 짚어본다.

게시판



주말농장 분양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주말농장(사진)을 분양한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농장으로 5평 1구좌에 7만원이며, 마감은 3월 31일까지. 4월 10일에 본격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02)733-1884

독거노인 가정 봉사원 파견 송파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독거노인 신체수발 및 일상생활 지원이 가능한 여자 유급가정봉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 미용서비스를 할 수 있는 봉사자 모집도 같이한다. (02)2202-3677

연등축제 율동리더 모집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는 올해 연등축제 어울림마당 율동리더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율동리더들은 5월 8일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리는 봉축행사에서 율동을 이끌어가게 된다. 4월 1일까지 선착순 30명 모집. (02)738-7860

사찰음식강좌 선재사찰음식연구소는 4월 6일까지 사찰음식강좌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전국비구니회관 실습장에서 비구 · 비구니 스님 3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강좌는 3개월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6시에 진행된다. (031)243-2286

고승초청 선서화전 구룡사는 4월 13~19일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 2전시실에서 '통도사 고승 초청 선서화전'을 개최한다. (02)575-7766

20면 상식 퍼즐 정답

삼	엽	충		백		
라		치	산	치	수	
만			소		면	
상	법				제	비
	신		염			일
	불	철	주	야		비
		모		생	산	재

제10회 신행수기 입상작
특별상(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몸으로 체득한 삼법인

배명호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 거주)

2004년 1월말.

방콕 돈 무엉 공항에 밤11시30분 도착했다. 밤의 열기가 대단히 후덥지근하다. 입국 검사를 통과하고 나오니, 마중 나온 사람들 중의 한분이 손을 들어 표했다.

"배거사시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쉬시고 내일 스님을 만나시죠."

다음날 아침 8시 30분.

국내선 항공으로 태국북부 치앙마이로 향했다. 공항까지 마중 나오신 스님과 함께 스님이 계시는 숲으로 향했다.

초막 하나에 짐을 풀고 주위를 둘러보니, 네 평 정도의 방에 칸을 막은 화장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과연 이곳에서 얼마나 지낼 수 있을 것인지….

2년 전, 태국 절에서 집중명상 일주일을 마치고 나니 도인 스님께서 나에게 제안을 하며 의미 깊은 말씀을 한마디 던지셨다.

"배거사는 열성이 대단해. 내가 상으로 장학금을 주고 싶은데 받겠는가? 올바른 제자 찾기도 힘들고 올바른 스승 찾기도 힘들지."

그 후 스님으로부터 세 번의 초청장을 받았으나 번번이 바쁘다는 핑계로 늦추고 있었다. 그러나 스님의 마지막 편지를 보니,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예감이 들었다.

"배거사, 허송세월 말게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바쁘고 중요한 일이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세월과 썰물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공부 기간도 정하지 말고 기대감도 갖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너라."

스님의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스님은 한국에서 치앙마이까지 날아온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수행을 시작한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한다. 남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다. 다섯 가지 계를 주노니 잘 지키겠는가?"

"예."

"이곳에서 수행할 때 몇 가지 명심할 일이 있다. 묵언 정진이니 지도 스님과 수행 점검 시간 외는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전화, 편지, 독서, 기록 모두 금지되어 있다. 새벽 정진이 좋으니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다. 자유로이 수행하되 방일하지 말고 부디 시간을 아껴 쓰라. 세수, 이 닦기, 식사, 배변도 수행이니 언제나 마음챙김 하라."

수행이 시작됐다.

30분간의 좌선을 하는데 웬일인지 타이머가 도통 울리질 않았다. 눈을 살며시 뜨고 고개를 재빨리 돌려 벽시계를 훔쳐보았다. 20분밖에 안 지났다. 아직도 10분이 남았다. 눈을 감고 다시 시간 가기를 기다렸다. 10분이 훨씬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타이머가 울리지 않는다. 고장 난 것일까?

다시 한 번 시계를 쳐다봤다. 25분 지났다. 5분만 더 참자. 마지막 5분이 한 시간이나 지나는 것처럼 길었다.

그날 저녁 스님이 물으셨다.

졸음 · 망상 · 고통이 명상의 가장 큰 적

"명상은 잘되는가?"

"예."

"시계를 자주 보더군."

얼굴이 빨개졌다. 부끄러웠다.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구나.'

"그래, 시계를 봐도 좋다. 다만 그것도 명상이니 눈을 뜨는 것을 알고 고개를 돌리는 것을 알고 시계를 보는 것을 알고 다시 제대로 자세를 잡고 명상하는 거야.

일거수 일투족을 마음챙김 하면서 천천히 해라. 여기 있는 24시간은 모두 명상하는 귀중한 시간이니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마음 챙김 해라."

졸음과 망상 그리고 고통 이 세 가지가 명상의 최대 적이었다. 수행도중 시도 때도 없이 졸음이 왔다. 아니면 쓸 데 없는 과거 잘못한 일들, 후회되는 일들, 재미있었던 일들, 특히 오계를 범했던 일들, 낚시 갔던 일, 물건을 훔친 일, 거짓말한 일, 옛 애인과 관련된 일, 술 먹고 다투던 일….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다가 흩어졌다.

"마음의 성질을 알고 길들여야 한다. 그리고 마음이란 본래 항상 현재에 있어야 마땅한 것. 과거는 흘러갔으니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또한 없으며 오직 현재만 있을 뿐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과거를 불러올 수는 없고 미래를 당겨올 수도 없다. 명상을 통해 심신을 정화시켜 삶을 개선하면 미래도 자연히 개선된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삶을 개선하는 길은 명상뿐이다."

이곳에 친구들이 있다면 도마뱀, 개미, 고양이, 달팽이, 개구리, 모기, 파리, 뱀 등이다. 개미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이들로부터 부지런함과 인내심을 배운다. 어쩌다 내가 비스킷 부스러기를 방바닥에 흘려놓으면 어떻게 알고는 친구 수백 마리를 줄지어 데리고 와서 먹고 간다.

깨끗이 방을 닦아 두어도 그 자리에 음식이 있는지 며칠이고 계속 정찰한다.

고양이는 아침마다 일출을 보면서 지붕 위에서 명상한다. 그의 좌선은 조금도 움직임이 없고 그의 행선은 너무 부드럽고 조용하다. 나는 이 말없는 동물 친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처음 명상할 때는 뉴브라이튼 바닷가가 자주 생각났었다. 길게 뻗은 백사장, 바윗돌, 방파제, 작은 배, 큰 배, 흰 구름, 멋진 바닷가 카페, 날아가는 갈매기 떼, 밀려오는 파도, 낚시하는 사람, 바닷가를 거니는 사람, 사진을 찍는 사람들….

눈을 감고 있어도 자세히 기억이 났다. 명상이 진전되면서 같은 바닷가가 생각나긴 했지만 그 그림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한 달 후에는 바닷가 생각이 났다는 자체만 알고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고 그곳에 사람이 있는지 건물이 있는지 갈매기가 있는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두 달 후에는 바닷가 생각도 없어지고 오직 명상에만 집중하게 됐다. 이제 망상도 고통도 졸음도 없어졌는데 좌선을 하노라고 앉아있으면 까닭 없이 눈물이 흘렀다. 슬프지도 않은데 왜 이유 없이 뜨거운 눈물이 자꾸 나오는 것일까?

며칠째 계속되니 잘못된 것이 아닐까 걱정되었다.

그러나 스님은 눈물도 땀도 오줌도 피도 거의 비슷한 성분의 것이니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하셨다.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알지도 못한 채 오로지 명상에만 몰두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스님이 잭 푸르트를 갖고 오셨다. 겉껍질이 울퉁불퉁한 수박만한 크기의 연둣빛 과일의 배를 가르자 털과 같은 내용물이 있었고 씨를 감싸고 있는 연노란색의 부드럽고 두터운 속껍질이 보였다. 먹어보니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향기와 맛이라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스님은 이 과일 한 개를 내 앞에 놓고 법을 설하셨다.

"말로는 맛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힘들다.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안다. 남이 대신 맛봐줄 수가 없다. 법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 과일을 자네 대신 먹어준다고 해서 자네가 그 맛을 알 수 있다거나 자네 배가 부를 수 없듯이 자네 명상을 내가 대신해서 결과를 얻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너 스스로 해야 한다…잭 푸르트를 잘라도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적다. 사람도 이와 같다. 쓸모없는 사람은 너무 많고, 정작 필요하고 훌륭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림 · 문병성

"너는 승리자다…낮추고 겸손하라"

하루는 명상 중에 콧물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좌선을 마치고 눈을 뜨니 상하의 하얀 명상복이 피로 물들어 있었다. 코피가 난 것이다.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방을 닦았다. 명상을 하면 또 흐른다.

며칠을 계속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다. 스님은 명상 중에 죽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위로하시며 포기 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셨다.

될 듯, 될 듯…금방 될 것도 같은데 그러나 역시 되지 않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점검시간이 벌써 가깝다. 오늘도 실패했다. 왜일까? 옷을 모두 갈아입자. 목욕을 하자. 깨끗한 몸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도저히 그 경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오늘도 허송세월이다. 밥이 아깝다. 나는 어찌 밥값도 못할꼬. 이 밥 도둑놈.'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다. 그러나 야단칠 줄로만 알았던 스님은 진전되고 있으니 걱정 말고 계속하라고 격려하셨다.

법우들에게 가르쳐 줘야지 하는 마음이 자주자주 떠올랐다. 그러나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 말씀.

"남을 가르칠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아라. 자기가 성취하지 않고는 결코 가르칠 수 없다. 허황된 꿈은 꾸지도 마라. 순수하지 않은 조그만 생각이 모든 일을 그르친다."

스님은 나의 마음을 읽고 계셨다.

아! 명상은 무상, 고, 무아 삼법인을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로구나….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 같았던 고통도, 눈물도, 코피도, 설사도 결국은 멈추었다.

스님은 "이제 길은 좁혀져 간다. 험한 산은 넘었다"라고 말씀하셨다.

스님은 그날 밤 나의 방 앞에 촛불과 향불을 피워 주셨다.

행복을 찾아 집으로부터 6천 마일이나 멀리 떠나왔지만 찾고 보니 정작 행복은 내 마음 속에 있었다. 유턴하여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나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되었다. 늘 죽음의 공포가 뒤따르던 것이 이제 사라진 것이다. 겁날 것이 없었다.

"이제 너는 승리자이다. 자기의 마음을 알고 자기를 이기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이기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다. 너에게 승리의 월계관으로 이 화관을 주노라."

스님은 손수 만드신 수백 개의 자스민 꽃을 연결한 화관을 씌워 주시며 당부하셨다.

"네가 얻은 경지나 자신감에 대해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말라. 낮은 풀처럼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라"

집에 오니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누라는 먹고 살 돈을 벌어 오라고 잔소리를 해댔다. 이전 같으면 화를 내고 한바탕 싸웠을 것인데 이젠 달라졌다.

그냥 취업문을 두드렸다.

금방 취직이 되고 몇 달 안가서 진급까지 되었다. 인내심과 지혜가 생기고 쓸데없는 욕심이 없어지니 달라진 세상이 내 앞에 성큼 다가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 아니고 무엇이랴!

법우 여러분,

한국, 미얀마, 태국 등의 수많은 수행센터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깨치신 스님들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찾아가 법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 얻을 것입니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renvy@buddhapia.com

'각종 통증완화' 쑥뜸기 좌훈기 개발 출시

쑥뜸을 하면 무병장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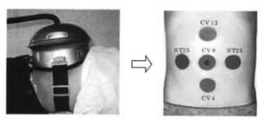
연기가 100% 실외로 배출되고, 쑥뜸시 화상 위험이 없으며 타이머가 장착되어 있어 편리. ISO 9001 인증제품 - 쑥뜸기, 좌훈기

신상품



이런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오행 쑥뜸기
적용혈자리 : 중완혈, 신궐혈, 관원혈, 천추혈(2)
기미, 복부비만, 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자궁근종, 위염, 장염, 변비, 성기능개선, 불면증, 당뇨개선, 고혈압





오행 좌훈기
적용혈자리 : 회음혈
변비, 치질, 생리통, 냉대하, 전립선염,신경성과민대장염, 성기능개선, 갱년기 장애





음양 쑥뜸기(무릎관절용)
적용혈자리 : 백회혈, 견정혈, 대추혈, 명문혈, 독비혈, 족삼리
무릎 관절염, 오십견, 요통, 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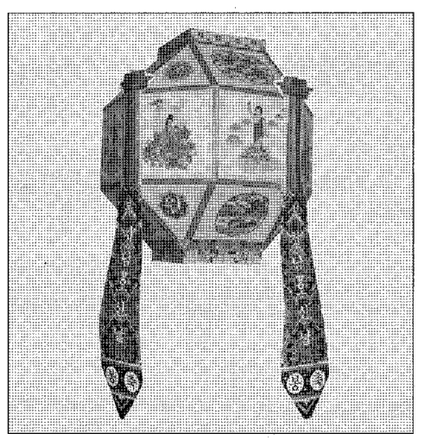


제품 구입시 쑥 한달분 무료 증정

대리점 · 쑥뜸방 모집중

모사포유 www.moxa4u.com
D.M.I산업, 대구한의대 한방 바이오 창업보육센터

체인점 및 대리점 문의 : (02)521-6353~4
제품구입문의 : (02)598-9834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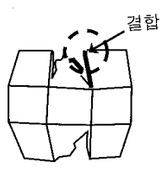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아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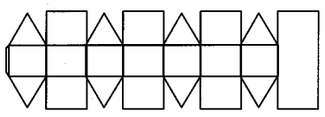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 : 016-552-9360

▪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앤텍
▪ 농 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피앤텍

창경궁 '우리 차문화' 행사



한국차문화협회(이사장 이귀례)와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소장 전기선)는 전통 차문화와 생활예절을 접해볼 수 있는 '소중한 우리 전통 차문화' 행사를 10월 15일까지 개최한다.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창경궁 내 영춘헌과 집복헌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차문화의 이해 및 생활예절 강의, 다도 실습 및 다식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로 꾸며진다. (02)762-4868

태평양박물관 '일로향실' 전시



사진제공=태평양 박물관

'태평양 박물관'은 오는 8월까지 '일로향실(一爐香室) : 조선 후기의 차 향기(茶香)를 따라서'를 주제로 차 문화 전시회를 연다. '일로향실'은 초의 선사가 주석한 일지암의 다실 이름으로,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리나라 차문화의 대표적인 인물인 초의 선사와 추사 김정희의 차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김정희가 초의 스님에게 보낸 10통의 편지를 필사한 <영해타운첩(瀛海朶雲帖)>이 일반에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조선시대 문인화가 소치 허련이 김정희의 귀양살이 모습을 그린 '완당선생 해천일립도(海天一笠圖)', <다신전> <동다송> 필사본, 백자철재주전자 등 태평양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28점의 편지와 그림, 다도구 등이 선보인다.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이며 입장료는 무료. (031)285-7215

정재헌 김영태, 찻그릇 2인전

도예가 정재헌 김영태씨의 2인전 '찻그릇, 새로움의 세계'가 4월 15~24일 대구 예송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정재헌 우해요 대표는 단정하고 깨끗한 느낌의 백자 찻그릇을 주로 만들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다기세트와 덤벙다완, 귀얄다완 등을 선보인다.

곤명요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태씨는 학을 새겨 넣은 다완으로 유명하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도다완, 분청다완, 백자다완, 청자다완 등과 고리다기세트를 출품할 예정이다. 고리다기란 다관 위 뚜껑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리를 부착한 것을 말한다. (053)426-1515

'茶禮'는 차례로 읽어야 할까, 다례로 읽어야 할까? 현재 차계에서는 다도 다식 다도구, 차인 찻잔 차나무 등 '茶'를 '다'와 '차' 두 가지 음으로 혼용하고 있다. 같은 한자에서 나는 두 음가(音價)임에도 흔히 '다'라고 하면 수준이 높고 '차'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다'는 한자고 '차'는 우리말이라는 잘못된 상식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음이 나뉘어져서 쓰이게 됐고, 어떻게 읽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 차와 다의 어원

'茶'의 어원을 살피려 하면 차의 원산지인 중국의 예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차 주요 생산지인 푸젠(福建)성에서는 '茶'를 데(te)로, 광둥(廣東)성에서는 차(cha)로 각각 발음한 것이 오늘날 표준어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중국에서 생산된 차가 푸젠성과 광둥성의 항구를 통해 세계 각국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차 발음 또한 데(te)와 차(cha)로 나뉘어져 쓰이게 됐다. 주로 해로를 통해 차가 전파된 영국(티, tea)이나 독일(티, tee) 말레이시아(데, the) 네덜란드(데, thee) 핀란드(데, tee) 등은 데(te)에서 파생된 음가를, 육로를 통해 전파된 러시아어(차이, chai) 몽골(차이, chai) 일본(자, jya) 이란(차, chai) 터키(차이, chay) 등은 차(cha)의 음가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자음인 다와 관용음인 차를 함께 사용하는 거의 유일한 예다.

▷ 문헌을 통한 음가비교

우리나라의 옛 문헌에서도 차와 다는 혼용되어 쓰였다. 고려시대 손목이 편찬한 <계림유사>에서는 고려어를 중국 자음(字音)으로 기록한 가운데 '茶戊'이라고 해 '차술'로 읽을 기록이 있으며, <월인천강지곡>(1447년)에는 '가루다(迦嚕茶) 가릅따'라고 썼고 <월인석보>(1458년)에서는 '가차(伽茶) 가짜'라 하여 차와 다가 같이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6세기 편찬된 <훈몽자회>에서는 '茶, 차다'라 하여 '茶'의 훈은 '차'이고 음은 '다'임을 알 수 있다. 故 천병식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표의문자(表意文字)인 중국어를 우리말의 표음문자(表音文字)로 읽을 때 오는 혼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영선 교수는 <한국다문화>에서 "차와 다가 혼용되어 쓰이는 중에도 대체적인 질서가 있었는데, 왕실과 불가, 사대부에서는 주로 '다'라 했고 서민들은 대체로 '차'라 발음했다"고 적고 있다. 실제로 '다방(茶房)' '다비(茶毘)' '다각(茶角)' 등 궁중이나 사찰에서 쓰였던 '茶'는 거의 '다'로 발음했음을 알 수 있다.



'차'로 읽을까, '다'로 읽을까?

푸젠성의 데(te), 광둥성의 차(cha)에서 유래
한국은 혼용, 왕실 사찰 사대부 주로 '다' 사용
최근 통례로 구분…찻그릇 등 복합어는 '차'로

▷ 실제 쓰이는 용례에 따라 나눠야

최근 차계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茶'를 용례에 따라 구분해 쓰는 추세다. '차'로 쓰이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는 찻그릇 찻자리 찻가루 찻사발 등 토속말 혹은 유사 토속말과의 복합어를 이룰 때다. 또한 녹차 햇차 보이차 용정차 등 '차'가 실제 찻잎 자체를 가리킬 때도 '차'로 읽는다. 그러나 고어(古語)일 경우는 칠완다(七椀茶) 감로다(甘露茶) 동다(東茶) 유다(儒茶) 등에서 보듯 '다'로 읽힌다.

반면 궁중이나 사찰, 사대부 등에서 '다'로 쓰였던 단어들이나 한자와 어울려 단어를 이룰 때는 대부분 '다'로 읽는다. 다과 다도 다우 다기 다정 끽다 음다 등이 그 예다. 지명의 경우도 부산 다도(茶島) 장수 다곡리(茶谷里) 남해 다정리(茶停里) 예에서 보듯 '다'로 읽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차로 읽느냐 다로 읽느냐에 따라 그 뜻이나 격이 달라지는 경우는 구별해서 쓴다. '茶禮'는 신이나 사람에게 차를 끓여 내는 행위는 다례로,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일컬을 때는 차례로 흔히 쓰이고 있다. 또 '茶甁'는 우린 차를 담는 주전자를 일컬을 때는 '다병'으로, 마른 차를 넣어두는 병을 가리킬 때는 '차병'으로 발음하는 예가 많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고려시대	1331 근시 다방원 모두 회복 @ 다고(茶鼓) · 다당(茶堂) ① 1333 한수의 출생 ② 1337 정몽주의 출생 ③ @ 각 지방에 다원이 있었음 ④ 1340 최해의 죽음 ⑤ 1343 이조년의 죽음 1345 <식화지(食貨志)>에 다법에 관한 것이 나옴 1347 지방전로 정비 1349 이숭인의 출생 ⑥ 1352 이행의 출생 ⑦ 이연종의 죽음 ⑧	원대	1336 고계 ⑨ 1343 송 · 요 · 금의 <삼사(三史)> 편찬 1348 우집의 죽음 ⑩ @ 송현희의 활동 ⑪	남북조	1331 차에 관한 편지 ⑫ 1334 <이조하원낙서(二條河原洛書)> ⑬ 1336 내기투다 금지(족리존씨) 1338 실정막부설치 1342 오산십찰(五山十刹) 설치 1351 다회의 그림

고려시대 ⑪



고려, 각 지방마다 다원 설치 차문화 발전

이 시기는 고려의 차가 제일 번성해서 궁중에 다방원(茶房院)이 있었고 왕공과 비빈은 물론 공주까지 사찰에서 차를 마셨다. 사찰에도 다당(茶堂)과 다고(茶鼓)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백장청규>가 다시 간행되어 차를 통해 사내(寺內)의 규율과 수칙을 다스리려 한 결과라 하겠다. 또한 각 지방에도 다원을 두었다. 이런 여건 아래서 정몽주, 최해, 이숭인, 이행 이연종 등의 선비 차인들이 속출해 차문화를 높은 경지로 발전시켰다.

중국은 원대에 들면서 북방의 몽골족이 다스리게 되었으나, 차의 생산지는 모두 한족이 살고 있는 남쪽이었다. 자연 한족의 고매한 차 정신을 이어받기 힘들게 되니 차문화는 조금 후퇴하게 됐다. 개별적으로는 차인들이 많았으나 송대와 같은 명저나 명인들은 드물었다. 한편 일본은 계속 차문화 정착에 힘쓰고 발전하는 시기였다.

① 사찰이 금당(金堂) 주변에 다당을 따로 세우고, 법고와 다고를 두었던 것은 헌다나 다례 그리고 선행(禪行)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② 한수(1333~1384): 고려 말 문신으로 청성군(淸城君)에 봉해진 차인이다. 엄광대사에게 보낸 다시(茶詩) 등이 <유항집>에 전한다.

③ 정몽주(1337~1392): 여말 충신으로 호는 포은. 차를 즐겨 '석정전다(石鼎煎茶)' 등의 다시를 썼다.

④ 지방 다원은 주로 왕실 사람이나 관리들이 이용한 것으로, 조선조의 객사(客舍) 같은 역할을 했다.

⑤ 최해(1287~1340): 최치원의 후손으로 강직한 성품으로 청빈하게 살았다. 다공(茶供)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⑥ 이숭인(1349~1392): 문인으로 호는 도은(陶隱). 다객으로 많은 다시를 남겼는데 특히 '가명사가인(佳茗似佳人)'의 대목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⑦ 이행(1352~1432): 호는 기우자(騎牛子). 품수에 능해서 두 가지 물로 차를 끓인 것을 알아낼 정도였다. 찻물로 충주의 달천수, 한강의 우중수, 삼타수 등을 꼽았다.

⑧ 이연종(1270~1352): 이승휴의 아들이며 박치암에게 보낸 다시가 유명하다.

⑨ 고계(1336~1374): 명대 시인으로 차를 즐겨 '채다사(採茶詞)'를 썼고 그의 다시 '과산가(過山家)'가 애송된다.

⑩ 우집(1272~1348): 원대 문인으로 '유용정(游龍井)'이라는 글에서 용정차의 생산과 채다시기, 품질 등을 논했다.

⑪ 송현희(1312~?): 명대 학자로 맑고 아름다운 다시를 남겼다. '방외(方外)의 친구가 보낸 돌솥에 답하는 시'가 많이 알려져 있다.

⑫ 금못정현(金澤貞顯)이 아들 정장에게 보낸 편지에 '앞으로 차가 크게 성할테니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햇차를 보내라'고 했다.

⑬ <이조하원낙서>에 투다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영 험 도 량
수년간 팔공산 입산 용맹정진 기도로써
약사여래부처님의 영험과 가피력을 증명하신
無有心佛(무유심불) 불토사 큰 스님께서
(고통 · 육체 · 슬픔 · 마음 · 신경 · 정신)
세계의 고뇌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불치성 질환 무병과 업장 및 전생문제 등을
무유심불 약사여래부처님의 영험 가피로서
큰 스님의 원력과 스님들의 지극한
기도발원과 극진한 지도로 본인 각자의
기도정진으로 극복 치유합니다.
無有心佛 약사여래기도도량
불 토 사
연락처 : 종무소 033)343-0103(숙식가능)
전 송 033)344-0406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오시는길 : 중앙고속도로 횡성 IC에서 10분거리

袈裟院[가사원]
전통 홍가사 연구소
예로부터 가사바느질을 잘하기로 유명한
전북 고장에서 큰스님들에게 바느질을 전수받아 30여년간 불사소에서 편수를 해왔으며 큰스님들로부터 바느질의 고와 수양공의 호칭을 받으며 지금껏 바느질을 해왔습니다.
절마다 가사불사를 하시는 스님들께서 어려움이 많으시기에 거렴한 가격으로 불사를 원만히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소승이 군산에다 가사원을 개원 하였습니다.
전통방식 그대로 바느질을 하고 있으니 가사불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스님들께서 연락주시면 즉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판복 가사도 합니다.
연락처 주 간 063-462-5161
야 간 063-451-2410
핸드폰 011-671-5161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분 한정)
만삼달인물 (만삼 생것 10Kg · 황기 · 잔대 · 삼지구엽초 · 생강 · 대추 · 감초)
● 1Box(60포 ~~20만원~~) ● 2Box(120포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 · P :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마음으로 진짜로 믿고 밀고 나가 보세요!

매월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되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일분일초도 떠나지 않고 움죽거린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움죽거리면서 지켜보시면서 생각해보십시오. 지수화풍을 그냥 물질적인 요소라고 아무렇게나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여러분이 과거를 지나서 현실로 나오면 과거에 자기가 한 일을 까맣게 모르니까 현실의 모든 것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한 대로.

그런데 지수화풍이 처음에 생겨날 때는 온기를 찾지 못해서 흙과 바람 또는 물이 뒹굴고…, 그 시련과 더불어 뒹굴었기에 온기가 생기고 온기가 생김으로써 생명체가 생긴 겁니다. 그 생명체가 생김으로써 고달픈 시련과 고통과 체험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쌓아올려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가 생긴 것도 그렇지마는 생명체가 생겨서 삶을 엮어 나올 때에 우리는 공생으로서 공체로서 공식화하고 돌아간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물에서 각종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그 속에 역경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꽃이 피어 있는 걸 보면 피었나보다, 물이 흐르면 흐르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깐 그렇지 우리 자신이 지금 그렇게 구르고 있다면 얼마나 뼈아픈 사실이겠습니까? 먹고 먹히면서 쫓고 쫓기면서 그리고 잉태를 하고 죽어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물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뿐입니까? 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서로 협동정신을 가지고서 모든 생물들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겁니다. 물도 생명이 있는 반면에 생명이 왜 있게 되는지? 생물들의 아가미에선 끈적끈적한 에너지가 나오고 액체가 나옵니다. 또는 젖 같은 액체가 나오죠, 분비물이 나오죠. 모든 생물들한테서 나오는 그 모든 게 물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물은 무엇을, 수행의 길에 진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위를 아래로, 아래를 위로 이렇게 물을 뒤집는 것도 역시 그 생물들을 이끌어가자는 뜻입니다. 그 여건은 태양열이든지 공기력이든지 또는 먹고 살기 위한 에너지든지 모든 것을 골고루 섭취시키기 위한 방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생물들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 올려서 또 인간들에게도 주고요, 또 태양계로도 오르고요. 모든 혹성들은 다 같이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는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여유 있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마음의 발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생각을 했다면 그것을 바로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자책감을 가지고 항상 '나는 이런 걸 못해, 난 중생이니까.', '나는 이렇게 죄가 많으니까 이건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자책감을 가지고 관습에 의해서 매달리고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 습을 떼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마음공부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물속에서 휘달리고 휘달리는 그 시련,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통과 체험과 또는 자기 관습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좇음으로써 수없는 날을 눈코 뜰 새가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육지로 올라오게 되고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육지로 올라와서 형성이 됐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맨 마지막에 인간으로 진화가 됐습니까? 인간으로 진화가 됐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굴렀습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구르고 굴러서 잘못되고 잘되고 '이것은 잘못하는 거다, 잘하는 거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중에도 차원이, 천차만별의 차원이 있어서 그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고, 습에 끄달려서 바깥으로만 물질세계에만 끄달리고 헤매고 도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형성이 되고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모습을 바꿔가면서 수없이 겪어 나온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장본인들이 이렇게 했어도, 부처님께서 사람 되기 어렵다고 했고 정법 만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공부 하는 이 도리를 만나는 게 극히 어렵다 이랬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기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차안(此岸)의 세계에서, 즉 말하자면 차단된 물 컵 안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차단이 된 세상이 아닐까요. 마음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못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살고, 살고 싶어도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일일이, 건건이 걸리는 세상이 바로 이 어항 속입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죠.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손 들어보세요. 이런 사실 속에서 살면서 마음의 발전으로 인해서 창조력과 자유인의 기상으로 높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영향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인간이 됐다면 물론 고깃덩어리를 잡아먹히진 않겠죠. 그러나 지금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동물이나 어떠한 것도, 일차적으로 우리도 동물이니까요. 차원 낮은 동물이라고 해서 먹고 먹히고, 사람들한테 먹히고 이렇게 수없이 생겨나고 수없이 죽어가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떡하고 있습니까? 고깃덩어리가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게 아닙니다. 정신이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세계입니다. 정신을 잡아먹히면 그건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누가 잡아먹는다고 하고 잡아먹나요? 말없이 잡아먹히는 거죠. 그러니 말없는 데서 마음의 발전을 해야만 정신계의 모든 것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고 자유스런 인간으로서 정신을 잡아먹히지 않고, 나만 잡아먹히지 않는 게 아니라 모두 골고루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주고 이끌어주는 데에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인의 모습이라면, 얼른 쉽게 말해서 염주 알이 있다, 염주 알이 '삼천(三千)' 하면 줄이요, '대천세계(大千世界)' 하면 알입니다. 요거를 (손가락으로 원을 그려 보이시며) 하나 생각을 해보신다면 모든 게 종합해서 염주 알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본래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염주 알과 염주 줄이 있기 때문에 알이 생긴 거지 줄도 없는데 무슨 알이 생깁니까. 줄이 있기 때문에 염주 알이 있고 염주 알이 있기 때문에 줄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름을 '염주'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도 정자 난자가 한데 합쳐져서 우리가 몸을 빌어서 이렇게 탄생을 해서 형성된 자체가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알을 꿴 줄처럼 본래 정신계와 물질계가 합류화돼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신계는 한 번도 생각해보는 일이 없고 물질계에만 연연해서, 먹고 사는 데만 연연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거야 인생이 태어났으면 산 입에 거미줄 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거야 어쩌면 못 먹고 살까요? 움죽거리면 먹고 사는 건데. 어떡하면 어디서 이렇게 왔기에 어디로 가는 건지 또는 지금 무엇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십시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이 우주를 싸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염주 알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영 염주 줄은 믿질 않아요. 왜 염주 꿴 줄을 믿지 않습니까? 염주 줄은 보이지 않으니까 무효고 염주 알을 꿰지 않았으면 무효입니다. 염주 알을 꿰었기 때문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겁니다. 부처도 인정을 하고 종교도 인정을 하고 세상도 인정을 하고 세계도 인정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알이 줄을 믿지 않다니, 그것이 반야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쥐고서, 우리 이 지구 자체도 섬입니다, 섬! 마음의 줄에 꿰여서 돌아가는 섬입니다. 모두가 꿰여서 돌아갑니다. 우리들의 생명에 모든 에너지와 서로 더불어 같이 불고 같이 하는 물과 바람, 공기 모두가 한데 합류화돼서 태양계로나 은하계로 통솔을 하면서 서로 돌아가는 이 이치가 바로 염주 알 같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별적인 한 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한 찰나 살고 갈 것을….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것으로 족하지!

항상 내가 말을 하죠. 우주하고 인간의 근본하고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은 모두 인간의 마음에 가설이 돼 있다고요. 발전소 하나를 해놓으면 모두 가설은 됐으나 진짜 전깃불을 켜려면 우리가 만들어야 전깃불을 켤 수가 있듯이, 본래 가설은 돼 있지마는 끌어다 켤 수 있고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그런 전력이라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믿지 않는 겁니다. 기복으로 관습이 돼서 그런지 아주 습이 배서 그런지, 물질세계에 그냥 배어서 그런지, 하여튼 관습에 매달리고 습성에 매달리고 욕심에 매달리고 자기 착에 매달리고 '나'라는 착에 끄달리고 삽니다. '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몸뚱이 속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데 자기 하나를 자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공했습니다. 안과 밖이 다 공했습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고 쉬는 게 하나도 없고 끊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밤에 자면서 숨을 쉬지요? 숨을 쉬는데도 그것도 바로 작용이자 움죽거림입니다. 이 모두가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믿는 것을 진실로 믿지 못하고 알만 있는 줄 알고, 알하고 줄하고 갈라지면 시체가 돼서 없어지고 줄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 있다면 염주 알과 줄이 같이 꿰여져 있는 것이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세상에 나온다면 염주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염주가 됐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형성이 됐으니까요. 그러니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오고부터,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온 게 화두지 어디 또 화두가 따로 있으며, 자기가 있으니깐 상대가 있는 거고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 속에 자기가 있는 거지 어디 또 딴 데 있습니까? 자기를 끌고 다니고 자기를 형성시켰고, 과거에도 자기를 끌고 다니고 현실에도 자기를 끌고 다니는데, 염주 줄이 염주 알을 끌고 다니지 딴 게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은 염주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주 알은 염주 줄을 진짜로 믿어야 해요. 그것이 자기의 영혼의 뿌리니까요.

옛날에 어느 시골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디다. 나는 다른 거 다 믿지 않고 내 주먹밖에 믿는 게 없다고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 봤어요. 그게 바로 안과 밖이, 줄과 알이 똑같이 주먹에 쥐어졌다면 아주 좋았을 것을, 안은 따로 있고 밖도 따로 있게 주먹을 쥐었으니깐 그게 좀 안됐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만물의 생명들과 물과 서로 먹고 서로 사는 거라고. 흙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모두가요. 우리 몸뚱이속의 생명들도 같이 공식하고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 세계가 다 공식하고 돌아가고 있죠.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어느 종교단체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로 믿으시려면 자기 안의 줄, 몸뚱이가 꿰여 있는 줄, 그 중심! 주장자를 딱 진짜로 믿고 '너만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어!' 하세요. 사실이 아닙니까? 거짓말입니까? '너만이 염주 알을 굴리게 할 수 있어!' 이 소리죠. 줄이 끊어질 일도 없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깊이 하시도록 하시고,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지만 고깃덩어리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기르고 마음을 발전시켜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라고 이끌어 주는 거지, 내 고깃덩어리 믿거나 스님네들 고깃덩어리 믿으라고 부처님 법을 이끌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 마음으로 '주인공!' 하면 일체 삼천대천세계 일체제불의 마음까지도, 여기 앉은 스님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바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진짜로 믿고 밀고 나간다면은 모든 게 되는 건데, 그런 걸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밀고 나간다면 자꾸자꾸 자기의 마음이 발전이 되면서 어디에다 의지를 안 하고 의존을 안 하고 자기가 체험을 하면서 자꾸 돌아가는데, '스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요기에 또 착을 붙인다면 스님을 꼭 만나봐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원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만큼 지원의 스님네들을 찾아서 묻고 또 자기의 어떠한 내력에 대해서 용건만 얘기해드리고 "그저 한마음 돼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그저 요점만 얘기하면 될 거를, 여기 먼 데까지 오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요, 이런 게 있죠. 어느 스님네한테 얘길 들으니까 학승한테는 학승 제자가 따라 붙고, 선승 뒤에는 선승으로서 제자가 모두 따라 붙고, 부전에게는 부전이 따라 붙는다고 했습니다. 즉, 염불하는 스님네들은 염불하는 스님네들이, 은사가 염불하는 스님이면 염불하는 스님으로 하나가 돼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스님네들은 길고 짧은 게 없습니다. 모두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님네들한테 지원에서 얘기를 잠시잠깐 해도 한 찰나에 들어 아닌 까닭에 그건 똑같습니다. 이게 부처님 법입니다. 부처님 법이란 손으로 만져서 낫게 하는 것도 아니요, 말로 해서 잘 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면 보는 대로, 본원에서 가깝게 사는 사람은 본원으로 와야 되겠죠. 그러나 지원에 있는 분들은 지원의 스님네들이 계신데 어찌 이리로 찾아옵니까? 그 습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좀 강력하게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단단히 가지시고 기르십시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거는 말로 다 못하는 말입니다마는, 욕먹기 똑 좋은 말이죠. 그러나 한마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만생이 버러지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남녀라고 그러죠. 남녀의 접근이 있음으로써 모든 게 이루어지고 탄생시키고 그런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저 아래 생물서부터 위까지 말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아내를 두고 또 음욕을 탐해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고 여자도 자기 남편을 두고도 음욕을 탐해서 그러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거를 알게 되면 여러분도 진저릴 칠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고 발목이 잡힘으로써 차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피안의 세계로 넘어서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뱅뱅뱅뱅 돌고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계 중에 '음욕을 탐하지 말라.' 했죠. 그것이 잠시잠깐 한 찰나의 잠깐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찰나가 얼마만큼 차단을 시키고 얼마만큼 고초에서 떠나지 못하게 창살 없는 감옥에다가 가두는 건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한 찰나 살고 갈 거를. 마음이 아름답고 행동이 아름다우면 그것으로 족하지, 사람은 못나게만 태어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잘나게만 태어나게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요다음 생에 아름답게 또 태어날 거고, 원수를 지으면 복수를 하고 이 야단들을 하니 말입니다. 조금도 에누리가 없이 자기가 한 것대로 받으니 이 노릇을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고만이지, 이렇게 된다면 누가 뭐라겠습니까? 우리가 잠시잠깐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다가다 말고 남에게 따귀를 한 대 붙이고 발길로 차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야, 너 가만히 있는 사람 왜 때려?" 그러고 들이덤벼서 또 때린단 말입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지은 죄는 알고 받게 마련이니 말입니다.

이렇게 말로 간편하게 얘길 하니까 그렇지, 내가 말입니다, 한 십 년 전 얘깁니다마는 이렇게 오고가다가, 길을 걷다가 봤습니다. 풍뎅이든 개미든 온통 모두 남녀에 연연하고 그렇게 탐하고 돌아가는 거를 볼 때 '야, 참 이 세상 모두가 참 저게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눈도 멀고 귀도 멀고 그냥 좇아서 저렇게 해야만 되는 건 줄 알고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인간이 돼서도 왜 꼭 그래야만 산다는 겁니까? 내 마음으로써 벗어난다면 그렇게 안 하고도 정말 재미도 볼 수 있고 정말 자비를 느낄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영원토록 내가 사랑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자유자재권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비밀을 모를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모를 겁니다. 자유스럽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의 자비성 말입니다. 바로 광력의, 자비를 베풀 수 있다면 모두가 같이 그렇게 일분일초도 틀리지 않게 사랑할 수 있고, 영원히 베풀 수 있고, 영원히 가질 수 있으며, 영원히 버릴 게 없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도량으로써, 우리의 삶으로써 생명도 돌이 아니게 모두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은 이렇게 듬금듬금 떠서 얘기했지만 오늘 한 말이 말을 떠나서 본다면 너무도 말로는 할 수 없는 도리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만 그칠 테니까 질문하시길 바

☞30면으로 계속

☞29면에서 계속

랍니다.

▲질문자1: 스님의 덕 높으신 가르침으로 온 도량이 법열로 충만합니다. 마음 모아 삼 배 올립니다. 행으로 옮길 내용으로 조상님들의 분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물자가 풍부해져서 요즘은 농촌에서도 땔감을 나무로 하지 않고 프로판가스 등으로 대치를 하다보니 산에 풀을 베지 않아 성묘길이 온통 덤불 투성이로 변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벌초하기도 힘이 들고 해서 차제에 조상님들을 화장하여 금왕지원 영탑공원에 모시고 싶은데 묘소를 잘못 손대면 큰 화를 당한다고 집안 어른들이 말리는 실정입니다. 실행해도 될지 바른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그것도 관습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잘 통해서 세상을 잘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잘 파악해서 행하시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예전에는 예전대로 그러한 시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름도 달라졌고 땅덩어리도 좁아졌고,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차에다 싣고 금방 갈 거를 마차에다 싣고 가시려고 고집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지금은 지금대로 생각이 달라져야죠. 내가 하고 싶으면 그대로 하면 될 게 아닙니까?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뒹쳐진 거니까 물 한 그릇 떠놓고 밝은 불, 향 켜놓고 삼 배 올리고 주인공에다 맡기고 소(燒)해서 물이나 산에, 물에다가 끼얹고 위패를 만들어 다라니에다가 싸서 탑에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가정에서 탑 하나만 하면 항상 뒤들어가고 되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돈도 안 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자손들에게 산으로 산으로 찾아다니라고 하기에는 부모들이 너무도 염치없습니다. 자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대에 따라서 사람이 사는 도리에 맞추어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관습 같은 데 얽매이지 마시고 마음먹은 대로 시대를 잘 봐서 돌아가는 대로 하십시오. 그게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니깐요.

▲질문자1: 한마음 공부를 한 도반들 중에는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공부를 시작한 후로 꿈 또는 직감 등을 통하여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실감했다고도 하고 그날의 닥칠 일들을 미리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한마음 공부도 진도가 있는지요. 있다면 자신이 그 효과를 측정해갈 수가 있는 것인지요.

▲스님: 아, 안 그렇다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났다고 얘기도 없었게요? 진도가 없으면 부처님이 어떻게 났겠소? 우리 육신이 태어났다면 육신이 태어난 거지 정신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태어나라 하고 부처님이 이끌어준 거죠. 자기가 정신을 태어나게 했으니까. 부처님도 어디 공중에서 떨어진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신계를 다 파악해가지고 우리들을 이끌어주시려고 사십구 년 설한 거죠. 그러니까 왜,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생명이 생겨가지고 먹고 먹히면서 그 시련을 겪으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진화돼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왜 진도가 없습니까?

우주와 인간의 근본이 직결돼 있고 이 세상은 인간의 마음에 가설 돼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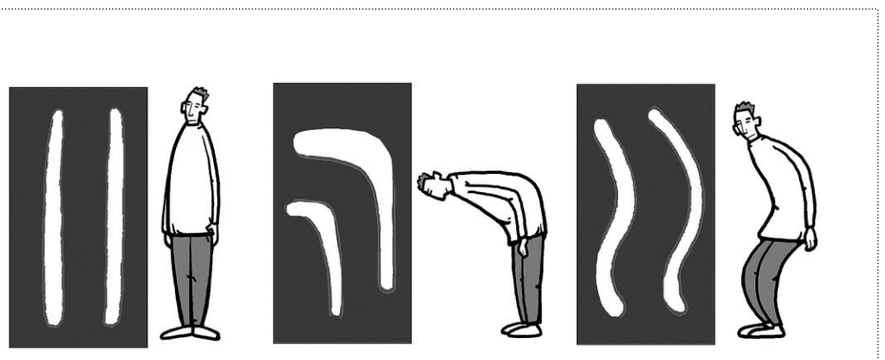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염주 줄이 염주 알을 끌고다니지 딴 게 어디 있습니까?

염주 알은 줄을 진짜로 믿어야 해요 자기 영혼의 뿌리니까요!

▲질문자1: 첨단과학이 발달한 요즘에도 현대의 의학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던 환자가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공부하다 보면 불가사의하게도 완쾌되는 도반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스님의 법력이라 막연히는 믿사오나 그 심오한 치료법의 비결은 무엇이온지 밝혀주실 수 있는지요. 아울러서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도반들이 병고에 시달림 없이 늘 함께 건강한 상태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스님의 법력으로 포용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스님: 있죠. 그건 왜냐하면요, 내가 항시 여러분한테 얘기하죠.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라고요. 단 하나 있다면 마음이 오고 가면서 둘이 아니게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쳐지니까 불이 들어올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낫게 했다 네가 낫게 했다 이런 게 없다고요. 없는 그 가운데 불만이 밝혀졌노라고요.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만이 아주 돈독한 자아부처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질문자1: 아울러서 제 사적인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꽤 오랜 기간을 다리가 근육이 풀려 힘이 없어지는 그런 병을 6, 7년 앓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양쪽 발 엄지발가락에 발톱이 나오기만 하면 바스러집니다. 이유를 몰랐죠. 지금도 불편은 합니다마는 어느 날 목욕탕을 가서 보았더니 발톱이 말짱하게 원형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발톱 양쪽이 전부 나와서 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인지요?

▲스님 : 아, 그거야 물론이죠. 그거야 물론이고 내는 놈이 그렇게 마음대로 내니까 마음이란 놈이 선장이 돼야죠. 알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란 놈이 선장이 돼서 다스려라 이겁니다. 다스려 나가되 그 다스리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이것저것 내게 하는 것은 업식입니다. 즉 말하자면 내 몸뚱이 속에 헤아릴 수 없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가지고 업식이 돼서 내 몸 안에 잔뜩 들어 있는 거죠. 들어 있으면서 이거 내보내고 저거 내보내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많이 성행했을 때 그것을 가르쳐주었더니 그대로 공부해서 가는 다리가 제대로 되고 지금 성장해서 아주 모 회사의…,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 다니고 잘 사니 나 좋고 그 사람 좋고, 세세생생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거를 본보기로 하고 마음을 발전시켜서 자기라는 놈이 그렇게 선장으로 있다는 것도 알았고, 선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자생중생들이 다 따라준다는 것도 알았고, 따라서 행해준다는 것도 알았으니 점차적으로 가다보면 자생중생들한테 항복을 받는 거죠. 항복을 받는다는 그 말 자체가 말일 뿐이지 바로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하나가 돼서 없어지니까 이거는 항복을 다 받았느니라, 이러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항복받았기 때문에 항복받은 것도 없고 안 받은 것도 없느니라. 그대로 여여하니라 이겁니다.

그러니 빨리빨리 안 되는 사람은 '저렇게 빨리 되는 사람은 빨리 되는데 난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를 빨리빨리 해야 할 텐데 하는 것도 그냥 놓고 가십시오. 공부를 하다 보면 빛도 보일 수가 있고, 어떤 땐 어떤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도 있고 이런 경계가 다가옵니다. 그럴 때 '아,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되돌려놔야 합니다.

오신통도 벗어놔야 하니까 말입니다. 이게 (법상 위의 물컵을 가리키시며) 오신통이라면은 이 바깥으로 벗어나야 이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굴리고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지 이 안에 들어가서는 이 물 컵을 굴릴 수가 없죠? 오신통이라는 것이 내 모든 법 테두리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차안 속입니다. 그래 차안을 벗어나서 피안의 세계로 벗어나야 이거를 굴리죠. 이 통을 굴린단 말입니다. 삼천대천세계를 굴릴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이것이 따지고 보면 엄청난 공부입니다. 여러분은 시작도 해볼 수 없는 공부입니다. 머리 깎고 승려가 돼야만이 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처님께서 사십구 년 설해주실 때 유마힐 거사나 부처님이나 다 같은 한 도량 안에서 모두 구속되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이끌어갔던 그 뜻을 알 겁니다. 여러분한테 말없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유마힐 거사도 그렇게 이 세상에 났던 겁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병이 다 나아야 내가 낫는다는 말을, 중생들을 다 낫게 해야 내가 낫는다는 소리로 착각을 하고 모두 계신데 내 몸속의 중생들이, 생명들이 건장해야 내 몸뚱이가 건장하지 않겠습니까? 벽을 치면 붓장이 올려야지 벽을 치면 친 대로 그것만 보니 늘어가겠습니까, 어디?

▲질문자1: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외려 감사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저 튼튼한 다리가 되셔서 이 세상을 활보하신다면 더더욱 좋겠죠.

(다음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78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홍천 연화사
아미타 대불 성지순례
동양최대 아미타 대불
(높이:36m 아파트 12층 높이)
부처님 몸 안으로 7층까지 올라가면서 부모은중경 · 극락도 · 지옥도 · 관람
7층에 올라가면 부처님 몸안에 미타삼존불 법당이 있습니다
1층에 열두 분 부처님을 한자리에서 친견합니다.
▶ 대형주차장완비
▶ 점심공양 가능
▶ 입장료 무료
◆ 주위 명소 : 홍천온천, 천년고찰 수타사
● 찾아오시는 길
연화사
www.yhs108.com
● 매월 : 초하루 및 보름 (조계사 앞 관광버스 출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1리 664번지 연엽산 연화사
전화 : 033)433-1815, 433-2009 팩스 : 033)433-5206

승복 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쪼끼 60,000 두루막 170,000
3. 면 솜없이 누비(한국산 숯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쪼끼 60,000 두루막 160,000
4.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쪼끼 70,000 두루막 200,000
5. 모직 특수솜 누비(물세탁)
적삼,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쪼끼 80,000 두루막 23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제일모직 250,000
실크 · 금낭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 스님 차이나 남방, 니트T, 니트모자, 마후라, 가방, 신도용 쪼끼, 바지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 (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①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②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땀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봄철 산행 · 사찰 참배 이렇게…

꼼꼼한 준비로 신심까지 챙겨요

봄이다. 전국의 명산고찰로 사찰참배를 가는 발걸음이 분주해지는 시기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출발한다면 모처럼의 사찰참배가 '고생길'로 끝나기 쉽다. 조계사 성지순례팀 김무착행(50) 구도부장은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산에 오르다 발톱이 빠지거나 가벼운 옷차림으로 철야정진을 하다 감기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사찰답사는 하루 일정이라도 꼼꼼히 준비해서 가야 한다"고 충고한다. 베테랑 불자들의 산행 사찰답사 준비 노하우를 들어본다.



□ 답사 코스 확인, 출발 전 준비운동 철저히

사찰참배는 가고자 하는 사찰의 사전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해당사찰 홈페이지나 시 · 도 · 군청 홈페이지에서 사찰이 위치한 산의 등산로나 산행코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곳에서 산행에 걸리는 소요시간과 찾아가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아보고 약도 등을 준비한다. 출발 하루 전에는 108배로 다리근육을 적당히 단련해 두는 것이 좋다.

□ 기상 변화 대비 참배시 갈아 입을 옷 챙겨야

가장 신경 써야할 부분은 복장이다. 봄철 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갑작스런 눈 · 비 · 우박 · 안개 등의 기상 변화 때문인 경우가 많다. 게다가 대부분의 산사가 산의 7~8부 능선에 위치해 있어 평지보다 온도가 약 5℃정도 낮으므로 방수 · 방풍이 되는 옷과 여벌의 옷을 반드시 챙겨가야 한다. 산행경험이 없는 불자들은 청바지를 입고 오르기도 하지만 땀이나 갑작스런 비에 젖을 경우 무겁고 뻣뻣해져서 산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간혹 법복 바지를 입고 산에 오르는 불자들이 있는데, 땀이나 비에 쉽게 젖기 때문에 산에 오를 땐 스판 소재로 된 바지를 입고 사찰에 도착해서 갈아입는 것이 좋다.

□ 산 속 결빙 등 안전에 주의, 비상식량 필요

사찰참배를 갈 때는 자칫 산행에 필요한 물품은 소홀히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봄철 산행은 겨울철보다 안전사고가 25%정도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해도 부족하지 않다. 2~3시간 이상 산행해야 하는 사찰로 갈 때는 나무나 돌을 잡고 올라갈 때 손을 보호해주는 면장갑, 뒤꿈치가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등산용 양말 등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 아직 녹지 않은 눈이나 얼음에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운동화 대신 등산화를 꼭 신는다. 조난 사고를 대비해 후레쉬와 물파스 등의 구급용품도 가져간다. 물은 사찰 약수터에서 보충할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이 준비해갈 필요는 없다. 입안과 목을 축일 정도로만 조금씩 천천히, 자주 마시고 산을 오르는 동안은 오이 · 당근 · 귤 등으로 수분을 보충한다. 초콜릿이나 치즈 등은 에너지를 공급해줘 비상식량으로 좋다. 떡과 영양갱도 불자들이 사찰답사를 갈 때 빠뜨리지 않고 챙겨가는 인기 간식거리다.



봄철 산행 · 사찰 참배 준비물

방풍 · 방수 옷

방석대용으로 쓰는 개인깔개

산행 중 갑작스런 비를 대비한 우산

따뜻한 보리차가 담긴 보온병

야간에 화장실 찾아갈 때 유용한 꼬마 손전등

열량이 높아 산행 간식거리로 좋은 초콜릿

부처님께 올릴 공양미

포켓용 예불천수경

□ 기도시 휴대용 깔개는 법당 바닥 찬기운 막아줘

사찰에서 108배와 간단한 기도만 하고 돌아올지 아니면 철야정진을 할지에 따라 가방을 꾸리는 법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당일 기도가 목적이라면 작은 주머니에 108염주와 포켓용 경전을 담아가는 요령을 발휘해 보자. 철야정진을 할 계획이라면 법당 바닥에서 올라오는 찬 기운을 막기 위해 덧버선과 개인용 깔개 등을 준비한다. 등산용품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스티로폼 · 비닐 소재의 깔개는 절할 때 무릎의 충격도 흡수해주고 방석 대용으로도 쓸 수 있어 산행 사찰답사에 잔뼈가 굵은 불자들이라면 꼭 하나씩 갖고 있는 물품이다.

공양물도 빼놓을 수 없는 준비물이다. 각 사찰의 성지순례팀은 '공양물은 가져오지 말고 대신 약간의 보시금을 준비하라'고 충고하지만 성의껏 준비한 공양물을 꼭 가져가고 싶다면 공양미의 경우 3~4공기 정도, 초는 두 자루, 향은 한 통, 과일은 제철과일로 3~4개만 싸는 것이 충분하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도움말 주신분=이찬영(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행객원기자), 김무착행(조계사 신도회 구도부장), 최정심(불교상담개발원 자비의 전화 사찰순례 및 산행모임팀장), 김무기(포교사단 상담전화팀)씨.



김재일 교수의 티베트의학 산책 (11)

모든 약 봉헌…의술 자체가 수행

티베트의학은 과학 철학 그리고 종교가 한데 어우러진 하나의 통학문적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그에 더하여 티베트의학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분야는 천문점성학이다.

티베트의학에서는 어떤 특별한 약물을 조제할 때나 약초의 채취시기, 뜸 같은 치료법을 시술할 때 꼭 점성학을 따진다. 그래서 매년 멘치캉(티베트의학천문성산대학)에서는 티베트 력의 달력을 발행하여 임상에 참조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티베트의학원에서도 수 년째 멘치캉으로부터 티베트력을 받아보고 있다. 티베트에서는 모든 약이 티베트 불교의식에 따라 예불과 함께 부처님께 봉헌된다. 따라서 티베트의학의 의술활동은 그 자체로 하나의 종교적 수행이자 방편인 것이다.

티베트의학은 위장병 관절염 천식 피부병 간질환 신장병 심혈관질환 불면증 불안

세계적 관심 불구 언어 장벽 · 번역서 부재 공부 장애

현대의학과 상호보완으로 '고통제거' 목적 이룰것

신경증 그리고 중추신경계 관련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에 잘 듣는다. 만성질환의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부터 도려내는 것이다. 질병의 근원을 치료하지 않으면 마치 병든 나무의 뿌리는 그대로 놓아두고 이파리와 가지만 잘라내는 꼴이 된다.

그래서 그 뿌리는 언제라도 다시 병든 잎과 가지로 무성한 나무로 자라날 것이다.

어떤 여자는 수년 째 악성 편두통으로 고생해 오며 통증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진통제에만 의존해 왔다. 그러다보니 계속 진통제의 양만 늘어가고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았다. 편두통의 근원은 다른 데 있었다. 바로 오랫동안 고생해 오던 만성 변비증이 그 뿌리였던 것이다. 그래서 변비증을 치료한 결과 편두통도 말끔히 사라지게 됐다. 만성 질환들이 모두 티베트의약으로 금방 해결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장기간 약을 꾸준히 복용하다보면 비로소 병이 뿌리부터 치유되기 시작한다.

세계적으로 티베트불교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확산되면서 티베트의학에 대한 열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래서 티베트의학을 직접 공부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역시 언어적 장벽 때문에 주저앉고 만다.

티베트의학의 기본 교과서인 <사부의전>도 영문으로 완역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1부 <근본의전>과 2부 <논설의전>정도가 다람살라 멘칵캉의 정규과정을 마쳐 티베트의사 면허를 취득한 베리 클라크(Barry Clark)에 의해 최근에야 번역되었다. 머지않아 남은 3부 <비결의전>과 4부 <후속의전>도 번역되면 티베트어를 통하지 않고도 티베트의학을 좀 더 심도 있게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그러나 티베트의학과 같이 전통이 전혀 다른 문화권의 문헌들을 다른 말로 제아무리 잘 번역해 놓은들 어디 원전만 같겠는가! 극도로 축약되어 있어서 한 소절(송)만 풀어쓰려 해도 수 쪽의 지면이 필요한 마당에 말이다. 한 문화권의 원전들을 본의의 왜곡이나 훼손 없이 다른 문화권의 언어로 되살려 놓으려면 양쪽 문화에 정통하고 두 언어 모두에 능통한 전문 인력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전통의학이라는 특수 분야에 있어서는 의학용어의 이해와 번역에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티베트의학은 티베트불교와 전통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이해와 관심이 확산되면서 세계 지성계로부터 집중적인 관심과 찬사를 받고 있다. 티베트인과 동문화권 사람들만을 위한 권역 전승의학이 아니라 지구촌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누리게 될 세계 주요 전통의학으로서 인류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머지않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대증요법을 기반으로 한 서구 현대의학은 전일의학이자 예방의학적 성격이 강한 티베트의학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티베트의학 역시 엄밀한 과학성을 생명으로 눈부시게 발전해 온 현대의학으로부터 적지 않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병의 치유와 고통 제거라는 공통의 목표와 가치를 위해 두 의학은 서로 상호 보완하는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개국 10주년 불교TV 큰스님 초청특별법회

불교TV에서는 개국 10주년을 맞아 큰스님 초청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3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봉행되는 개국 10주년 큰스님 초청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기 간 : 3월 6일 ~ 5월 8일.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장 소 : 불교TV 무상사 법당
문 의 : 02)3270-3300



3월 6일 법장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3월 13일 각성스님 화엄학회 회주
3월 20일 혜거스님 금강선원장
3월 27일 혜국스님 제주 남국선원장
4월 3일 월주스님 前조계종 총무원장
4월 10일 보성스님 송광사 방장
4월 17일 법산스님 前정각원장
4월 24일 종범스님 중앙승가대총장
5월 1일 고우스님 봉화각화사선덕
5월 8일 묘허스님 단양방곡사 회주


화개장터에서 쌍계사까지 약 6㎞ 구간의 벚꽃길. 그 화사함이 마치 결혼행렬과 같다하여 '혼례길'이라고도 불린다.



봄 · 花 · 嚴 · 法 · 界

봄 숭아 씨앗 주머니처럼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꽃봉오리들. 이내 산사의 범종 소리에 깜짝 놀라 그 속살을 수줍은 듯 드러낸다. 동백꽃 빨간 물은 상춘객(賞春客)의 마음을 뺏은 지 이미 오래고, 선비의 꽃 매화도 그 지조를 한층 뽐내고 있다. 3월 중순부터 4월초는 노란 산수유꽃과 하얀 벚꽃이 전국의 산과 사찰을 수놓는다. 화엄법계(花嚴法界), 그 속으로 떠나보자.

쌍계사 · 충렬사 벚꽃, 선운사 동백 4월초 절정


상동하춘(上冬下春), 서리 내린 지리산 노고단의 하얀 모습 때문에 능선과 구례군 상위마을에 핀 노란 산수유꽃이 두드러진다.

| 벚꽃

벚꽃이 봄을 알리는 전령사라면 '진해군항제'는 우리나라 봄꽃 축제의 총사령부다. 16만 그루의 벚꽃 구름 아래서 펼쳐지는 해군의장대 공연과 이충무공 추모제는 이 축제의 백미. 핑크빛 낭만으로 가득 찬 벚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 그 봄의 축제 현장을 찾아가 보자.

△ **법향이 벚꽃으로 나투는 곳, 쌍계사**

-섬진강의 푸르름과 하얀 벚꽃터널의 환상적인 드라이브와 법향 가득한 산행을 겸할 수 있는곳.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화계장터에서 쌍계사까지 약 6㎞구간의 '화개 10리 벚꽃길'은 수령 60년이 넘은 아름드리 벚나무가 계곡을 따라 펼쳐져 있다.

매년 4월초~중순쯤이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는데 그 화사함이 마치 결혼행렬과 같다하여 '혼례길'이라고도 불린다. 예상 만개 시기=4월 3일~4월 7일, 가는 길=호남고속도로 익산IC-봉동-17번국도-남원 19번국도-구례 19번국도. 하동군청(055)880-2544

△ **바다에서 바라보는 왕벚꽃, 남해 충렬사**

-바닷가에서 피기 때문에 육지 벚꽃보다 빛깔과 꽃봉오리가 커서 '왕벚꽃'으로 불린다. 남해대교에서 이락사에 이르는 5㎞구간과 노량마을~설천해양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벚꽃길은 푸른 바다를 끼고 있는 멋진 드라이브 코스. 예상 만개 시기=4월 1일~4월 10일, 가는 길=경부고속도로-대진고속도로진주IC-진교남해IC-남해대교. 남해군청(055)860-3801

△ **국내에서 가장 긴 벚꽃길 '전군가도'**

-전북 전주와 군산을 잇는 '번영로 1백리 길'은 벚꽃 드라이브 코스로 단연 으뜸이다. 하얀 꽃잎이 바람따라 함박눈처럼 날리는 광경은 영화 속 한 장면 같다. 전군가도를 낀 전주와 김제, 익산, 옥구, 군산 등 6개 시군은 매년 4월초부터 하순까지를 '벚꽃길 큰잔치' 기간으로 정하고 불꽃놀이, 마라톤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예상 만개 시기=4월 10일~4월 15일, 가는 길=호남고속도로 전주IC 또는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IC. 군산시청 (063)450-4554



| 동백꽃

옹골지게 다물고 있는 새색시의 빨간 입술을 닮은 동백꽃이 자태를 뽐내는 계절이다. 고창 선운사. 강진 백련사, 여수 향일암, 거제 지심도 등은 동백군락지로 유명하다. 고창 선운사의 동백꽃 절정은 3월말~4월초로 예상하고 있다.

△ **거제 지심도**

-섬의 형상이 심(心)자를 닮았다고 해서 지심도(只心島)다. 섬 전체가 동백꽃으로 뒤덮여 있다. 주변해역에서 나오는 전복, 해삼, 멍게, 미역 등의 해산물도 진미다. 예상 만개 시기=3월 25일~4월 10일, 가는 길=남해고속도로-서마산IC(14번국도)-고성~통영~장승포행여객선. 거제시청(055)639-3198

△ **서천 마량포**

-울창한 동백숲과 아름다운 해변의 절경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마량포의 동백은 남도의 동백과는 달리 꽃잎이 한 겹인 것이 특징. 3월 말~4월 초 사이에는 동백정과 춘장대 해수욕장, 해돋이 마을 등을 둘러보고 쭈꾸미를 시식할 수 있는 '동백-쭈꾸미' 축제가 열린다. 예상 만개 시기=3월 26일~4월 8일, 가는 길=경부고속도로 천안IC(21번국도)-예산-홍성-보령-서천. 서천군청(041)950-4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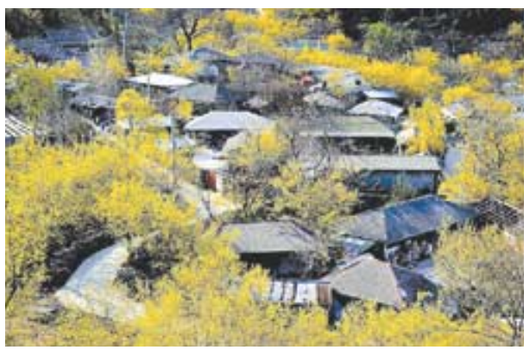


| 복사꽃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두독마을 복사꽃단지는 지금 무릉도원으로 변신중이다. 이 농원에 가면 복숭아를 활용한 음식과 술 담그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4월 중순쯤에 열리는 치악산 복사꽃축제에서는 '복사꽃길 작은 음악회', '국악 연주회', '사진촬영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예상 만개 시기=4월 15일~4월 26일, 가는 길=영동고속도로원주IC-소초면 방면 5분 거리. 치악산 복사꽃축제 위원회(033)731-9008

| 산수유

국내 최대의 산수유 단지인 전남 구례 상위마을을 걷노라면 노란 꽃구름 속에 파묻힌 별천지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가족음악회', '산수유 꽃길 걷기대회', 산수유에서 추출한 색소로 관광객들의 얼굴에 꽃을 그려주는 '페이스페인팅' 등으로 이루어진 산수유 축제는 3월 30일까지 열린다. 예상 만개 시기=3월 26일~4월 3일, 가는 길=호남고속도로 전주IC-17번국도-임실-남원-밤재-상위마을. 구례군청(061)780-2496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Let's KT

구독신청 '大' 혜택 2가지

부모님은 평생구독! 자녀는 스마트폰!

현대불교신문사가 드리는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 최저가 특별보급

1 현대불교 영구독자 선착순 신청 1,000분께만 특별한 혜택
현대불교신문 평생구독을 신청하시면 89만 1천원의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 을 무료로 드립니다. (평생구독료 62만5천원)

부모님은 평생구독 + 자녀는 스마트폰
아이벗 무료제공, 가입비 3만원 별도, 영구독자료 일시납, 18개월 의무사용

2 초기수납금 없는 최저가 24개월 무이자 할부 보급(월 평균 할부금 24,291)
현대불교신문 기존 독자와 신규독자 그리고 일반가입자분께는 24개월 의무 사용조건으로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 의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아이벗의 I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dranet) 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이며, BUD는 Buddy(친구)를 뜻합니다


스마트폰 아이벗

MP3 · 카메라폰과 PDA를 하나로
휴대폰 위의 휴대폰
HP iPAQ rw61 '아이벗'



특별보급가 아이나비 일체형 세트 880,000원
일반 구입시, 스마트폰 HPRW6100(891,000원) + 스마트폰용아이나비(484,000원)

매일 매일 쏟아지는 불교세상 - 언제나 부처님 세상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뉴스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기사가 종합, 신행, 문화, 생활, 영상 뉴스로 나누어 제공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기자 30여명이 매일 생산하는 기자가 즉시 업데이트 되며 불교뉴스에 대한 해설, 분석 등도 함께 기사로 서비스 됩니다. 또한 문자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불교계의 뉴스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함께 자기 주변에 있는 불교 이야기를 올릴 수 있는 기사 제보 코너가 있어 쌍방향 뉴스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천불가코너에서는 다양한 행사 및 의식곡을 비롯해 창작 찬불가까지 서비스되며 교계 일정을 매일매일 상세히 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아이벗 단말기의 첫 페이지를 재미있게 꾸밀수 있는 스킨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향후 벨소리, 게임 등 다양한 불교문화콘텐츠를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법문
이시대의 큰스님의 법문을 문자, 영상 등으로 서비스합니다. 지상백고좌, 길을 묻는 이에게, 주제가 있는 법문은 주로 문자형태로 큰스님 가르침의 진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방장, 선원장, 주지 스님 등 다양한 계층의 스님과 다양한 지역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상법문의 경우는 영상으로 직접 큰스님의 생생한 법문을 접할 수 있습니다.


e-BOOK
불교계 최대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불서 정보를 서비스합니다. 신간, 베스트셀러를 비롯해 여시아문에서 추천하는 도서를 E-BOOK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교양대학
크게 불교학 강의, 경전 강의, 문화강의로 나누어 다양한 강좌를 들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영상과 문자로 강의를 볼 수 있으며 직접 대학에 등록하지 않아도 전국의 유명 강사와 스님의 명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강의는 불교미술, 다도, 꽃꽂이 등 다양한 강좌들을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아이벗 불교정보서비스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아이벗 단말기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제공하며 향후 사이버기자와 문화지킴이 등 자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이버법당
매일매일 하루를 경책하는 경구를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자로서 가져야 할 예절과 기초 교리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향후 자신이 속한 사찰의 스님이 직접 신도들에게 직접 사찰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등접수, 기도 접수 등 사찰의 다양한 종무행정도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불교문화샵
온라인 불교 쇼핑몰인 마하몰에서 제공하는 불교문화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아이벗(I-BUD)사업단 전 화 : 02)735-3034, 737-8881 / 팩스 : 02)738-3034 www.buddhanews.com / www.buddhapia.com